

국토연구원 소장 稀貴資料 및 珍書 解説

# 희귀자료 및 진서 해설

·  
김 의원



김의원 (金儀遠, 전 경원대 총장)

1931년생으로 1955년 경북대 사대 졸업. 1983년 일본대학 공학 박사. 1955년 서울시 도시계획전문위원을 시작으로 건설부 국토계획과장(1967), 국토계획국장(1971), 도시국장(1977), 국립지리원장(1980), 국토개발연구원장(1981) 등 국토관련 정책과 연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후 1986년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경원대 대학원장(1990), 경원대 총장(1997)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건설진흥회장을 맡고 있다. 홍조근정훈장, 국토계획학회학술상, 서울시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한국국토개발사연구」, 「국토이력서」, 「지역발전론」, 「국토백상」, 「실록 건설부」 및 수필집 「산넘고 강건너」 등이 있다. 이밖에 TV, 라디오 출연과 신문·잡지 등에 500여 편의 글을 발표했다.

#### 희귀자료 및 진서 해설 (稀貴資料 및 珍書 解說)

인쇄 · 2005년 9월 10일

발행 · 2005년 9월 15일

발행처 · 국토연구원

발행인 · 이규방

지은이 · 김의원

출판등록 · 제2-22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 431-712

전화 · 031-380-0114 (대표) · 031-380-0426 (배포담당)

팩스 · 031-380-0474

홈페이지 · [www.krihs.re.kr](http://www.krihs.re.kr)

© 2005 국토연구원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발간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 해설서를 내면서

2001년인가 필자가 소장하고 있던 장서 중 회고록 쓸 때 자료 일부를 남겨두고 대부분을 국토연구원에 기증한 바 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국토와 도시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토목과 건축 일반에 관한 책들이다.

자료의 대부분은 필자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수집한 손때 묻은 것들이다. 그 중에는 돈을 주어도 구할 수 없는 희귀자료(稀貴資料)와 진본(珍本)이 70여 종 120여 권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자료가 대부분 일어로 되어 있거나 한자로 되어 있어 해설서가 없으면 요즘 사람들이 해독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 해설서를 쓰게 되었다.

『朝鮮地誌資料(조선지리지자료)』 같은 책은 일제가 9년간에 걸쳐 실시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총 결과를 수록한 것인데, 국토면적부터 하천의 연장과 산의 높이 등 국토에 관한 모든 제원이 기록되어 있다.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書(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서)』 등은 비록 일본인들에 의한 발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옛 기록에서 발취한 것인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黃砂)현상까지 기록되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국토계획에 관한 연구의 실적도 있다. 중국의 토목사(土木史)라 할 수 있는 『中國の科學と文明(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비롯하여 일본의 택리지라 할 수 있는 『日本水土考(일본수토고)』와 孫文(손문)의 『共榮大計(공영대계)』, 『이스라엘 國土基本計劃(국토기본계획)』도 흥미롭다.

이들 자료는 본인이 『韓國國土開發史研究(한국국토개발사연구)』를 집필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거의 20년 간의 자료수집 끝에 집필을 시작했다. 이 희귀자료와 진서는 국토개발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란 점을 첨언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용을 바란다.

2005. 8.

김 의 원

# 글의 순서

|  |    |
|--|----|
| 해설서를 내면서 .....   | 3  |
| ① 朝鮮土木事業誌 <small>조선토목사업지</small> .....                         | 9  |
| ② 水の琴 물에 관한 Hand Book .....                                    | 11 |
| ③ 朝鮮地誌資料 <small>조선지리지자료</small> .....                          | 13 |
| ④ 朝鮮の國土開發事業 <small>조선의 국토개발사업</small> .....                    | 15 |
| ⑤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small>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small> .....               | 17 |
| ⑥ 國土計劃の基本概念に關する解説 <small>국토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해설</small> .....       | 19 |
| ⑦ 國土計劃論 <small>국토계획론</small> .....                             | 21 |
| ⑧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 <small>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small> .....                 | 23 |
| ⑨ 韓國誌 <small>한국지</small> .....                                 | 25 |
| ⑩ 朝鮮土木行政法 <small>조선토목행정법</small> .....                         | 27 |
| ⑪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錄 <small>조선총독부 종정의 기록</small> .....                 | 29 |
| ⑫ 經濟開發三個年計劃 <small>경제개발3개년계획</small> .....                     | 31 |
| ⑬ 朝鮮 市街地計劃關係法規集 <small>조선 시가지계획 관계법규집</small> .....            | 33 |
| ⑭ 國土綜合開發の歴史 <small>국토종합개발의 역사</small> .....                    | 35 |
| ⑮ 都市計劃白書 <small>도시계획백서</small> .....                           | 37 |
| ⑯ 서울 都市計劃의 過去와 將來 <small>서울 도시계획의 과거와 장래</small> .....         | 39 |
| ⑰ 中國の科學と文明(土木史) <small>중국의 과학과 문명(토목사)</small> .....           | 41 |
| ⑱ 日本水土考・水土解辯・増補 華夷通商考 <small>일본수토고·수토해변·증보 화이통상고</small> ..... | 43 |
| ⑲ 外邦測量沿革史 <small>외방측량연혁사(전3권)</small> .....                    | 45 |
| ⑳ 韓半島 <small>한반도</small> .....                                 | 47 |
| ㉑ 朝鮮の風水 <small>조선의 풍수</small> .....                            | 49 |
| ㉒ 太平洋戰下の朝鮮及び台灣 <small>태평양전하의 조선 및 대만</small> .....             | 51 |

|    |                       |                       |    |
|----|-----------------------|-----------------------|----|
| 23 | 太平洋戦下の朝鮮              | 태평양전쟁하의 조선            | 53 |
| 24 | 朝鮮の山水                 | 조선의 산수                | 55 |
| 25 | 今は昔の今なりや              | 지금은 옛날의 지금이다          | 57 |
| 26 | 支那の國土計劃               | 중국의 국토계획              | 59 |
| 27 | 朝鮮遊覽歌                 | 조선유람가                 | 61 |
| 28 | 營造法式                  | 영조법식                  | 63 |
| 29 | 朝鮮の人口現象               | 조선의 인구현상              | 65 |
|    | 人口調査結果報告              | 인구조사결과보고              | 65 |
| 30 | 蔚山工業센타一建設을 爲한 技術評價報告書 |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위한 기술평가보고서 | 67 |
| 31 | 내무행정치적사(토목행정편)        |                       | 69 |
| 32 | 朝鮮水力調査書               | 조선수력조사서               | 71 |
| 33 | 朝鮮土地改良事業史             | 조선토지개량사업사             | 73 |
| 34 | 朝鮮一七個都市 都市計劃 決定書      | 조선 17개 도시 도시계획 결정서    | 75 |
| 35 | 天安都市計劃決定案             | 천안도시계획결정안             | 77 |
|    | 永同都市計劃決定案             | 영동도시계획결정안             | 77 |
|    | 安城都市計劃決定案             | 안성도시계획결정안             | 77 |
|    | 鳥致院都市計劃決定案            | 조치원도시계획결정안            | 77 |
|    | 原州都市計劃決定案             | 원주도시계획결정안             | 77 |
|    | 淸州都市計劃決定案             | 청주도시계획결정안             | 77 |
| 36 | 昭和三十年の朝鮮              | 1955년의 조선             | 80 |
| 37 | 朝鮮年鑑(1948)            | 조선연감                  | 82 |
| 38 | 朝鮮地誌                  | 조선지지                  | 84 |
| 39 | 朝鮮の聚落                 | 조선의 취락                | 86 |
| 40 | 國土建設年鑑(1961)          | 국토건설연감                | 88 |

## 글의 순서

|    |                   |                      |     |
|----|-------------------|----------------------|-----|
| ④1 | 朝鮮治水治山史考          | 조선지수치산사고             | 90  |
| ④2 | 復興白書              | 부흥백서                 | 92  |
| ④3 | 朝鮮河川調査書           | 조선하천조사서              | 94  |
| ④4 | 北學議               | 북학의                  | 96  |
| ④5 | 文岩集: 漆室空談         | 문암집: 칠실공담            | 98  |
| ④6 | 大韓地誌              | 대한지지                 | 100 |
| ④7 | 朝鮮の洪水             | 조선의 홍수               | 102 |
| ④8 | 旅庵全書              | 여암전서                 | 104 |
| ④9 | 全鮮名勝古蹟(全)         | 전선명승고적(전)            | 106 |
| ⑤0 |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 108 |
| ⑤1 | 漢江流域調査報告書         | 한강유역조사보고서            | 110 |
| ⑤2 | 英・獨・日の國土計劃        | 영·독·일의 국토계획          | 112 |
| ⑤3 | 朝鮮王朝實錄            | 조선왕조실록               | 114 |
| ⑤4 | 朝鮮經濟年報(1948)      | 조선경제연보               | 116 |
| ⑤5 | 施政二十五年史           | 시정 25년사              | 118 |
|    | 施政三十年史            | 시정 30년사              | 118 |
| ⑤6 | 京城府史              | 경성부사                 | 120 |
| ⑤7 | 日本土木史             | 일본토목사                | 122 |
| ⑤8 | 數字朝鮮研究            | 수자조선연구               | 124 |
| ⑤9 | 台灣地區綜合開發計劃概要      | 대만지구종합개발계획서개요        | 126 |
| ⑥0 | 이스라엘 國土基本計劃       | 이스라엘 국토기본계획          | 128 |
| ⑥1 | 京城都市計劃書概要         | 경성도시계획개요             | 130 |
|    | 京城府都市計劃要覽         | 경성부도시계획요람            | 130 |
|    | 京城風致地區指定資料調査書     | 경성풍치지구지정자료조사서        | 130 |

|           |                                      |                    |
|-----------|--------------------------------------|--------------------|
| 大京城座談會速記録 | 대경성좌담회속기록                            | 130                |
| ⑥2        |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査書                         | 경성부 행정구역확장 조사서 132 |
|           | 京城府土木事業概要                            | 경성부 토목사업개요 132     |
| ⑥3        | 大邱府史                                 | 대구부사 134           |
|           | 仁川府史                                 | 인천부사 134           |
|           | 全州府史                                 | 전주부사 134           |
|           | 木浦府史                                 | 목포부사 134           |
|           | 群山府史                                 | 군산부사 134           |
|           | 釜山府史原稿                               | 부산부사원고 134         |
| ⑥4        | 月刊「朝鮮」總目次                            | 월간「조선」총목차 136      |
| ⑥5        | 日韓の古地名研究                             | 일한의 고지명 연구 138     |
| ⑥6        | 業務現況(1981, 1982)                     | 업무현황 140           |
|           | 主要業務計劃(1981, 1983, 1985, 1986, 1987) | 주요업무계획 140         |
| ⑥7        | 市政主要日誌(1974~1979)                    | 시정주요일지 142         |
| ⑥8        | 大統領閣下指示事項措置現況(1967~1978)             |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조치현황 144 |
| ⑥9        | シーボルト「日本」                            | 시-볼트의 일본 147       |
| ⑦0        | 戰後國土政策の檢證                            | 전후 국토정책의 검증 149    |
| ⑦1        | 靑丘史草                                 | 청구사초 151           |

찾아보기

|   |                  |     |
|---|------------------|-----|
| ① | 서명으로 찾아보기        | 155 |
| ② | 저자명(발간기관)으로 찾아보기 | 159 |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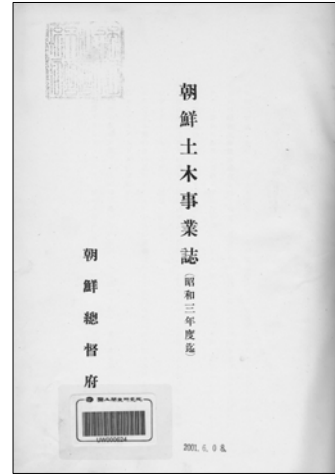
- 본문은 장제목, 서지사항,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 장제목은 자료의 원제목을 표기하고 그 음을 윗첨자로 달았다.
- 서지사항은 “발간연도 / 발행처 / 총 면수 / 국토연구원 도서관 대출기호” 등의 순서로 표기하였다.
- 사진자료는 표지에 제목, 발행처 등이 표기된 경우에는 표지를 게재하였으나, 표지가 없거나 표기내용이 없는 표지의 경우는 속표지를 게재하였다.
-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문 중 한 부분을 게재하였다.



# ① 朝鮮土木事業誌 조선토목사업지

1937년 / 조선총독부 / 1530면 / 06.40-06 조53조 1928

**조** 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1937년에 발행, 한 일합병에서 1929년 말까지(1910~1929)의 토목사업을 총괄한 1,500여 면의 방대한 기록이다. 주요 내용은 ① 조선 토목제도의 연혁을 비롯하여 ② 도로, ③ 하천, ④ 항만, ⑤ 시가지 정리, ⑥ 상수도, ⑦ 하수도, ⑧ 재해복구, ⑨ 부록으로 토목사업 관계 직원의 명단과 ⑩ 관계법규를 수록하고 있다.



법규는 ① 조선토지수용령(令)을 비롯하여 ② 조선하천령, ③ 조선공유수면매립령과 도로규칙과 시가지 건축취제 규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가지 건축취제 규칙은 조선시가지계획령(지금의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도시계획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가 1910년에 우리나라를 강점하자 토목(건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것이 1911년의 '조선토지수용령(朝鮮土地收用令)'이었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수용령이 다급하게 된 이유는 첫째, 군(軍)의 주둔에 필요한 군용지와 토목사업 예정지의 강제 매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토지수용령(令)은 지금의 법(法)이다. 당시 일제는 조선총독에게는 제령권(制令權)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했다. 제령권이란 일본의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선총독이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당시의 '조선토지수용령'이나 '조

선도로령’, ‘조선하천령’, 또는 ‘조선시가지계획령’ 등은 지금의 법(法)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의 토지수용령은 지금의 토지수용법보다 훨씬 강압적인 법이었다. 36년 간의 피통치 기간 중 우리 민족은 이 법의 발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기다시피 했다. 그 악명이 얼마나 높았던지 해방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신문들은 “○○지역에 토지수용령 발동”이란 말을 쓰고 있다. 또한 이 책은 1910년에서 1928년까지 서울의 물가와 노임지수(勞賃指數)를 월별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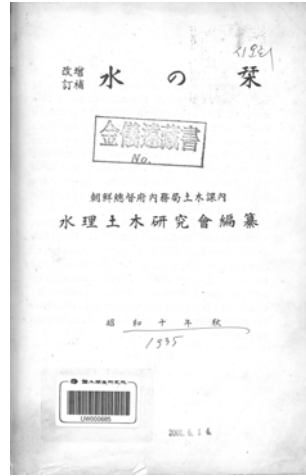
한편 이 책에는 1912년에서 1928년까지의 전국 10대 도시, 즉 서울, 인천, 평양, 원산, 대구, 진남포, 목포, 군산, 부산 및 청진에 대한 노임통계가 실려 있다. 이를테면 1912년 서울에서 목수의 경우 일본인은 1엔(円) 50전(錢)인 데 반하여 조선인은 1엔이었고 일반 인부는 일본인 78전인 데 비하여 조선인은 42전이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1910년부터 1929년까지의 연도별 토목사업비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 ② 水の葉 물에 관한 Hand Book

1927년 / 梶山淺次郎(가지야마 아사지로) / 360면 / 06.40-06 수 1935 c.2

『물』에 관한 Hand Book』이란 이름의 이 책은 1927년 봄에 『미스노시오리』란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래 1년 간 3판을 거듭하다가 1935년에 개정 증보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당초는 수자원에 관한 Hand Book이었으나 증보판에서는 도로 축조에 관한 표준안을 추가함으로써 『물에 관한 Hand Book』이 『土木工學 Hand Book』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책은 지금처럼 컴퓨터도 전자계산기도 없이 나무로 만든 계산척(計算尺, Slide rule)과 수동식 계산기가 고작이었던 시대에 설계와 계산 등에 필요한 기본 통계와 수표(數表)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다. 이 작업은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에 설치된 『수리토목연구회(水理土木研究會)』에서 편찬한 것이다. 총 360면에 달하는 이 책은 ‘梶山公式(가지야마 공식)<sup>1)</sup>’으로 유명한 梶山淺次郎(가지야마 아사지로)가 주역(主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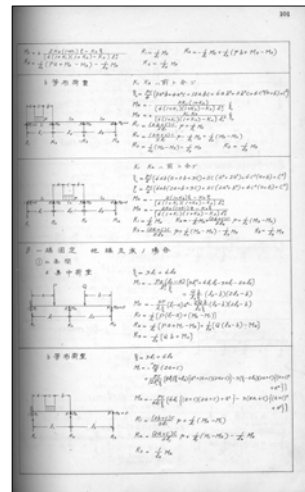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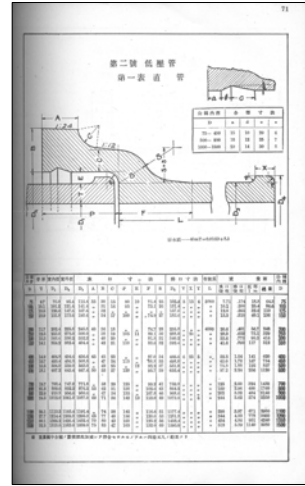
책의 내용은 ① 각종 통계로부터 ② 편리수표, ③ 재료, ④ 기계, ⑤ 구조역학, ⑥

1) 홍수에 관한 ‘가지야마(梶山) 공식’은 세계적인 공식이 되었다. 가지야마(梶山)는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 가지야마 공식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중 작고하였다 한다. 이 공식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많은 도면과 수표들이 오프셋 인쇄되어 있다.

철근, ⑦ 수리(水理)학, ⑧ 도로, ⑨ 옹벽, ⑩ 하천, ⑪ 언제(堰堤), ⑫ 수리관계, ⑬ 수력전기, ⑭ 상수도, ⑮ 하수도 및 ⑯ 기타(풍압)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각종 통계편에 서울의 지난 150년(1771~1925) 간 우량관측기록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편리수표에서는 구적공식(求積公式)과 도량형 환산도표도 있다. 재료란에는 각종 재료의 강도표(목재, 석재, 금속별)도 있다. 기계부문에서는 톱니바퀴와 스크류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도로부문에서는 도로축조 표준으로서 1등도로는 유효폭원을 7m로 하고 2등도로와 3등도로는 6m로 하되 단, 부락 내의 구간과 주요 시가에 인접한 구간의 유효폭은 9m 이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도로의 유효폭원이라 함은 노면폭에서 노견(갓길)폭을 뺀 것을 말한다. 하천부문에서는 제방단면 결정의 공식을 비롯하여 수문(水門) 설계에 관한 기준과 하천 측량도면을 작성할 때의 요령 등도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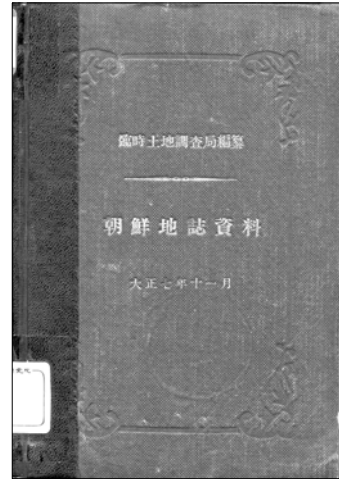
이밖에 언제(堰堤; 댐)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과 수리관계, 수력발전, 상수도, 하수도 등에 관한 섬세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풍압(風壓)에 관한 내용과 잡록으로 시멘트와 화산회(火山灰) 석회와 모래의 1m<sup>3</sup>당 재료표가 제시되고 있다.



### ③ 朝鮮地誌資料 조선지리지자료

1919년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 438면 / 14.10-08 입59조 1919

일 제는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자 1911년부터 18년까지 9년 간에 걸쳐 『조선토지조사사업』(8장 참조)을 실시한다. 1918년에 편찬하여 1919년에 발간한 이 자료는 토지조사사업의 성과물을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물론 편찬한 곳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고 분량은 438면에 달한다.

내용은 총설과 행정구역, 하천(河川), 호소(湖沼), 산악(山岳), 해안선, 도서(島嶼) 및 경제 등 9개 부문이다. 국토면적은 면(面)별 면적을 토대로 시·군 면적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 11개, 동서 8개의 국토단면도도 있다.

또한 하천의 길이와 유역면적도 있다. 하천은 주요 하천별 경사도(傾斜度)도 있다. 하천의 유로연장(流路延長)도 압록강 790.35km, 한강 514.40km, 대동강 438.95km, 금강 401.40km란 사실이 이때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산악은 2,744m의 백두산을 비롯하여 29m의 만리성고개까지 총 2,925개의 산 높이가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 높이가 1,950m라는 것도 사실은 이 당시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측량의 결과다.

한편 우리나라 해안선 연장은 8,693.1km로 기록되어 있다. 조수간만의 차도 이때 조사한 것이 거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남북한)의 도서(島嶼)

수가 3,305개라는 사실도 처음 밝혀졌다. 더욱이 이 조사에서는 섬 하나하나의 면적은 물론 해안선 연장과 섬에서 제일 높은 지점의 높이까지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도별 도서 수를 보면 경기 201, 충북 0, 충남 211, 전북 94, 전남 1,841, 경북 11, 경남 403, 황해 161, 평남 53, 평북 12, 강원 52, 함남 77, 함북이 29개로 되어 있으며 전남이 제일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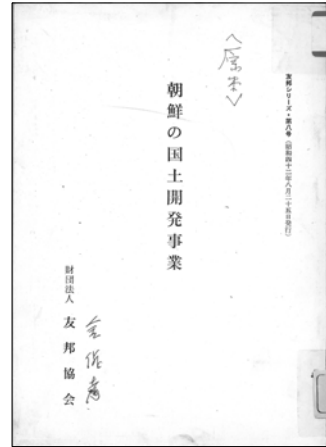
경제부문에서는 전국 5일장의 위치와 개시날짜 및 연간 거래액과 주요 거래상품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군(郡) 단위로 전(田), 답(畓), 대지(垈地) 별로 1단보당 땅값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단보당 수확량도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야말로 일본식으로 말하면 ‘虎の巻(도라노마끼)’다. 우리말로 하면 ‘도깨비방망이’라고나 할까? 말하자면 국토에 관한 비전서(秘傳書)라 할 수 있다. 필자는 1966년 1월 28일 인사동의 통문관(通文館)에서 이 자료를 사들고는 거의 며칠 동안 보고 또 보면서 국토를 내가 독차지한 것 같은 감회를 느낀 적이 있다.

#### ④ 朝鮮の國土開發事業 조선의 국토개발사업

1967년 / 우방시리즈 8호 / 우방협회(友邦協會) / 86면 / 02.10-08 조 1967

1967년 8월 25일 ‘우방(友邦)시리즈’ 제8호로  
간행했다. ‘우방협회(友邦協會)’란 식민  
지 통치시대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친목단체  
인데 해방 후 동경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총 86면의  
이 책자는 1929년의 『朝鮮土木事業誌(조선토목사업지)』



이후 1945년 해방 당시까지 우리나라 토목사업의 기록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  
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각 분야의 회고담도 담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服部(햇도리)라는 헌병대장이 있어 부역으로 많은 도로를 건설했다.  
대구~경주간 도로는 거의 일직선이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햇도리 도로’라고 불렀다.  
조선의 도로에는 ‘洗越(아라이고시)’이라는 독특한 공법이 있었다. 교량이 가설되어 있  
지 않은 하천에 도로폭만큼 콘크리트를 쳐놓고 차들은 이 위를 통행한다. 하천 개수가  
되기 전에는 다리를 건설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방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고 교량의  
길어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과도기적인 공법이었는데 이것을 ‘아라이고시’라  
고 불렀다. 이 아라이고시의 한가운데에는 암거(暗渠)가 있어 평상시의 물은 이곳을 통  
해 빠져나간다.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도처에서 ‘아라  
이고시’를 볼 수 있었다.

1925년의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는 홍수기록시설을 설치한 이래 가장 큰 홍수였다.

이 해 강우전선이 7월 초순부터 9월 초순까지 두 달 동안 남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전국 하천을 4번이나 강타했다. 특히 7월 18일의 한강 대홍수는 16일~18일의 사흘 간에 650mm의 우량을 기록하였으니 집중호우의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 이때 한강의 수위는 12.74m를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이 기록을 깬 사례는 별로 없다.

이 홍수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은 낙동강과 한강이었다. 이때 서울은 용산 철도관사(표고 약 23m)의 1층 천장까지 물이 찼을 뿐 아니라 서울역 광장까지 침수되었다. 이 당시 서울 인구는 30만이었다.

이 책에는 식민통치기간, 즉 1911~1945년까지의 투자액도 기록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총투자액 : 70~80억 엔
- 공공투자 : 약 28억 엔
  - 도로 : 2억 1천만 엔(23,678km의 도로건설)
  - 철도 : 20억 엔(7,800km의 철도건설)
  - 치수 : 2억 7천만 엔
  - 항만 : 38개 항(2,615만 톤의 하역능력 보유)
  - 도시개발 : 38개 도시



## 5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

1917년 / 조선총독부 / 200면 / 13,10-03 조53조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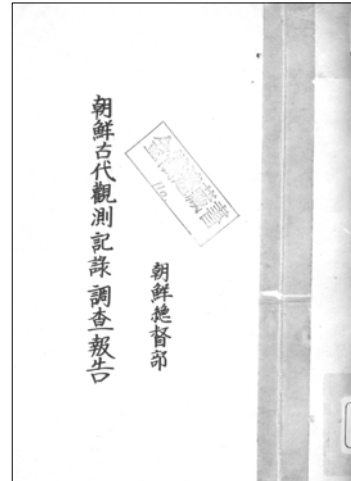
1917년 7월 조선총독부 관측소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당시의 관측소장이었던和田雄次(와다 유우지) 박사의 연구 결과물이다. 총 200면으로 된 이 보고서는和田(와다) 박사 퇴임 후 이 방면 조사를 촉탁받아 이룩한 성과, 즉「古代觀測調查補

遺(고대관측조사보유)」와「最近 百四十年間 京城雨量(최근 140년 간 경성우량)」,「朝鮮에 있어서의 霾(황사)에 대하여」와 關口(세키구치) 박사의「朝鮮古記錄中の 慧星과 流星(조선 고기록 중의 혜성과 유성)」에 관한 보고서를 합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와다 박사가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고기록(古記錄)을 섭렵하여 발췌한 것인데 세종 24년(1442년)에 제작한 우리 측우기(測雨器)가 세계 최초의 측우기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양이 1639년에 우량관측을 시작하기보다 200년이 앞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비록 복사본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토에 관한 기본 사항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료다.

와다 박사는「風雲記(풍운기)」,「天變抄出騰錄(천변초출등록)」,「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日省錄(일성록)」에서 서울의 최근 140년 간의 우량(雨量) 통계를 작성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



면 삼국(三國)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약 2000년 간 지진일수가 1,661일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이 넘어지거나 사상자가 발생한 정도, 즉 강진(強震) 횟수를 보면 삼국시대 992년 간에 11회, 고려시대 456년 간 4회, 조선시대 519년 간 26회나 있었다.

지금 서울에는 내진설계(耐震設計)가 되어 있는 건물이 필자가 알기로는 삼성 본사를 비롯하여 열 손가락을 꼽기도 어려울 수준이다. 만약 앞으로 우리나라에 등급(magnitude) 6 정도의 지진이 온다면 아파트는 물론 대부분의 고층건물이 무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봄철이면 시작되는 황사 현상은 흔히들 최근에 비롯된 자연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B.C. 34년부터 근 2000년 간 우리나라에 250여 회의 황사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와다 박사는 황사 현상의 고증으로 『三國史記(삼국사기)』, 『文獻備考(문헌비고)』, 『高麗史(고려사)』,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과 『天變抄出曆錄(천변초출등록)』 등을 활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경주의 첨성대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도 기술하고 있다.

## 6 國土計劃の基本概念に關する解説 국토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해설

1940년 / 국토계획자료 제1집 / 조선총독부 기획부 / 76면 / 02.10-08 조53국 1940

이 책은 「國土計劃에 관한 論文集(국토계획에 관한 논문집)」(1940년 11월)의 증보판으로 작성된 것이다. 당시 참고문헌으로 열거된 저서와 논문을 보면 이때 이미 일본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저술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地方計劃(지방계획)의 理論(이론)과 實際(실제) - 高居武四郎
- ② 公業 입지의 연구 - 川西正鑑
- ③ 都市計劃(도시계획) 야화 - 飲沼一省
- ④ 大(대)런던 지방계획 1차 보고 - 內務省 企劃局
- ⑤ 세인트루이스 地方(지방)계획 - 內務省 企劃局
- ⑥ 미국의 地方計劃(지방계획)에 대하여 - 早川文史
- ⑦ 국토계획 등장의 의의 - 同盟通信社
- ⑧ 국토계획과 電力(전력) - 北久一
- ⑨ 국토계획과 철도 - 中川正左
- ⑩ 工業(공업)과 港灣(항만)계획 - 丹羽鋤彦
- ⑪ 국토계획과 河川(하천) - 津重民

- ⑫ 국토계획과 전신전화 - 安田文助
- ⑬ 국토계획자료 제2집(1940. 11)
- ⑭ 國土計劃に關する論文集(국토계획에 관한 논문집)
- ⑮ 국토계획자료 제3집(1940. 12): 「日本に於ける國土計劃の發展(일본에 있어서의 국토계획의 발전)」
- ⑯ 국토계획자료 제4집(1941. 2): 「國土計劃策定に關する參考資料(其一)(국토계획 책정에 관한 참고자료(No.1))」
- ⑰ 국토계획자료 제5집(1941. 4): 「國土計劃に關する論文集(其二) (국토계획에 관한 논문집 (No.2))」

일본은 독일의 히틀러를 본떠 1940년 9월 24일에 「국토계획요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히틀러의 국토계획은 유사시에 대비한 지역별 자급자족을 위한 산업 배치와 이를 능률화하기 위한 수송시설의 확충·정비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운송의 중심은 운하였다. 운하가 없는 곳에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했는데 히틀러의 「空間秩序(공간질서)계획」이란 이름의 국토계획은 아우토반 건설을 촉진시켰다.

일본이 국토계획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세계경제는 유럽과 북미, 그리고 북방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3대 블록이 형성되고 있었다. 신흥 제국인 일본은 이들 기존 블록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본, 만주 및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를 포함하여 이른바 아세아 경제블록을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이 논문집은 국토계획을 담당하던 조선총독부 기획부 제1과에서 편찬한 것으로 총 174면에 달한다. 내용은 7편의 논문과 부록으로 근위내각의 기본 국책요강과 신체제 준비에 있어 近衛(고노에) 수상의 성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철필로 굵어 등사한 것인데 문자가 활자보다 더 아름답다.

## 7 國土計劃論 국토계획론

1940년 / 奥井復太郎(오오이 후쿠다로) / 112면 / 02.10-08 오73국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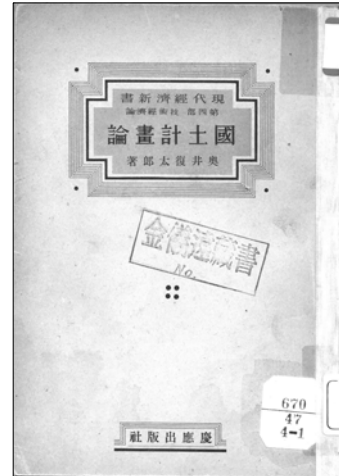
**奥** 井復太郎(오오이 후쿠다로, 1897~1965)는 일본 도시학의 선구자로서 게이오대학(慶應大) 이재학과를 졸업했다. 경제학을 토대로 도시문제에 관심을 갖고 1940년에 저술한 『現代大都市論(현대대도시론)』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이것을 계기로 연구 방향을 사회학적인 시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1953년 일본도시학회(日本都市學會)의 재건과 더불어 회장이 된다.

한편 게이오 대학에서는 1956년~1960년까지 총장을 지냈으며 기골 있는 명치인(明治人)으로 알려진 그는 일본의 도시 연구에 있어 이론적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돌아간 10년 후인 1975년, 유고를 모은 『都市의 精神(도시의 정신)』이 출간되었다.

『國土計劃論』은 1940년 5월에 출간된 교토제국대학의 武居高四郎(다게이 다카시로)의 『國土計劃과 理論(국토계획과 이론)』과 더불어 일본에서 최초로 간행된 국토계획에 관한 저서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다.

### 1장 총론

- 1절 국토계획이란 무엇인가?
- 2절 국토계획이 유행하게 된 이유



- 3절 국토계획의 내용과 기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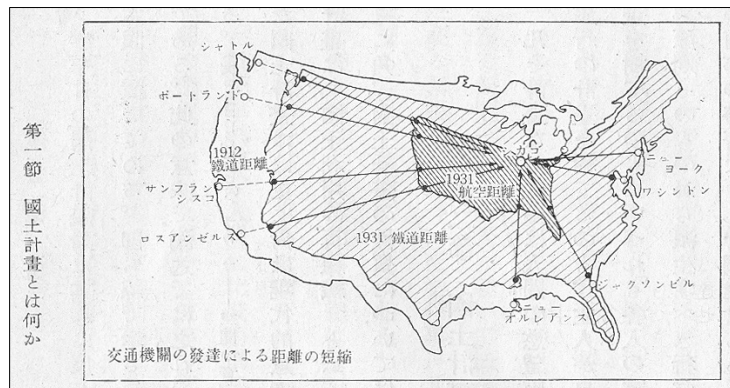
## 2장 국토계획의 지도이념

- 1절 국토계획의 내적, 외적 규정
- 2절 입지론(立地論)
- 3절 경영이론
- 4절 균형론

## 3장 국토계획의 현대적 의의

- 1절 분산화와 재편성론
- 2절 대도시 분산론
- 3절 자원과 풍토의 보존
- 4절 결론: 국토계획의 정치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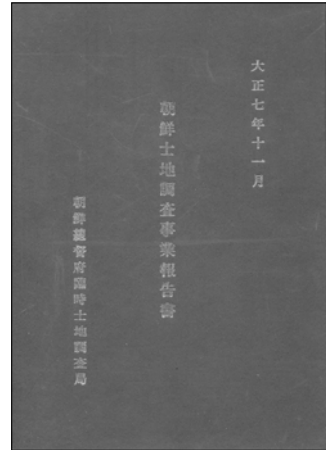
국토계획이란 국토에 대한 설계기법이란 점에서는 도시계획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도시보다 지역을 넓게 본다는 차이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 필자는 국토계획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국토계획을 실시함으로써 도시공업 생산수단의 지리적 독점과 농촌의 자연미 독점, 그리고 도시와 농촌 두 지역에 걸친 금융자본의 독과점에 수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산업의 지리적 편기(偏嚮)와 부(富)의 편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균등의 환희가 전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토계획은 사회 개조의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⑧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년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 850면 / 08.10-19 조53조 1918

일 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하자 1910년~1918년까지 약 9년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이 조사를 위해 조선총독부에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3,000명의 직원을 두었다. 이 조사에는 총 2,000여만 엔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1918년에 출간된 이 보고서는 총 850면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다. 더욱이 앞서 기술한 『朝鮮地誌資料(조선지리지자료)』 438면을 합치면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보고서는 실로 1,288면에 달한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우리보다 15년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 1898년~1904년까지 6년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은 대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실시했다. 더욱이 일제는 대만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지휘하던 目賀田太郎(매가다 다로) 등 전문가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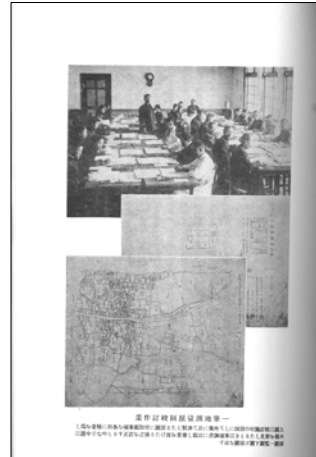
조사 대상은 경작지 및 택지, 조사지역 내의 산림이었다. 조사 내용은 소유권조사와 측량, 지가조사(地價調査)와 최초로 1:50,000의 지형도(지도) 제작이었다.

그러면 일제는 왜 토지조사사업이 필요했던 것일까? 일제는 한말(韓末)의 토지제도 문란 등을 그 필요성으로 들고 있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농지세(農地稅)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합병해 놓고 보니 세원(稅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근대적인 산업도, 기업도 없었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곳이 없었다. 주세(酒

稅)나 담배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총독부 직원의 인건비에도 태부족한 상황이었다. 궁리한 끝에 토지에 대한 과세밖에 방도가 없어 농지와 대지에 대한 이른바 토지세를 징수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야가 대부분 문중 소유였고 논밭은 집안에서 알아서 대대로 분할경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고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방법이 없었다.

토지조사 결과 경작지 비율이 전 국토의 19.4%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1920년부터 농지세가 부과되자 소작료는 두 배로 뛰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5%가 지주였고 95%는 소작인이었다. 소작료 인상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왕조시대부터 만성적인 춘궁기가 있기는 했지만 보릿고개가 심화된 것은 이때부터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생활수단을 잃은 수십만의 청년들은 만주, 일본 등지로 퍼져 헐값의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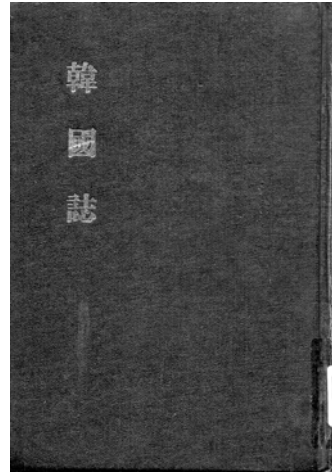




## 9 韓國誌 한국지

1978년 / 商務省 山林局(상무성 산림국) / 636면 / 14,10-08 농 1907

『**韓**國誌』는 러시아 재무부가 그들의 전통적인 동진정책(東進政策)에 따라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다. 일제는 1905년 상무성 삼림국(商務省 山林局)에서 이를 초역(抄譯) 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러시아판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일어판도 희귀한 상태였으므로 1978년 12월 동국대학교에서 일어판을 영인(影印)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1876~1899년까지의 불과 23년 간의 기록으로 농업, 수산, 상업, 광업 및 제조업을 비롯한 운수교통 현황과 건국연혁, 풍토, 민속, 교육, 종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로에 관해서는 45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이 대단히 상세하면서도 정확하다.

도로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도로 노선과 역(驛)에 관한 것들인데 『韓國誌』에서는 도로의 상태, 즉 노폭은 얼마나 되며, 교량은 어떻게, 또한 도로의 관리 상태는 어떤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한말(韓末), 즉 근대화 이전의 도로 상태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도로에 관한 한 지구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나라라고 전제한 다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서로(西路) 한양~의주 간의 이른바 사신로(使臣路)와 국방도로라 할 수 있는 관북로(關北路) 한양~경흥 간과 과거(科擧)길로 알려진 영남로(嶺南路), 즉 한양~동래 간의 도로 하나하나에 대한 답사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한양~의주 간의 서로(西路)는 노폭(路幅)이 3m 정도다. 이는 사신들이 말등에 짐을 싣고 옆에 마부(馬夫)가 나란히 걸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 폭이다. 그런데 조선의 도로는 노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건너고 나면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여행할 때는 반드시 현지 사정에 밝은 안내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 10 朝鮮土木行政法 조선토목행정법

1939년 / 坂本嘉一(사카모토 가이치) / 349면 / 01,30-05 사 1939

이 책은 1939년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토목사무관(土木事務官) 坂本嘉一(사카모토 가이치)의 저작이다. 식민지시대 당시 조선의 건설(토목)법령은 거의 이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朝鮮土地收用令(조선토지수용령, 1911)’, ‘朝鮮河川令(조선하천령, 1926)’, ‘公有水面埋立令(공유수면매립령, 1923)’, ‘朝鮮道路令(조선도로령, 1938)’ 및 ‘朝鮮市街地計劃令(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등이 주종이다.

당시 조선총독부에는 행정관이나 기술자를 막론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매년 졸업시즌이 되면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구인광고가 나붙는데 일본 정부의 인기부처인 재무성, 외무성과 내무성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가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조사부 다음으로 인기 있는 곳이었다 한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2년만 근무하면 1년 간 세계일주 여행을 허락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우수학생들이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조선총독의 법적 지위는 천황 직속이었으므로 장관들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조선총독은 대만총독과는 달리 법률제정권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내지(內地)에 적용하는 것은 ‘법(法)’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조선총독이 만든 법은 그 이름을 ‘령(令)’이라 했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니 ‘조선하천령(朝鮮河川令)’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였다.

坂本(사카모토) 사무관이 기초한 건설법규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동종의 일본의 법보다는 선진적인 요소가 많았다. 이를테면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 법에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케 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하천령’에서는, 일본은 하천의 소유를 무주물(無主物)이라 규정한 데 반해 조선은 국유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령의 소유권에 대한 관습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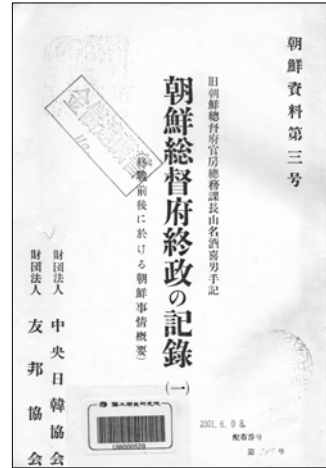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역(夫役)제도는 왕조시대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는 이를 제도화한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부역을 도로사업에 많이 활용했는데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1,400만 명 이상이 강제노역인 부역에 동원되었다.

어쨌든 이 책은 식민지시대 우리나라의 건설관계 법제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다.

## 11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録 조선총독부 종정의 기록

1956년 / 山名酒喜男(야마나미 키오) / 230면 / 14,10-09 야31조 1956

이 기록은 당시 조선총독의 비서관 겸 총무과장이었던 山名酒喜男(야마나미 키오)가 1945년 11월에 귀국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그 해 12월 24일에 탈고했다. 일본에서는 전후 이 문서를 ‘환상의 문서’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야마나미 키오는 일본이 패전하자 총독과 정무총감(政務總監)을 도와 미군정으로서의 사무인계를 비롯한 일본 교민의 본국 귀환업무 등 수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미군과의 사이에 통역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야마나미 키오는 히로시마 현 출신으로 1929년에 동경 제국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다.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는 외무성 북방과장, 회계검사원의 제3국장과 사무차관을 지낸 다음 1955년에 퇴임했다.

이 보고서는 첩판에 굵은 등사판인데 총 230면에 달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5일 해방이 되자 9월 7일에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였다. 이어 9월 9일 오후 4시 총독부(구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하지 중장과上月(가미즈키) 조선군 사령관, 阿部(아베) 조선총독 및 山口(야마구치) 진해 경비부사령관 등이 항복문서에 조인 서명했다. 조인식이 끝나자 오후 4시 20분경에는 조선총독부 정문 국기계양탑에 있던 일장기가 미국의 성조기로 바뀌었고, 이 날짜로 경인지구(京仁地區)의 일본군은 철수했다. 9월 7일 미군진주에 앞서 9월 6일 미국 제24사단의 하리스 준장이 비행기편으로 와서 7일날 정무총감(부

총독)에게 항복 조인식이 있을 때까지 총독에게 결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극도의 혼란기를 맞은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불상사 통계를 보면 일본인들에 대한 것은 극소수인 데 반해 조선인 경찰관과 읍면서기들이 화를 입은 것이 더 많다. 미 군정은 패전국의 총독과 정무총감을 전관예우(前官禮遇)해서 이들 두 사람을 미 군용기로 일본까지 호송하는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

한편 만주(중국의 동북 3성)와 북조선 및 남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항으로 쇄도하기 시작했다. 부산항은 상시 2만 명이 넘는 귀환자가 집결함으로써 숙박, 식량, 의료 등에 큰 혼란이 생겼다. 당시 조선에는 80만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는데 북선에 25만 명, 남선에는 55만 명이 있었다. 여기에 만주 거주 일본인과 관동군(關東軍)이 겹쳐 수송에는 일대 혼란을 빚었다. 10월 24일 현재 일본인 귀환자는 17만 3천 명이었고 조선인 귀국자는 15만 7천 명이었다.

한편 일제가 8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발행 초과액이 36억 엔이었고 9월 28일 하루의 발행고가 86억 5,800만 엔이었다. 1944년 조선총독부 예산이 23억여 엔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해방 직후 그 무시무시했던 인플레이의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총독부는 패전 6개월 전부터 패전을 감지하고 나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미리 퇴직금을 주어 본국으로 귀환시킬 때에 막대한 돈을 찍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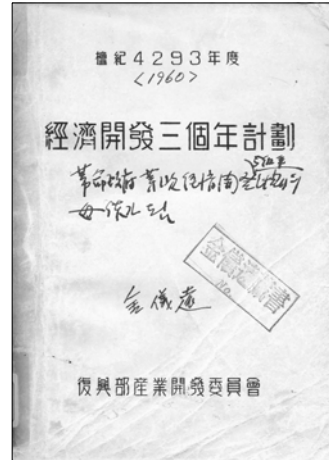
## 12 經濟開發三個年計劃 경제개발3개년계획

1960년 /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 767면 / 10.10-15 부98경 1960

이 계획은 부흥부(復興部)에 설치된 산업개발위원회(産業開發委員會,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에서 1960년에 발표한 계획이다. 부흥부란 6·25전쟁 휴전 후 경제복구를 주관한 부처인데 주업무는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산업개발위원회(EDC) 위원장은 부흥부장관이고 부위원장장은 주원(朱源) 전 건설부장관이 맡고 있었다. 이 계획은 당초 자유당 정부의 5개년계획으로 짜여졌으나 투자재원 준비가 어렵다 하여 3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이 계획은 1958년을 기준연도, 1959년을 거취연도로 정하고 1960년~196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연도인 1960년의 4·19 학생혁명으로 실시가 중단되고 말았다.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이 계획을 버리고 당면 문제인 민생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이른바 국토개발사업(國土開發事業)을 선행함으로써 노임살포를 통한 사회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듬해인 1961년 5·16 혁명으로 집권한 군사 정부는 민주당의 국토개발사업을 계승함과 동시에 과거 자유당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보완·수정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모체로 삼았다.

『經濟開發三個年計劃』은 첩판에 굵은 등사판으로 총 767면의 본문과 별책으로 구성



된 부록이 있었으나 이것은 망실되었다. 『經濟開發三個年計劃』에는 공공부문이 유별나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부위원장인 주원 박사는 일본의 유명한 大原經濟研究所(오하라 경제연구소)에서 도시경제를 전공한 분이신데 자유당 때 국토계획학회를 창설하였고 6·25 당시 대한건설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당시 대한건설협회 이사장은 교통부장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950년대~1960년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겸하기도 했다. 또한 주박사는 이때 『國土政策(국토정책)의 이론과 운용』이란 저서를 내기도 했기 때문에 공공분야에 대한 이해가 유별난 분이었고 후일 건설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주원 부위원장의 보좌역이자 공공부문 담당자는 일본의 제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토대학 토목과를 나온 김여택이었다. 김여택은 5·16 후 농림부에서 농지국장으로 영입하는 것을 거절하고 건설부 동력과장으로 부임함으로써 자기 전공인 댐 건설에 전념했다.



13 朝鮮 市街地計劃關係法規集 조선 시가지계획 관계법규집

1935년 / 공학사(工學舍) / 529면 / 02.30-22 공91조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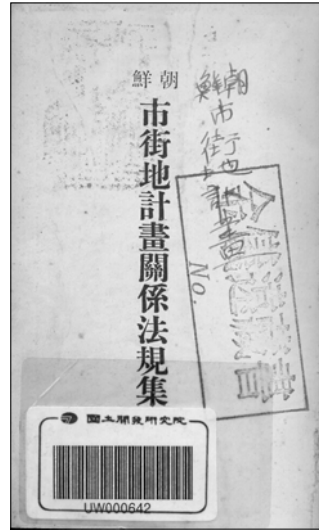
1935

년에 출판한 도시계획관계 법령집이다.

책의 크기는 13cm×8.5cm이고 총 분량은 529면이다. 수록된 법령은 ①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비롯하여, ② 조선토지 개량령, ③ 지세령(地稅令), ④ 토지 수용령, ⑤ 행정집행령, ⑥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령 등 6개의 법과 이들 6개 법의 시행규칙

(지금의 대통령령 또는 각령)을 비롯해 기상참고표, 목욕탕 영업 취체(取締=단속)규칙, 여관업 취체규칙, 음식점영업 취체규칙, 창기(娼妓) 취체규칙, 원동기(原動機) 취체규칙, 인화질물 취체규칙, 총포·화기류 취체규칙, 묘지·화장장 및 화장 취체규칙, 사립 병원 취체규칙, 도살장 규칙, 도로 취체규칙, 경찰범 처벌규칙 등 20개의 규칙이 수록되어 있다.

일제강점시대 최고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는 대만총독부와는 그 격이 달랐다. 첫째, 조선총독은 천황(天皇)의 직속이었다. 내각총리대신 밑에 있는 대신(大臣=장관)보다 격이 위였다. 둘째, 조선총독은 육군대장으로 보하고 대만총독은 해군장성으로 임명했다. 셋째, 조선총독에게는 제령권(制令權), 즉 입법권을 부여했으나 대만총독에게는 입법권을 주지 않았다. 넷째, 조선총독에게는 예산편성권을 주었는데 대만총독은 예산편성권도 없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국장은 일본서 대신을 지낸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대부



분 일본의 현지사(縣知事=우리의 도지사)를 지낸 사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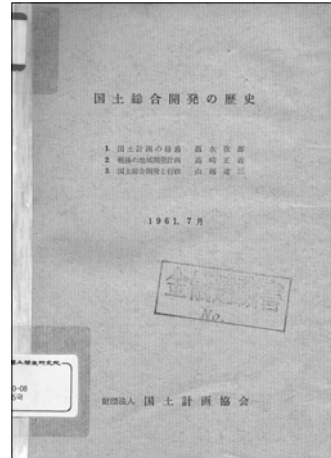
조선총독은 스스로 법률제정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통치에 필요한 많은 법을 제정했는데 그 명칭은 ‘령(令)’으로 표현했다. ‘조선도로령’, ‘조선하천령’,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수용령’ 또는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서 제정하는 법에는 ‘법(法)’자를 붙이고, 조선총독이 만든 법은 이를 ‘령(令)’이라 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신문들은 ‘토지수용령 발동’ 하는 식으로 보도해 왔다.

‘조선시가지계획령(도시계획법)’은 1934년에 제정했는데 이는 북조선의 나진(羅津) 개발의 긴급성 때문에 만든 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법을 처음 적용한 도시는 나진이었고 서울은 그보다 2년 후인 1936년부터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었다. 이밖에 대구, 부산, 평양, 함흥 등 주요 도청소재지는 1937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은 지금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합친 법이었고 일본법에도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는 등 상당히 민주적인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해방 이후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62년 혁명정부에 의한 일제법령 정비 때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었다.

## 14 國土綜合開發の歴史 국토종합개발의 역사

1961년 / 西水孜郎(스가이시로) / 97면 / 02.10-08 국885국 1961

1961년 7월 일본의 국토계획협회가 발행한 책인데 97면이다. 필자는 西水孜郎(스가이시로)다. 이 책을 『희귀자료와 진서 해제』에 넣은 것은 일제 강점하에 비밀리에 추진한 국토계획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은 ① 국토계획의 경과, ② 전후 지역개발계획, ③ 국토종합개발행정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이 독일의 히틀러를 본떠 국토계획을 하기로 한 것은 1940년 8월 제2차 近衛(고노에)내각 성립 이후였다. 같은 해 9월 24일에는 ‘국토계획 설정요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어 ‘황해, 발해 국토계획 요강안’이 채택되었다. 이 계획안은 1943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대륙연락회의에서 제시되었는데 15년 후의 지역별 공업단지 후보지와 생산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때 제시된 공업단지 후보지는 일본 150개소, 조선 23개소와 대만이 20개소, 합계 193개소였다.

이어 그들은 1944년에 ‘중앙계획 소안요강안’이란 비밀 국토계획을 작성했는데 이 계획의 계획구역은 일본, 조선, 중국 및 만주까지를 포함한 광대한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수도 이전 후보지로 꼽은 세 곳 중 하나가 ‘경성(京城=서울) 교외’였다는 것이다.

후에 알아본 결과, 이곳이 한국외국어대학 용인분교가 있는 계곡 일대였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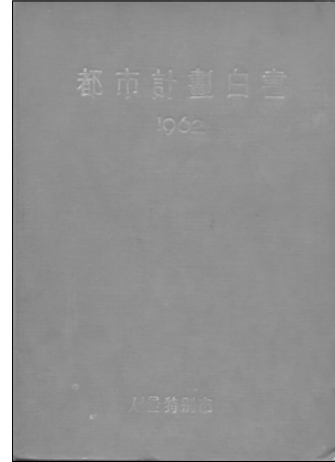
확인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일제는 이미 측량까지 끝마친 상태였다. 1960년대 초 당시 건설부 도로과장이었던 이현경의 말에 의하면 해방 직후 도로과 서류함에 그 측량도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일제가 이곳을 새로운 수도 이전 후보지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국토의 중앙이란 점이였다. 하기야 만주, 조선, 일본을 놓고 보면 국토의 중앙임에는 틀림없다. 두 번째 이유는 지진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지진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가 아팠기에 지진이 없는 곳을 수도 후보지로 골랐겠는가 말이다. 만약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아마 이 계획은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주로 쫓겨났을 것이 뻔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후인 1946년 6월에 ‘부흥 국토계획요강’을 발표한 다음에는 ‘국토 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한다. 1970년 당시의 수상 田中角榮(다나카 가쿠에이)는 「일본 열도개조론」을 출간했다. 어쨌든 경제계획은 참고용이고 국토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존속하고 있다.

## 15 都市計劃白書 도시계획백서

1962년 / 김의원 / 535면 / R 02,10-20 도1962

이 「都市計劃白書」는 정확히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백서」로, 1962년 12월에 발행했다. 분량은 488면과 부록 47면, 합계 535면의 200부 한정판이다. 필자가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연구원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것과 본인의 생각을 합쳐 단독 집필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뜻에서 객관성이 보장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보지는 않는다.



1961년 5·16 혁명을 이룩한 혁명정부는 모든 면에 획기적인 개혁을 요구했었다. 서울특별시장직에 전 육군 공병감 출신인 현역 육군소장 윤태일을 임명했고 건설국장에도 현역 공병대령을 임명했다. 도시계획국을 신설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상임위원에도 예비역 공병대령 오한영을 임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직원을 공채(15명)했는데 이때 건축가 김수근이 신규채용되었는가 하면 필자는 연구위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都市計劃白書」 집필을 끝내고 윤태일 시장의 저녁대접을 받기도 했다. 이 「都市計劃白書」의 중요내용은 서울 도시계획의 연혁과 토지이용계획, 도로, 공원, 토지구획정리, 도시교통, 상하수도, 주택, 시장, 오물처리, 묘지, 화장장, 도시미관, 여가이용과 재해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도시계획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都市計劃白書」가 발행된 것은 이것

이 처음이자 끝이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백서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 『都市計劃白書』를 발행한 당시 서울시 인구는 300만 미만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 대통령도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도시계획을 중지하라고 했던 담화사건이 그 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 대통령이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후일 그 담화의 진의를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을 전면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 재벌이 충무로 도로계획에 저촉된 고충을 건의받고 한 말이란 것을 알게 되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불만은 1936년, 즉 일제 때부터 그어 놓은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에 의한 도시계획 폐지요망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 의회도 10여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의 변경과 폐지를 결의하기도 했다.

## 16 서울 都市計劃의 過去와 將來 서울 도시계획의 과거와 장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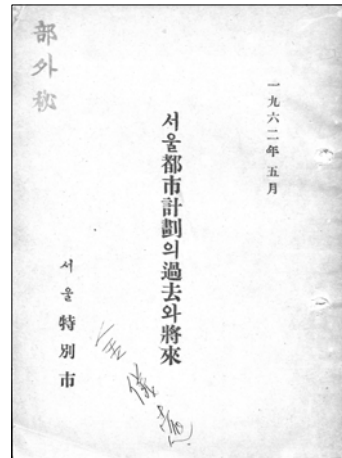
1962년 / 김의원 / 65면 / 02.10-20 서67서 1962

1962년 5월에 발행된 65면의 ‘대외비’ 문서다. 이 문서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근무하던 필자가 쓴 글이다. 이 문서는 『都市計劃白書(도시계획백서)』를 발표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시장의 시정방침을 밝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의 머리에 밝힌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명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시장의 인사말에서는 서울시정의 개혁사항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도시계획 분야라고 밝히고 있다. 종래의 도시계획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심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 그어 놓은 도시계획 선이 아무런 비판도, 반성도 없이 그냥 답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정부청사들을 건립하는가 하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뼈아픈 실정의 회고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의 목적은 과거의 도시계획을 해부하여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都市計劃白書』를 발표함에 앞서 먼저 서울도시계획 시정방침의 개요를 시민 앞에 공개하여 기탄없는 비판을 받고자 하는 데 있다. 1961년 말 서울시



인구는 268만 명이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 수는 21만 3,000호였고 개량이 시급한 주택은 약 6만 호였다. 1961년 현재 이른바 ‘셋방’ 세대수는 약 20만 세대였다. 이 당시 약 100만 시민은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건축행정이 토목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것이 1948년 2월이었다. 이 당시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도시계획을 무시한 제조업(공장) 건축허가 건수가 893건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내에 건축대서사는 67명에 불과했는데 연평균 건축허가 접수건수는 7,400여 건에 달하였고, 건축대서사 자격부여는 1948년과 1955년의 두 번밖에 없었다. 건축대서사의 자격은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임의 선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납세필증과 국채소화필증, 그리고 심지어 상수도요금 납부필증까지 붙여야만 했다. 이 당시 대표적인 가건물은 세종로 네거리의 국제극장(지금의 동화면세점), 감리회관, 박용래 소아과병원, 파고다공원 내의 호텔, 남산의 승의여고와 신신백화점(제일은행본점) 등이었다.



17 中國の科學と文明(土木史) 중국의 과학과 문명(토목사)

1979년 / Joseph Needaham(조셉 니덤) / 545면 / 13,10-23 니23중 1979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셉 니덤(Joseph Needaham) 교수가 저술한 중국의 『土木史(토목사)』다. 18절(크라운판) 크기 545면에 달하는 방대한 책자인데 1979년에 출간되었다. 조셉 니덤 교수는 1942년에 영국의 과학사절단장으로 중국에 가서 1946년 UNESCO의 초대 과학부장이 될 때까지 중국에 머물며 이 명저를 남겼다.



책의 내용은 도로, 성곽, 건축기술, 도시계획, 수리공학, 토목공학 기술의 발달단계, 운하를 포함한 위대한 토목공사, 토목공학 및 치수에 관한 문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기 반 물 반”이란 말이 있다. 나는 여태까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런 책은 처음 보았다. 본문 반 각주(foodnote) 반이었다. 정확히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 본문 대 각주가 6 : 4의 비율쯤 되는 것 같다. 이뿐 아니다. 지도를 포함한 그림이 1,215매에 달하고, 표가 10개, 견인(牽引)이 51면에 달하는가 하면 차례의 항목만도 40개~60개에 달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여태까지 도로 하면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상식이 깨어져 버렸다. 조셉 니덤은 그 부문을 “우주의 창조주가 기원 전후 수세기 동안 지구를 바라보았다면 슬로 모션 영화라도 보는 것처럼 두 곳에 거미줄 같은 도로망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로마 제국



## 18 日本水土考・水土解辯・増補 華夷通商考

일본수토고·수토해변·증보 화이통상고

1944년 / 西川如見(니시가와 조겐) / 198면 / 02,10-18 서83일 1944



**長** 崎(나가사키) 출신의 상인인 西川如見(니시가와 조겐, 1648~1724)이 쓴 책이다. 원래 니시가와 가 천문학에 관해 저술한 책은 20여 권이나 된다. 1716년에는 당시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의 將軍(쇼군) 吉宗(요시무네)에게 천문에 관한 강의를 할 수준이었다.

『日本水土考(일본수토고)』를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의 「택리지(擇里誌)」라 할 수 있다. 이중환(李重煥)과 저술연도도 비슷한데, 13면의 짧은 글이기는 하나 일본 최초의 과학적 인문지리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종래의 유교적인 중국 숭배관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그는 일본은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인 탓에 외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국토 위치의 신비성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토를 찬미하되 “이 나라는 만국의 동쪽에 있으므로 아침 햇살을 제일 먼저 받는 땅이다, 이는 양기 발생의 시발이다… 우리 국호를 日本(일본)이라 하는 것도… 子丑(자축)은 水土(수토)다. 寅卯(인묘)는 다같이 木(목)이다. 木은 水土에서 생한다…”는 식으로 국토 조건을 십이지(十二支)로 풀이하기도 한다.

『水土解辯(수토해변)』은 문고판 30면 분량인데 내용은 ① 국토의 기운성쇠(氣運盛衰)와 ② 장법(葬法)에 대한 것을 문답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①항은 정감록 같은 이야기이고 ②항은 일본의 장의법이 유교의 영향으로 유교식 절차가 복잡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불교 전래로 화장(火葬)이 보급되기는 했으나 말년에 가면 이것도 땅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는 등 말하자면 묘지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이다.

『華夷通商考(화이통상고)』는 1695년에 西川如見(니시가와)가 저술한 것인데 130면이다. 내용은 중국 15개 성(省)을 비롯한 세계 42개국의 의상과 위치, 풍토, 산물을 통상적 견지에서 서술한 것인데 이것은 일본 최초의 지리서라 할 수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 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고려, 본명은 고구려임. 팔도(八道)가 있다. 옛날에는 마한(馬韓), 진한, 변한 해서 삼한(三韓)이라 했는데 그후 신라(新羅), 백제, 고구려로 정립한 것도 이 나라다. 유교를 숭배하나 의복은 중국과 다르다. 대단히 추운 나라인데 기후는 일본의 관동(關東) 지방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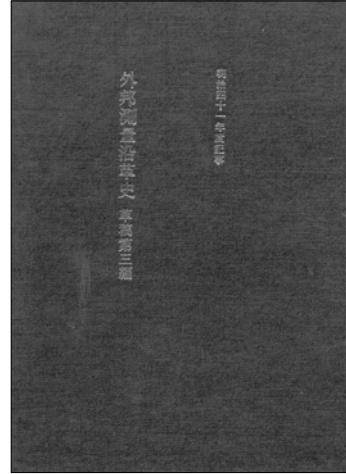
## 19 外邦測量沿革史 외방측량연혁사 (전3권)

1939년(제1, 2권), 1979년(제3권) / 북지나방면 사령부 참모본부(北支那方面 司令部 參謀本部) / 1권 477면, 2권 462면, 3권 460면 / 08.10-19 참35외 1979

**일** 본 군부가 남의 나라를 측량한 기록이다. 총 3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1895년~1906년까지의 기록으로 477면이다. 제2권은 1907년의 기록인데 462면이고, 3권은 1979년 일본 동경에서 복사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위 세 권은 공히 북지나방면 사령부 참모본부(北支那方面 司令部 參謀本部)에서 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2권은 1939년에 출간한 것인데 필자는 1968년에 거금 2만 엔(약 23만 원)을 주고 동경에서 구입했다.

제1권에서는 1895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안미성(安徽省), 절강성(浙江省) 및 복건성(福建省)에 대한 측량을 했다. 1903년에는 우리나라의 평안도와 황해도, 압록강 유역 일대를 측량했다. 일본이 남의 나라를 측량하기 시작한 것은 1889년 이후의 일이다. 1907년의 기록에 의하면 회령(會寧), 무산(茂山) 및 은성(穩城) 등지에 대한 측량반장의 보고서가 있다.

이 무렵 참모총장은 훈령 10호로서 측량반장에게 1907년도 만주에 대한 측량구역을 지시한다. 동쪽으로는 두만강 연안 및 한국쪽 외의 기 측량지역에 연결하여 회령(會寧), 액목색(額木索), 길림(吉林) 가도 및 은성(穩城), 영고탑(寧古塔) 가도를 포함한 일대의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회덕(懷德) 방면의 기 측량지역에 연접한 북쪽과 서쪽에 걸친 일대의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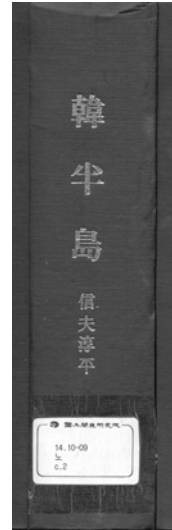
여기서 가설을 하나 설정해 본다. 1861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작성한 대동여 지도에는 독도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있어야 할 간도 부분이 없는데 이는 일제가 실시한 두만강 일대의 측량과 만주(간도지역)의 측량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국경지대 이남은 보병대위가 지휘하는 제1반이 원산 일대를, 제2반이 서울과 그 일대를, 제3반은 평양과 그 부근을, 제4반은 대구와 그 부근의 측량을 담당했다.

이들이 종사자들에게 내린 작업지침을 보면 ① 만약 측량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적 필요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라, ② 간부의 이름이나 특히 군과의 관계는 일체 발설치 말 것이며, ③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물(器物)은 휴대하지 말 것, ④ 한국인과 승강이를 벌이지 말 것이며, 깡패를 만났을 때는 도주가 상책이다, ⑤ 필요할 때는 한복을 착용하라는 다섯 가지다. 또한 1895년~1937년까지의 측량과정에서 숨진 127명의 명단도 있다.

## 20 韓半島 한반도

1901년 / 信夫淳平(노부오 준페이) / 694면 / 14.10-09 노 1901

**일** 본인 信夫淳平(노부오 준페이)가 1901년 9월에 출판한 694면의 방대한 책이다. 信夫(노부오)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말(韓末) 우리나라에서 일본 총영사(總領事)로 3년 간 근무했다. 한말에 우리나라에 관한 저서는 러시아 재무부가 발간한 『韓國誌(한국지)』를 비롯하여 1880년에는 『조선의 역사와 풍습(英, 존 로스)』와 『금봉(禁封)의 방토(獨, 엘네스트 옷베루트)』가 있다. 1882년에는 『은둔의 나라 조선(美, 구리피스)』, 1884년에는 『재한기(在韓記) (英, 카루스)』가 있으며, 1894년에는 『극동문제(英, 칼손)』 등이 있다.



이들 저서는 어느 것이나 일독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韓半島』는 서양인들의 저술보다 구체적이다. 한말의 한국 사정을 소개한 기록 중에는 뛰어난 저서이므로 여기저기 많이 인용되고 있다. 필자가 외교관 출신이면서 경제, 특히 재정에 밝은 사람이라 국제관계에 있어 무역과 정부예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연고에서인지 이 책은 당시의 무역항만별 제반 통계에 70여 면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발문(跋文)을 쓴 사람이 6명이나 된다.

내용을 보면 제1장 부산과 인천 33면, 제2장 경성 108면, 제3장 경북궁과 경운궁 25면, 제4장 개성부 24면, 제5장 평양과 진남포 12면, 제6장 성환(成歡)의 고전장 13면, 제7장 행정조직 80면, 제8장 재정 79면, 제9장 국제관계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프

랑스,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를 196면에 걸쳐 상술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각국의 이익선이라 해서 철도 포설권을 비롯한 광산 채굴권 등을 43면에 걸쳐 취급하였고, 제11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관한 당시의 여러 가지 통계에 71면을 할애하고 있다.

제2장 서울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당시의 서울 시가지가 조선조 500년의 수도답게 도시계획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찬미하는데, 당시 중국의 북경보다 더 근사하게 짜여 있었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서울에는 20만 인구 중 20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명의 양반이 살고 있었다 한다.

필자는 서울 - 평양 간의 도로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데 전기한 러시아 재무부가 발간한 『韓國誌』의 기술과 비슷하다.





## 21 朝鮮の風水 조선의 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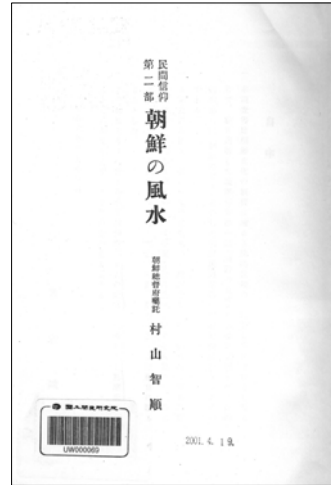
1931년 / 村山智順(무라야마 도모요시) / 857면 / 13.10-22 조 1931

이 책은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31집으로 1931년 2월에 출간된 857면의 방대한 책이다. 저자는 조선총독부 촉탁인 村山智順(무라야마 도모요시, 1891~1968)로, 직함이 촉탁이나 동경제일고등학교와 동경제국대학을 나온 석학이다. 村山(무라야마)는 민간신앙 1부로서 「조선의 귀신」을 출간한 적이 있고 이어 제3부로 「조선의 무복(巫卜)」을 출간할 계획이었다.

저자는 이밖에도 「조선의 복장」, 「조선의 유사종교」, 「조선의 시장 연구」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1933년에 손진태(孫晉泰) 선생은 이 책을 대단한 역작이라고 평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1941년에 귀국했다.

「식민지 통치론」으로 유명한 전 동경대학 총장인 야나이바라 다다오(矢内原忠雄)는 이 책에 대해, “이 방면에 대한 고 기록을 섭렵해서 작성한 명작”이라 평하고 풍수지리를 하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야나이바라는 30대 초반에 이 책을 읽고 풍수지리를 전공해 볼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무라야마는 서문에서 이 책을 저술할 때 당시 이장직 참봉이며 지관(地官)인 북청인(北靑人) 전기응(全基應)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1편 조선의 풍수, 2편 묘지 풍수, 3편 주거 풍수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



풍수는 다시 국도(國都) 풍수, 서울의 풍수, 개성의 풍수, 도읍 풍수 및 주택 풍수로 세분되어 있다. 주택 풍수에는 전국의 길지(吉地)와 이사에 대한 신앙이 첨기되어 있다.

이 책은 페이지마다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다. 가령 우리나라에 고루(高樓), 즉 높은 건물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고려 충렬왕(1275~1308) 때 왕이 중국과 같이 높은 건물을 지으라 하자 관후서(觀候署)가 진언하기를 “도선밀기(道洗密記)와 태조의 훈요 10조에 따르면 다산(多山)은 양(陽)인데 여기에 양인 고루(高樓)를 지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 해서 예로부터 금지해 왔다”고 하였다. 왕조시대 우리나라에 고층건물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풍수지리설 때문이었다.

경북 선산(善山)에는 예로부터 “조선 인재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 반은 일선(一善)에 있다”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때 이곳을 지나던 명나라 장수가 조선에 인재가 너무 많이 나면 아니된다 하여 병졸로 하여금 선산읍 뒤 산맥을 자름과 동시에 쇠뿔을 밝아 왕기를 제압했는데 그후 이렇다 할 인물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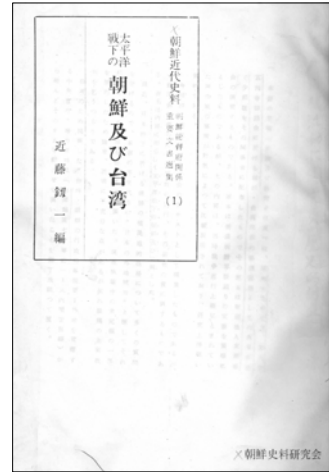
## 22 太平洋戦下の朝鮮及び台湾 태평양전쟁하의 조선 및 대만

1944년 / 近藤鉦一(곤도쇼이치) / 97면 / 01,60-12 곤 1984

이 자료는 1944년 7월 제85회 제국의회 심의자료로 급히 내무성(內務省)에서 극소수로 작성한 자료다. 공판인쇄로 된 97면짜리 자료로, 원본은 우방협회(友邦協會)가 보관하고 있다. 이 복사판은 1961년 우방협회에서 찍어낸 것이다. 내용은 국토면적에서부터 인구, 법제 등 28개 항목에 걸쳐 있는데 그 대부분이 극비사항들이라 흥미를 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42년 현재 조선(남북한)의 인구는 2,636만 1,40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 75만 2,823명, 조선인은 2,552만 5,409명, 중국인 등 기타인구는 8만 3,169명이었다. 한편 같은 해 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약 180만 명이었고, 만주(지금의 중국 동북 3성)와 북지(북부중국) 거주자도 180만 명 수준이었다. 한편 교육시설 현황은 표와 같다.

일제하의 중등학교는 167개교이며 학생 수는 8만 5,400명이었으니 희소가치를 말하면 지금의 대학 졸업생보다 높다. 1944년 현재 조선총독부 예산은 23억 5,800만 엔, 국민 1인당 소득(GNP)은 211엔으로 일본인의 558엔, 대만인의 182엔의 중간치를 점하고 있었다.



학교시설일람 (1944. 4월 말)

| 교육시설  | 학교 수(개)  | 학생 수(명)         |
|-------|----------|-----------------|
| 초등학교  | 4,271    | 2,089,000       |
| 중등학교  | 75 \     | 41,000 \        |
| 고등여학교 | 76 } 167 | 32,500 } 85,400 |
| 사범학교  | 16 ' )   | 11,900 ' )      |
| 전문학교  | 20       | 6,000           |
| 대학예과  | 1        | 400             |
| 대학    | 1        | 670             |
| 계     | 4,460    | 2,181,4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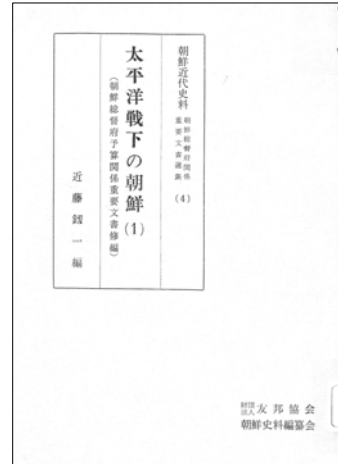
한편 한일합병 이후 1943년 말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70억 엔이다. 이것을 1945년 8월까지 추계한다면 약 75억 엔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대상은 철도 투자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다. 21억 엔을 투자하여 7,800km의 철도를 건설했고, 다음으로 도로, 항만건설과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사업, 대대적인 토지개량사업으로 경지면적은 두 배로 확대되었다. 이어 비료공업과 학교건설비 등이 주된 투자대상이었다.

1944년도 미곡 생산은 1,870만 섬이었다. 여기에 보리 및 기타 잡곡 1,600만 섬으로 합계가 3,470만 섬이었다. 1942년과 1943년의 한발에 따른 감산이 약 200만 섬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하여 1944년에는 약 400만 섬의 미곡을 일본으로 이송했다. 일제하 36년 간 평균치로는 연간 600~700만 섬의 미곡이 매년 일본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 23 太平洋戦下の朝鮮 태평양전하의 조선

1962년 / 近藤釗一(곤도쇼이치) / 전5권, 각 권 200면 / 01.60-12 권

이 책은 1962년 12월에 일본에 있는 우방협회(友邦協會, 구 조선총독부 관리출신 모임)에서 200부 한정판으로 출판한 것인데 전5권(권당 약 20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가 일본국회 설명자료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많다.



제1권은 조선총독부 예산관계 중요문서가 많다. 내용을 보면 1934년부터 종전 때까지의 문서가 많은데 당시 조선총독부 재정국장이었던 水田(미스다)가 제국의회 설명자료로 편찬한 것이므로 귀중한 것이 많다. 일본은 1938년부터 조선인에게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를 실시한다.

그동안 지원자 합계는 80만 2,047명이었고, 이 중 입영한 사람은 1만 7,663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5·16 혁명정부의 내각 수반이었던 송요찬 장군도 지원병 출신이란 말이 있다. 당시 훈련소는 지금의 육사 자리다. 그후 1943년 8월부터는 징병제로 바뀌었고 지원병 제도는 폐지되었다.

한편 1943년 국민총동원법에 의해 징용으로 차출된 인원은 134만 명이었는데 이들 중 남방, 북방, 사할린 등 전선으로 송출된 노무자 수는 1943년 8월 말 현재 51만 5,000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종전 때 전사 또는 옥쇄(玉碎)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짐작된다.

육군 특별지원병 수

| 연도   | 지원자 수(명) | 입소자 수(명) |
|------|----------|----------|
| 1938 | 2,946    | 406      |
| 1939 | 12,348   | 613      |
| 1940 | 84,443   | 3,060    |
| 1941 | 144,743  | 3,208    |
| 1942 | 254,273  | 4,077    |
| 1943 | 303,294  | 6,300    |
| 계    | 802,047  | 17,663   |

제2권은 1942년 제81회 제국의회(帝國議會)용으로 작성된 것인데 조선총독부 예산 중 ‘공채(公債)’ 관계 중요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제3권은 조선총독부 ‘세제(稅制)’ 관계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재정 중 개국 504년에 해당하는 1895년~1910년까지 15년 간의 예산총액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895년의 세입이 446만 엔이고, 1910년의 세입은 3,276만 엔이다.

제4권에는 우리나라의 식량관계 중요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평년 작은 3,950만 석으로 쌀 2,330만 석, 잡곡 1,620만 석(보리 865만 석, 기타 754만 석)이었는데 매년 만주(동북 3성)로부터 200~300만 석의 잡곡을 수입하였고, 매년 600~700만 석의 조선 쌀을 일본으로 이출(移出)했다.

제5권에는 패전이 임박하자 만주로부터 콩을 비롯한 식량과 지하자원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이른바 전가물자(轉嫁物資) 수송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1943년의 경우 659만 톤(수송능력 500만 톤)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함부로 접하기 힘든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

## 24 朝鮮の山水 조선의 산수

1947년 / 최남선 / 116면 / 08.10-01 최191조 1947

이 책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선생의 강연집이다. 1947년 10월에 출판한 116면의 책자인데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白頭山 勤贊記(백두산근찬기)」와 「朝鮮遊覽歌(조선유람가)」 및 「朝鮮常識問答(조선상식문답)」과 더불어 육당 선생의 국토에 찬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은 서문에서 “말솜씨가 없어 강연은 되도록 피하여 왔는데 라디오란 것이 생긴 이래 이래저래 끌려 다니면서 이왕이면 조선 정신과 우리 문화의 계몽을 제목으로 붙여 십 수 년간 꽤 많은 원고가 되었는데 「조선의 산수」가 그 일부다. 이것도 검열로 삭제와 변개(變改)가 많아서 원형에서 멀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6·25 후 우이동에 있는 육당 선생의 서재 하소원(下素園)을 가본 적이 있다. 선생이 3·1 독립선언문의 기초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기구한 운명으로 해방 후 친일파로 몰려 고초를 겪기도 했다.

선생이 친일파로 몰렸던 주된 이유가 부민관에 대학생들을 모아 놓고 학도병을 지원 하라는 강연을 했다는 것이다.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 강연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생은 이광수(李光洙)와는 달리 함축성 있는 말을 했다. “이 사람들아. 군대 간다고 다 죽는 거냐?”고. 훗날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준엽(金俊燁) 선생은 회고록에서 육당 선생

의 말을 상기하여 만주에 주둔 중 탈주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갔다 한다.

또한 선생은 일제가 만주건국대학의 교수로 임명하고 일조(日朝) 동조론(同祖論)을 밝히려는 요청을 받고 같은 조상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밝히느냐면서 교수직을 반납한 일도 있다 한다.

이 책은 조선의 명산과 조선의 하천, 조선의 바다와 만주의 풍경이 그 내용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남북의 경계가 추가령지구대(秋哥嶺地溝帶), 즉 경원선이 깔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남해안(南海岸)은 동래의 수두말(蠅頭末)과 전남의 해남각(海南角) 사이를 말한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선생은 고대 삼국이 다툼 것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단양의 도담삼봉(道潭三峰)은 후일 국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육당은 무궁무진한 천지조화 중에서 전기를 조금 끌어다 쓰는 것(댐)이 무슨 자연의 정복이냐, 숨이 턱에 닿아 어느 봉우리 정상에 발 좀 붙인 것이 무슨 정복이냐고 꼬집고, 신라 화랑들은 산에 오른다가 아니고 산에 든다 했고, 입산 때는 대소변을 받아 나올 그릇을 지참했다고 했다.

어쨌든 이 책은 국토를 다루는 사람의 필독서다.



## 25 今は昔の今なりや 지금은 옛날의 지금이다

1984년 / 加藤秀俊(가토오 히데토시) / 394면 / 12,10-25 가26금 1984

이 책은 명치유신(1868) 50년이 되는 1920년을 기점으로 100년 후인 2020년을 예측한 일종의 장기 전망이다. 1984년에 발행한 책으로 394면짜리 책자이며, 원제(原題)는 「일본 및 일본인」이란 잡지 1920년 4월 특집호에 게재된 것이다. 당대 지식인 320여 명으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350여 주제에 대해 예측한 내용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종교사에도 있고, 사상사에도 있다. 1920년대의 일본은 이른바 다이쇼데모크라시(大正民主主義) 전성시대, 말하자면 백가쟁명(百家争鸣)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군국주의화하기 직전의 단계라서 비교적 개방된 시대이기는 했지만 설문 자체를 분석해 보면 황실 존중의 국수주의적 냄새가 난다. 이 책을 보면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에 의한 1920년대 일본의 지적 수준과 풍토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의 상상력이 어느 수준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양케트 자체를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든, 어떠한 형태이든 미래 이미지를 구성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상상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적으로는 극소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100년 후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다.



이 예측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정확하였고, 많은 부분은 50년 후인 1970년대~1980년대에 실현되었다. 예를 들면 견인식 이동주택(牽引式 移動住宅), 즉 트레일러 하우스 같은 것 말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것은 예측보다 빨리 이루어지기도 했다. 재미있게도 한자(漢字)가 전폐되고 영어가 국어가 된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13명에 이를 것이라 했는데 문학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13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600인승 항공기가 출현한다고 예측했는데 지금의 보잉 747은 거의 여기에 가까운 상태에까지 와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일본의 수도가 관서(關西=大阪)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예측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유럽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아 왔는데 일본은 언젠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몰매를 맞고야 정신 차리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어쨌든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 26 支那の國土計劃 중국의 국토계획

1942년 / 孫文(손문) / 292면 / 02.10-08 손37지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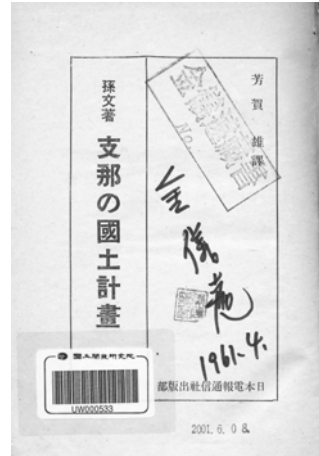
1921년에 孫文(손문)이 작성한 중국의 국토계획으로, 1942년 5월에 일본이 292면의 번역판(역자 芳賀雄)으로 낸 것이다. 1961년 4월에 인사동 통문관(通文館)에서 구입했다.

중화민국 51년(1962)에 중국문화연구총서로서 張基昫(장기윤)이 지은 228면의 『建國方略研究(건국방략연구)』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국토계획자료 23호로 발간된 『建國方略(共榮大計)』은 필자가 국토계획과장 때(1967) 직원 교육용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1968. 12. 12).

모택동(毛澤東) 이전의 이른바 중국의 국부(國父)로 불리던 손문은 이 계획의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나는 중국개발계획에 착수했다. 광대한 국토와 4억에 달하는 인구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개발하는 것만이 중국인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그래서 나는 이 계획을 건국방략(建國方略), 또는 공영대계(共榮大計)라 불렀다.”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요동 반도, 즉 지금의 여대(旅大, 여순-대련)에 세계적인 규모의 부동항을 건설하여 북방대항(北方大港)이라 한다. 둘째로 지금의 상해 남쪽 항주만(杭州灣)에도 세계적인 항만을 건설하여 동방대항(東方大港)이라 부른다. 셋째로 지금의 광둥(廣東)항을 상하이와 북방대항 수준의 항만으로 건설한다. 이리하여 이들 대항(大港)을 기점으로 오지(奧地)로 대규모 철도를 건설한다. 또한 중국은 습지가 많은데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葦)를 제지(製紙) 원료로 해서 대대적인 제지공업을 일으키는 한편 고기 대용품으로 콩에 의한 질소식량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은 대규모 항만건설을 비롯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10만 마일에 달하는 철도건설 계획, 그리고 황하(黃河)와 양자강(楊子江=長江)을 연결하는 대규모의 운하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100만 마일에 달하는 포장도로의 건설도 계획에 들어 있다.

지금 중국은 공산체제하의 ‘삼선계획(三線計劃)’이란 국토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잘 분석해 보면 손문의 ‘공영대계’와 같은 뿌리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지만 한 민족이 자기 국토를 보는 눈은 이념과 체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7 朝鮮遊覽歌 조선유람가

1947년 / 최남선 / 57면 / 13.10-13 최191조 1947

**조** 선유람가는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선생이 1928년 5월 23일에 타고한 시로 국토예찬을 노래한 것이다. 57면의 문고판 크기의 작은 책자로 1947년 8월에 출간되었다.

선생은 국토를 찬미하는 80소절의 시와 조선유람가 별곡(朝鮮遊覽歌別曲) 20소절 등 도합 100소절에 달하는 국토예찬을 썼다. 이 시에 김영환(金永煥)과 백우용(白禹鏞)이 곡을 붙여 유람가(遊覽歌)라 했다.

80소절의 내용을 보면 경기-9소절, 충청-7소절, 전라-10소절, 경상-19소절, 강원-5소절, 황해-5소절, 평안-8소절로, 경상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희귀자료의 범주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사의 내용이 각 지방의 역사지리적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국토를 노래한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런 뜻에서 국토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당 선생은 책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선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 산하(山河)를 노래할 것이며, 산하에 들어 있는 풍물을 노래할 것이며, 산하와 풍물이 經(경)되고 緯(위)되어 자아낸 문화의 비단을 노래할 것입니다.”



다. 노래하고, 노래하여 한 알의 모래에까지 우리의 순하고 정성스러운 예찬의 음율이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유람가 1절을 보면 “大地(대지)의 거룩한 힘 기둥이 되어 하늘을 버티고 선 백두의 성산 맹호의 수파람이 울리는 거기 성인이 나셨구나, 영웅 길렀네”, 2절에서는 “한 팔을 남에 던져 금수삼천리 무궁화 향내 덮힌 대조선반도 산 아니 높으시냐, 물이 곱구나 백화가 엷히려진 문화의 동산”이라 노래하고 있다.

1927년 연희전문학교의 이춘택(李春澤) 교수가 동아일보에 “서울은 이미 경성(京城)이 아니고 게이쵸(京城)다”라는 칼럼을 썼다. 이것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서울의 토지소유통계에 따르면 한일합병 10년 만에 서울 땅의 80% 정도가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다는 것이었는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것을 문제삼아 “동포여 동포여, 땅 팔지 말자 땅 팔지 말자”고 계몽하는 한편 육당 선생을 백두산에 보내어 『백두산근찬기(白頭山勤參記)』를 쓰게 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진작시키기도 했다.

## 28 營造法式 영조법식

1932년 / 이명중(李明仲) / 94면 / 04.20-01 이13영 1932

『**營** 造法式(영조법식)』은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북송 말기에 이명중(李明仲)이 편찬한 중국 고대 건축기법과 원리를 집대성한 중국 건축의 바이블인 동시에 고려와 조선조 건축의 핸드북(Hand Book) 역할을 했다. 필자는 국토연구원장 재임 당시 국

토개발과 관련된 고전 번역 계획을 세워 『周禮考工記(주례고공기)』와 『天工開物(천공개물)』을 번역했고 그에 이어 세 번째로 번역한 대상이 이 『營造法式』이었다.

『營造法式』이란 책을 구하기 위해 국내 도서관에 조회해 보았으나 구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마침 대만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는 경희대학의 조동규(趙東奎) 교수에게 연락했더니 복사본을 보내 왔다. 번역을 하기 위해 우선 명동에 있는 화교학교 국문학박사(중국어)에게 보였더니 서문을 딱 보고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했다. 지금 그들이 쓰는 백화문(百華文)이 아니고 고문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래서 궁리 끝에 한학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정신문화연구원 및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을 오진모(吳鎭模) 전산·자료실장이 직접 들고 다녔다. 그러나 다들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이해철(李海哲) 선생이 “이것을 누가 번역하라 하느냐?” 하고 물었다. “우리 원장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하자, “고문이라 번역이 어려운데,



정 그렇다면 내가 대만에 가서 고문을 해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서 공부해 가면서 해볼 테니 시간과 자료구입비를 달라”고 제의했다. 규정을 초월한 원고료와 자료구입비로 이해철 선생은 대만에 가서 수십권의 자료를 구입해 왔고 2년의 고심 끝에 『營造法式』 36권 중 4권까지의 번역을 끝내 1984년에 『營造法式 一』을 출간했다. 이어 1989년에는 10권까지의 번역을 마쳐 『營造法式 二』를 찍어내었다. 그후는 현재까지 번역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1925년(중화민국 16년)의 기록을 보면 진(秦)나라가 모든 책들을 불태운 후로는 만리장성이나 아방궁, 서경과 동도의 천문만호(千門萬戶)의 도시건설, 그리고 낙양의 가람(사찰)과 거대한 운하 등이 한갓 시인의 붓끝에서만 크고 화려함을 놀랍게 전해왔을 뿐 그 건설의 기법이나 형상을 전해 온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다행히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명중(이계, 李誠)의 기록이 있어 큰 다행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발간되자 감사의 뜻을 전해 온 사람은 문화재관리위원이신 신영훈(申榮勳) 선생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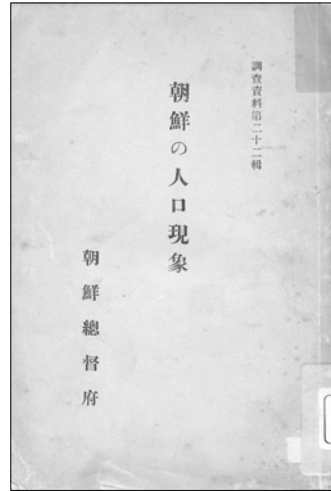


29 朝鮮の人口現象 조선의 인구현상

1927년 / 善生永助(젠쇼 에이스케) / 476면 / 09.10-09 조53조 1927

人口調査結果報告 인구조사결과보고

1944년 / 조선총독부 / 면수복잡 / 09.10-09 조53인 1944



「朝鮮の人口現象(조선의 인구현상)」은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22집으로 1927년 10월에 발간했다. 善生永助(젠쇼 에이스케) 저술로 476면이다.

이 책은 인구의 통계적 관찰과 동시에 역사적, 지리적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지대하다 할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인구문제는 식량문제와 연계된다는 데 의미가 컸다. 이 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① 호구(세대)의 변천(도별, 시대별…)
- ② 인구의 구성(연령별, 직업별, 일본인, 조선인…)
- ③ 인구의 분포(지방별, 도시, 농촌…)
- ④ 혼인관계(결혼, 이혼수, 결혼연령…)
- ⑤ 출생(출생수, 출생율, 남녀별, 월별…)
- ⑥ 사망(지방별, 전염병, 자살…)
- ⑦ 인구의 증감(자연증가, 일본이주, 장래인구…)

조선조 500년 간의 인구통계를 보면 태조 4년(1395)부터 광무 8년(1904)까지 510년 간의 통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9년 간의 통계밖에 없다. 왕조시대의 통계는 병역과 노역관계로 시대별로 들쭉날쭉하다. 어떤 때는 여자를 뺀 통계가 있는가 하면 16세 이하를 뺀 때도 있다. 일본은 2,600년 간의 연도별 인구통계를 작성한 지 오래다. 인구학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인구학자들이 중지를 모아 한번 시도해 볼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년 후(1977)의 인구에 측을 3,800만 명으로 보고 있었다.

부도에는 20매의 지도가 있는데, 다음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① 일본인 집단거주지 분포도
- ② 중국인 집단거주지 분포도
- ③ 인구 1,000명당 출생률(시, 군, 도별)
- ④ 인구 1,000명당 사망률(시, 군, 도별)
- ⑤ 부(府=市), 면별 인구 밀도도
- ⑥ 고도(高度) 및 온도도
- ⑦ 1 : 1,500,000 조선전도

한편 1944년에 발간한 『人口調査結果報告』(복사본)는 해방 1년 전인 1944년 5월 1일 자정에 실시한 인구조사통계인데 이에 따르면 당시 조선(남북한)의 세대수는 492만이었 고 인구는 2,591만 7,881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41년 진주만 기습공격 이후 즉 1942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체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인구통계는 ‘극비’로 취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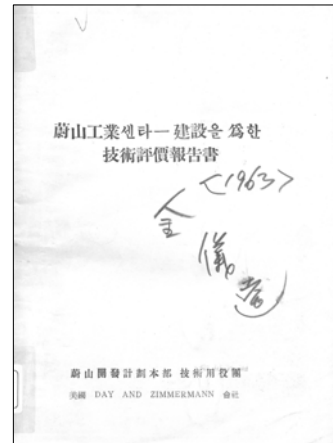
따라서 이 자료도 극비문서로 분류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구 19만 7천 명, 부산 6만 9천 명, 평양 7만 명, 인천 4만 4천 명, 마산 1만 1천 명, 대구 4만 2천 명, 광주 1만 6천 명, 전주 1만 3천 명이었으며 대전은 1만 5천 명이었다.

## 30 蔚山工業센터—建設을 爲한 技術評價報告書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위한 기술평가보고서

1963년 / 울산개발계획본부 기술용역단 / 548면 / 10.10-19 울51을 1963

이 보고서는 1963년 2월에 울산개발계획본부(蔚山開發計劃本部)와 계약한 미국의 DAY AND ZIMMERMANN 사가 작성한 보고서인데 총 548면이다. 울산개발의 기공식이 1962년 2월 3일이었으니 거의 1년 후의 일이다.



울산개발은 당초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두 달 후인 1962년 2월 3일에 이른바 보완계획이라 하여 추가되었는데 그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주도사업이 되었다. 울산개발이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추가된 경위는 이렇다. 5·16 직후 혁명정부는 당시의 기업가 전원을 부정축재자란 명목으로 구금했다. 당시 오늘의 경제인협회 회장은 삼성의 이병철(李秉喆)이었다.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하고 구금 중인데 경제개발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병철은 당시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朴正熙)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경제개발을 한다면서 정작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할 우리들의 손발을 묶어놓으면 경제개발은 누가 하겠소” 하면서 5·16 이전에 삼성을 비롯한 경제인이 모여 울산에 삼성은 비료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그밖의 두세 개 회사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자 혁명정부는 울산개발을 추가하게 된다. 이때 이미 울산에는 일제 말기에 일본이 원산에

있던 정유공장을 옮겨놓은 터였다.

울산개발이 추가되자 정부는 1962년 5월에 울산개발계획본부 설치법안을 최고회의(국회기능 대신)에서 통과시켰고, 이어 6월에는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건설부 산하에 울산특별건설국을 설치하고 국장에 현역 공병준장인 황인권(黃寅權)을 임명했다.

울산공업지구의 개발은 제철공장과 비료공장 및 정유공장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정하고 이들 공장의 지원시설로서 화력발전소와 항만건설 및 공업용수 개발과 이것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주된 내용이었다. 항만은 5만 톤 선박의 접안시설이 주된 목표였고, 공업용수는 1일 12만 톤 생산이 목표였다. 도시계획은 당시 일본이 건설한 四日市(요카이치) 중화학공업단지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울산도시계획은 일본의 松井達天(마츠이 다쓰오) 와세다대학 교수도 관여했으나 그 보고서는 실전(失傳)되었다. 이 보고서는 공업용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우리에게 공업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평가방법을 가르쳐 준 좋은 가이드북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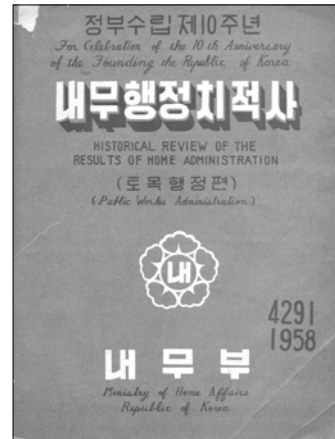
## 31 내무행정치적사(토목행정편)

1958년 / 내무부 / 365면 / 01.10-07 내37내 1958

이 책은 1958년 12월에 정부수립 10주년 기념으로 편찬한 것이다. 당시 내무부에서 발행한 것인데 오늘날 건설부의 전신인 토목국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5·16 이전(1961년) 자유당정부 시절의 토목행정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365면의 보고서로, 1948년 건국 이후의 일관된 연도별 통계는 없지만 해방 이후 1948년의 건국까지 미 군정(美軍政) 3년 간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 큰 장점이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더라면 해방에서 1948년까지의 우리나라 토목행정에 관한 것은 공백 상태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당시 토목행정 조직은 내무부 토목국에 서무과, 자재과, 도시과, 도로과, 이수과와 중기과를 두는 한편 국립토목시험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지방조직으로서는 국비공사를 담당할 지방 건설국을 서울(서울·경기, 강원, 충북, 충남 담당)과 이리(裡里, 지금의 익산; 전북, 전남, 제주 담당)와 부산(경남북 담당)에 두고 산하에는 서무과와 제1공사과(도로), 제2공사과(하천)를 두었다. 이 당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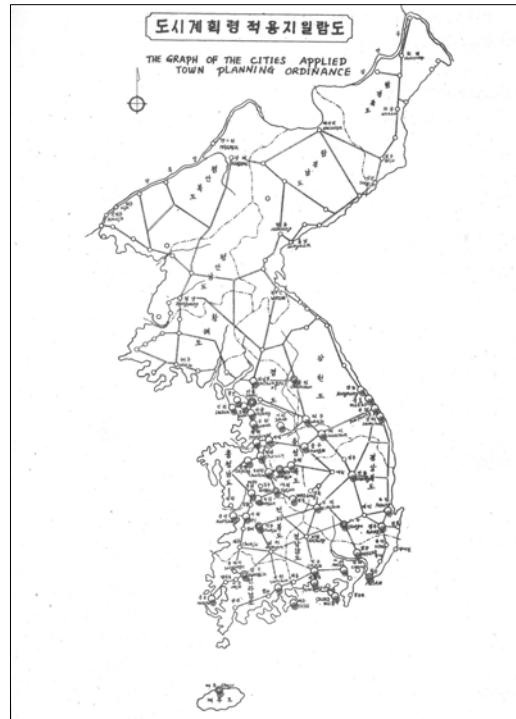
| 연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합계             |
|------|---------------|----------------|----------------|
| 1954 | 155,000,000   | 2,771,186,558  | 2,926,186,558  |
| 1955 | 968,000,000   | 11,353,739,900 | 12,321,739,900 |
| 1956 | -             | -              | -              |
| 1957 | 1,352,500,000 | 12,316,384,000 | 13,668,884,000 |
| 1958 | 2,132,863,400 | 10,936,848,300 | 13,069,713,700 |

(단위: 원)

한편 1954년~1957년까지의 외자(外資) 도입은 약 2,400만 달러였다. 1958년 현재 건설업체수는 1,630개사였고, 건설 기술자수는 3,122명에 불과했다. 또한 1958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국도, 지방도, 시읍면도) 연장은 2만 7,169km, 이 중 국도 연장은 1944년의 6,110km가 1957년에는 5,705km로 줄었다. 이 가운데 포장된 부분은 368km에 불과했다.

미 군정 3년 동안의 중요 건설실적은 강원도 도로(강릉-서울) 개수 외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한편 상수도는 1939년 급수 인구 92만 7천 명에 급수량은 1일 10만 1,000m<sup>3</sup>에 불과하던 것이 1957년에는 급수인구가 388만 명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1일 급수량은 2만 9,000m<sup>3</sup>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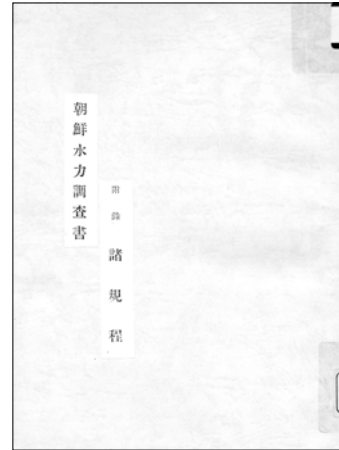
도시계획 적용도시는 1958년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46개 시에 달하고 있다. 중장비는 미군으로부터 507대(중고품)를 인수받았으나 6·25때 파손되어 ICA자금으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352대를 도입했다.



## 32 朝鮮水力調査書 조선수력조사서

1930년 / 조선총독부 체신국 / 총 6권 / 05.10-04 조53조 1930

이 조사서는 1930년 3월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수력조사기간은 1922년 11월부터 1929년까지 7년 간에 걸쳐 조사비 29만 4,684엔을 투입하여 압록강을 비롯하여 청천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및 두만강 등 6대 하천에 대한 수력지점 조사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조사에 앞서 1911년부터 1914년까지 3년 6개월 간 9만 엔을 투입해서 1차 수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당시 실시 중이던 ‘조선하천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 얻은 성과는 80개 유력지점에 5만 7천kW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2차 수력지점조사에서는 유망 수력지점이 150개소였고 추정 수력발전량은 220만kW였다.

당초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합병)한 다음 세 가지의 통치방침을 세웠다. 첫째, 조선을 영원한 농업국가로 통치한다. 즉 공업화하지 않고 농업생산을 증가시켜 일본의 부족식량을 보충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 일본의 상품판매시장으로 통치한다. 1868년 명치유신 이후 급격한 공업화를 달성한 일본은 이미 해외시장이 선진공업국들에 의해 점거당한 후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셋째, 대륙침략(그들은 진출이라 함)을 위한 병참기지로 통치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에게, 합병 이후 1920년까지는 모든 부문의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였다. 일제는 개발준비가 거의 끝나자 1920년에 조선인의 기업활동을 금지했던 ‘조선회사령(朝鮮會社令)’을 철폐하기도 했다. 그리고 2차 수력지점조사에서 220만kW의 발전 가능성이 보이자 ‘영원한 농업국가’로 통치한다는 방침을 변경하는데, ‘남농북공(南農北工)’ 정책이 그것이다. 즉 남쪽은 농업을 주로 하고, 북쪽은 공업화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가 하면 당시 만주(동북 3성)에 주둔한 100만 관동군의 군수물자, 주로 무기 수송비 때문이었다.

그들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만주까지 무기 수송을 위해 3천 톤짜리 선박 3,000척이 연중 왕래했다니 그 경비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리하여 그들은 압록강 유역의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에 댐을 만들어 154만kW의 전력으로 함흥-흥남, 청진, 평양-진남포, 신의주-다사도 등 4개소에 세계적인 군수공업단지를 건설했다. 이때 압록강 개발은 토목사상 세계 최초의 유역변경(流域變更) 공법을 사용했고, 일본 건설업도 여기서 처음으로 이른바 기계화 시공을 시작했다.



### 33 朝鮮土地改良事業史 조선토지개량사업사

1960년 / 古庄逸夫(후루쇼 이쓰오) / 185면 / 08.10-08 고71토 1960

이 책은 조선통치관계의 주요문헌 중 하나로 전 조선총독부 토지개량과장이던 古庄逸夫(후루쇼 이쓰오)가 1960년 1월에 펴낸 200부 한정판이다. 185면으로 된 이 책은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친목 단체인 우방협회에서 발행했다.



구성은 전편, 중편, 후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에는 일본통치 이전의 토지개량사업과 조선산미(朝鮮産米) 증식계획 등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 중편에는 동진강 수리조합을 비롯한 환해수리조합, 함흥수리조합, 안녕(安寧)수리조합, 소화(平南)수리조합 등 대규모 수리조합에 관한 기록을 수록했으며, 후편에서는 수리조합 사업과 관련된 회고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한말(韓末)이라 할 수 있는 1912년의 우리나라에 제언수(堤堰數)는 3,735개소, 보(洑)는 9,386개소였는데 1917년에는 각각 6,500개소와 2만 1천 개소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다. 또한 1910년 한일합병 당시의 쌀 생산량은 1,000만 석이었는데 해방되던 1945년에는 2,300만 석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제 36년 간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상기하면 된다.

동진강수리조합에 따르면 수리사업 실시 이전의 전라북도 일대는 습지였다 한다. 그래서 왕조시대에도 이 지역은 도로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한다. 동진강수리조합은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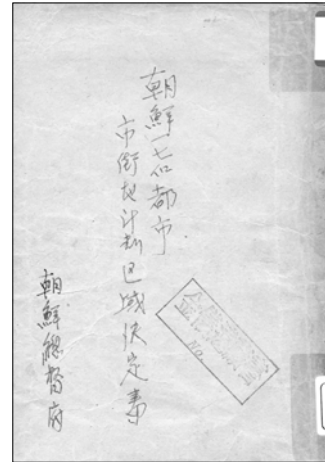
전라북도지사 亥角忠藏(이스미쥬소)가 퇴임 후 스스로 조합장이 되어 1925년에 조합을 설립했다. 동진강수리조합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1924년 남선(南鮮)지방의 대한발이었다. 이때 동진강수리조합 지역인 김제, 정읍, 부안은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 따라서 동진강수리조합은 이들 3개군 읍, 22개 면에 1만 4,560정보(약 4,400만 평)으로 당시 조선 최대의 수리조합이었다.

그들의 회고담에 의하면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 일본서 수많은 투기꾼들이 왔다. 토지는 물론 수리조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밀어닥쳤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당시 일본의 문교부장관(종전 후 수상)이었던 하도야마(鳩山)의 낙산(樂山)수리조합이다. 당시 하도야마는 친히 조선에 와서 함경북도 북단 소만국경지역에 국유지 1,000정보를 불하받아 수리조합까지 설립했으나 벼농사가 되지 않아 결국은 자금을 대출한 식산은행과 조선총독부가 사업을 정리하기도 했다.

34 朝鮮一七個都市 都市計劃 決定書 조선 17개 도시 도시계획 결정서

1936년-1938년 / 조선총독부 / 155면 / 02.30-22 조53조 1936-1938

나 진을 비롯한 경성(서울) 등 17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문서를 집약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도시계획구역과 가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결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나남읍은 나남사단 사령부 주둔지이므로 계획인구 등을 비밀로 한 채 도시계획구역 면적 약 29만m<sup>2</sup>(약 8만 8천 평)에 대한 도시계획을 1938년 2월 16일에 결정한 바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을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나진이다. 그 이유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한 함토항(哈吐港)의 기능을 위하여 서울보다 먼저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해당 도시에서 복사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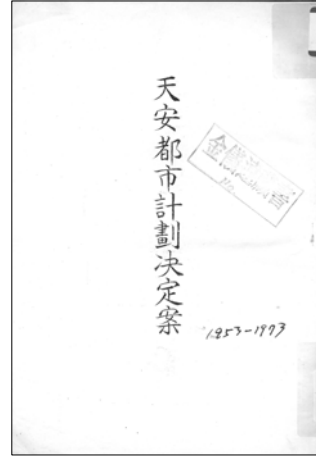
조선 17개 도시 도시계획 결정서

| 도시명    | 내용   |             | 도시명 | 내용   |             |
|--------|------|-------------|-----|------|-------------|
| 경성(서울) | 결정일  | 1936. 3. 26 | 인천  | 결정일  | 1937. 4. 12 |
|        | 실시일  | 1936. 4. 1  |     | 실시일  | 1937. 5. 1  |
|        | 현재인구 | 636,854     |     | 현재인구 | 45,357      |
|        | 계획인구 | 1,100,000   |     | 계획인구 | 110,000     |

|     |                            |  |    |                            |  |
|-----|----------------------------|--|----|----------------------------|--|
| 대전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8. 5.12<br>-<br>85,322<br>200,000           | 전주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8. 5. 9<br>1938. 6. 1<br>44,667<br>100,000  |
| 군산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8. 5. 9<br>1938. 6. 1<br>56,457<br>130,000  | 대구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7. 3.23<br>1937. 5. 1<br>148,072<br>350,000 |
| 목포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7. 3.23<br>1937. 5. 1<br>58,665<br>140,000  | 부산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7. 3.23<br>1937. 5. 1<br>179,222<br>400,000 |
| 평양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7. 4.30<br>1937. 5. 1<br>180,703<br>400,000 | 춘천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8. 5. 9<br>1938. 6. 1<br>14,953<br>40,000   |
| 신의주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7. 3.23<br>1937. 5. 1<br>51,338<br>90,000   | 함흥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7. 4.30<br>1937. 5. 1<br>-<br>-             |
| 원산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8. 5. 7<br>-<br>62,720<br>130,000           | 나진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4.11.20<br>-<br>-<br>-                      |
| 청진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6. 3.26<br>1936. 4. 1<br>42,221<br>400,000  | 성진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6. 4.20<br>-<br>-<br>40,000                 |
| 나남  | 결정일<br>실시일<br>현재인구<br>계획인구 | 1938. 2.16<br>-<br>-<br>-                      | -  | -                          | -  |

- ㉓ 天安都市計劃決定案 천안도시계획결정안
- 永同都市計劃決定案 영동도시계획결정안
- 安城都市計劃決定案 안성도시계획결정안
- 鳥致院都市計劃決定案 조치원도시계획결정안
- 原州都市計劃決定案 원주도시계획결정안
- 淸州都市計劃決定案 청주도시계획결정안

발간연도, 발행처, 면수 불명 / 02.10-20 천, 영, 안, 조, 원, 청



이 계획들은 해방 후 6·25 휴전 직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구역, 가로(도로), 토지구획정리지구, 공원, 녹지 및 풍치지구 등 6개 사항이다.

① 천안 고시일 1954. 5. 15

- 도시계획구역 : 약 1,823만<sup>m</sup>²
- 도시계획도로 : 30개 노선 18개 광장
- 토지구획정리지구 : 450만<sup>m</sup>²
- 공원 : 6개소 약 190만 5천<sup>m</sup>²
- 녹지지역 : 353만 2천<sup>m</sup>²
- 풍치지구 : 463만 2천<sup>m</sup>²

② 영동 고시일 1954. 5. 15

- 도시계획구역 : 957만 $m^2$
- 도시계획도로 : 15개 노선 7개 광장
- 토지구획정리지구 : 399만 5천 $m^2$
- 공원 : 3개소 53만 5천 $m^2$
- 녹지지역 : 61만 1천 $m^2$
- 풍치지구 : 305만 $m^2$

③ 안성 고시일 1954. 5. 25

- 도시계획구역 : 1,787만 4천 $m^2$
- 도시계획도로 : 19개 노선 14개 광장
- 토지구획정리지구 : 338만 $m^2$
- 공원 : 4개소 169만 8천 $m^2$
- 녹지지역 : 912만 9천 $m^2$
- 풍치지구 : 298만 7천 $m^2$

④ 조치원고시일 1954. 5. 15

- 도시계획구역 : 1,117만 3천 $m^2$
- 도시계획도로 : 17개 노선 10개 광장
- 토지구획정리지구 : 236만 $m^2$
- 공원 : 2개소 60만 5천 $m^2$
- 녹지지역 : 256만 $m^2$
- 풍치지구 : 400만 $m^2$

⑤ 원주 고시일 1954. 5. 15

- 도시계획구역 : 1,346만 8천 $m^2$

- 도시계획도로 : 21개 노선 9개 광장
- 토지구획정리지구 : 485만 8천m<sup>2</sup>
- 공원 : 4개소 69만 4천m<sup>2</sup>
- 녹지지역 : 314만 1천m<sup>2</sup>
- 풍치지구 : 443만 5천m<sup>2</sup>

⑥ 濟州(제주) 고시일 1952.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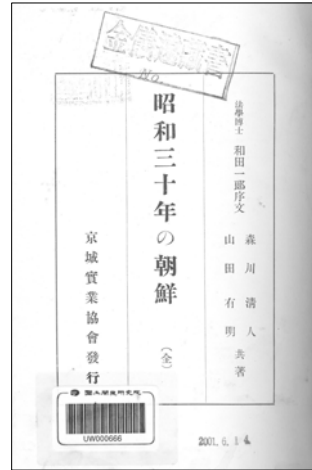
- 도시계획구역 : 1,924만 4,500m<sup>2</sup>
- 도시계획도로 : 28개 노선 9개 광장
- 토지구획정리지구만 9천m<sup>2</sup>
- 녹지지역 : 1,216만 7,200m<sup>2</sup>

이 계획의 특징은 20년 후의 장래 인구예측과 각 도시 공통적으로 ‘도시계획참고자료’라 하여 가곽(街廓) 표준도와 서울을 기준으로 각 방향에서 동지, 하지, 입춘, 추분 때의 일조도(日照圖)를 그려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각 도시마다 축적도면에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면밀히 표시하고 있다. 이 문서가 해당 시의 도시계획 시작의 뿌리라고 생각된다.

### 36 昭和三十年の朝鮮 1955년의 조선

1927년 / 森川清人(모리가와) · 山田有明(야마다 아리아케) / 316면 / 14,10-09 산73소 1927

이 책은 1927년 森川清人(모리가와)와 山田有明(야마다 아리아케)의 공동저작인데 30년 후, 즉 1955년을 목표연도로 잡았다. 저자의 전공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和田一郎(와다 이치로)박사가 서문을 썼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두 저자의 수준도 짐작할 만하다.



일종의 미래예측인데 예언으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보다 장래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일종의 이상(理想)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내용 가운데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도 있다.

일례를 들면 30년 후에는 서울-부산 간을 5시간에 주파할 특급열차의 출현이 그것이고, 구(舊)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경성제국대학은 당초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과 같은 규모와 수준으로 건설키로 하고 당시 총장과 주요 교수들까지 내정한 바 있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것이 중간에 방침이 변경되어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과는 약간 다른 모양의 대학으로 변모하였다. 내용인즉 당초는 일본과 같이 소학교에서 대학까지의 정연한 형식에 기초하여 설립을 서둘렀는데 일부에서 하나의 대학보다 100개의 소학교 증설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밀려 당초 설립계획이 사치시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경성대학은 당초에는 의과 외에 법문학부를 추가한 3개 학부가 있는 종합



대학에 불과하였다. 이 당시 경성대학에 예과(豫科)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에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였다. 법문학부는 조선문화가 동양문명사에 어떠한 지위를 점하는지에 대한 연구, 다시 말하면 동양문명에 관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각광받았다.

이밖에도 농림과, 수산과 및 공과 등의 설치로 조선의 부원개발(富源開發)에 필요한 최고의 과학연구소가 되었다. 특히 공과대학은 석탄공업과 수력발전의 성장에 순응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한편 조선이 100년 후에는 훌륭한 임야국(林野國)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원시림지대는 앞으로 300년 간 벌목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67개 뗏목을 연결하는 수상뗏목열차의 출현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30년 후 일본으로 연간 1,640만 석쯤 되는 쌀을 수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7 朝鮮年鑑 (1948) 조선연감

1947년 / 조선통신사 / 472면 / 14,10-10 조 1947

1947년 12월, 서울에 있는 조선통신사에서 편찬한 자료인데 1946년~1947년 간의 기록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해방 후 최초로 발행된 연감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군정 2년 간의 행정과 재정에 관하여 상세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 중 ‘사회일지(社會日誌)’가 흥미로운데 ‘정당 단체일람’과 ‘정계 인명록’도 재미 있는 항목이다. 특히 ‘정계 인명록’에는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한 김원봉(金元鳳), 김책(金策), 무정(武亭) 등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끼어 있다.

이 연감은 모두의 ‘해방경위’란 항에서 미국의 태평양전쟁과 1945년 8월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의 원폭투하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우리 민족해방의 계기를 8월 9일의 소련군 참전(만주침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해방 직후 남한에는 상당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급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우리는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것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일이 있는데, 1945년 4월부터 해방이 된 후 9월까지 48억 100만 엔이라는 화폐를 찍어냈기 때문이다. 조

선총독부 종정(終政)기록에 따르면 해방되던 해 봄부터 가족이 많은 공무원이나, 꼭 있을 필요가 없는 일본인들을 소환해서 미리 고향으로 돌아가라면서 막대한 퇴직금을 지불하기 위한 조치였다. 본 연감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물가 폭등을 일으켰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 인플레이가 해방 후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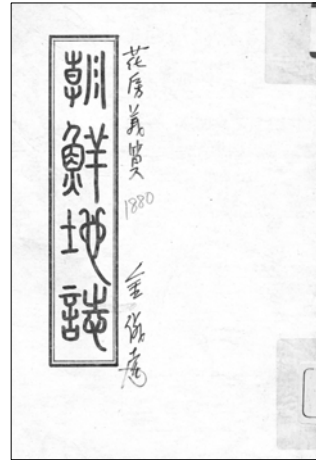
해방 직후인 1946년 말 현재인구는 1,936만 9,270명이었고, 해방 1년 전인 1944년 말 인구는 1,589만 110명이었다. 1946년 인구를 도별(道別)로 보면 경남이 318만 5,833명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 전남, 경기도의 순이고, 도시는 서울시가 114만 1,766명으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40만 156명, 대구 26만 9,115명, 인천 21만 5,784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항만시설은 부산항이 겨우 8천 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해방 후에 준공되었다. 선박은 1천 톤 이상의 강철선이 15척밖에 없었고, 트럭은 8·15 직전 남북을 통틀어 3천 대밖에 없었다.

38 朝鮮地誌 조선지지

1880년 / 花房義質(하나부사 야스가스) / 102면 / 14.10-08 판16조 1880

**한** 말에 우리나라 주재 일본 공사(公使)였던 花房義質(하나부사)가 저술한 102면짜리 책자다. 한지(韓紙)에 일본말로 인쇄한 것이 특징이다. 1880년 2월이니까 한일합병 30년 전에 저작한 것이다.



저자는 ‘山河歷歷(산하력력)’이라는 휘호가 있는가 하면 당시 한양(서울)을 그린 그림사진을 비롯하여 경성도(京城圖), 통진(通津圖), 한성연로촌락도(漢城沿路村落圖), 부산포(釜山浦), 동래부(東來府) 및 원산진도(元山津圖) 등 8개의 그림을 곁들이고 있다. 또한 권말에는 우리나라 전도를 끼워 놓았다. 한마디로 대단히 공을 들인 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을 판매할 책방 이름을 14개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분포상황이 전국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3년 당시 동경대 교수였던 고토분지로(後藤文次郎) 박사가 우리나라 산맥도를 그릴 때 이 책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을 보면 인문 지리적인 면이 많으나 역사지리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테면 철원의 경우 “철원 부는 신라의 왕자 태봉(泰封) 궁예(弓裔)가 도읍했던 곳이다. 부(府)는 강원 야음(野邑)에 속하고, 비록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다고는 하나 서쪽은 경기도 장단(長湍) 부와 접경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또 경주의 경우 “경주는 태백산 왼쪽 가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서북을 향하여 국(局)

을 열고 있다. 국 중의 물은 동쪽으로 흘러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른다. 경주 주(州)도 신라 국의 옛 도읍지다. 지금 동경(東京)이라 칭하며 부운을 두고 있는 대도회지다. 지금도 고도(古都)의 칭속(稱俗)이 있다. 또한 부여 현(縣)은 공주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백마강을 끼고 있다. 즉 백제의 고도(古都)로서 옛날 유적지가 많다. 또한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된다. 따라서 이 지방에는 부호가 많다”는 기록이 있다.

#### 전국군현일람

| 도별 | 군현수              | 인구(명)     | 가구수       |
|----|------------------|-----------|-----------|
| 경기 | 4주 9부 8군 15현     | 876,696   | 192,139   |
| 충청 | 4주 1부 11군 38현    | 988,821   | 299,899   |
| 전라 | 5주 5부 12군 35현    | 1,100,113 | 331,412   |
| 경상 | 4주 11부 13군 40현   | 1,788,718 | 465,468   |
| 강원 | 1주 6부 7군 12현     | 310,303   | 75,960    |
| 함경 | 1주 15부 4군 2현     | 494,391   | 92,020    |
| 평안 | 4주 8부 15군 15현    | 1,090,912 | 141,318   |
| 황해 | 2주 5부 8군 10현     | 488,868   | 124,997   |
| 계  | 25州 60府 78郡 165縣 | 7,053,837 | 1,653,213 |

### 39 朝鮮の聚落 조선의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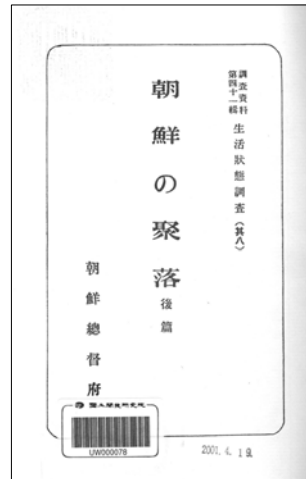
1933년(전편, 중편), 1935년(후편) / 善生永助(젠쇼 에이스케) / 총 2,532면 / H 08.10-01 선52한 1933

이 책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있던 善生永助(젠쇼에 이스케)의 저술이다. 1933년에 전편과 중편을 출판했고, 1935년에는 후편을 출판했는데 총 2,532면에 달한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38집~41집까지를 합쳐 편찬한 것이다. 해방 후 동경대학의 총장을 지낸 矢内原忠雄(야나이바라 다다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의 우리나라 생활상태조사란 것은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실시한 조사를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은 젠쇼에이스케가 저술한 『조선의 인구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책을 같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시가화(都市化)가 늦은 이유를 20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추려 보면 ① 도시의 배후지가 될 촌락경제의 빈약, ②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저도시(城下町) 발달이 없었던 것, ③ 화폐 발달의 미숙으로 인한 상업의 부진 등이다.

후편은 이 조사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인데 성씨(姓氏)의 변천과 동족(同族)부락 및 그 연혁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우리나라 성씨 중 다른 민족으로부터 귀화해 온 성씨가 135개 성씨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시대별로는 하(夏)나라 때 6개 성씨인데 여기에는 문화유(文化柳)씨가 포함되어 있다. 은(殷)나라 때는 2개 성씨인데 여



기에는 평양조(平壤趙)씨가 포함되어 있다. 한(漢)나라 때는 8개 성씨가 귀화했는데 여기에는 청주한(淸州韓)씨와 해주오(海州吳)씨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당나라 때는 26개 성씨가 귀화해 왔는데 여기에는 연안이(延安李)씨와 교하노(交河盧)씨가 포함되어 있다. 발해(渤海) 때는 한 성씨이고, 삼한(三韓)시대 두 성씨, 오대(五代) 때는 5개 성씨였고, 송(宋)나라 때는 8개 성씨, 원(元)나라 때는 19개 성씨, 명(明)나라 때는 두 개 성씨였고, 연대미상이 41개 성씨, 일본인 귀화가 13개 성씨였다.

우리나라 제1의 양반가문으로 꼽히는 연안이(延安李)씨도 당나라 때 귀화해 온 사람이었고 일본인 귀화인 가운데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 장군 沙也可(사야가)가 병 3,000명을 이끌고 당시 경상병사 박진에게 귀부(歸附)하여 후일 선조로부터 김해김(金海金)씨 성을 하사받고 김충선(金忠善)이라 하였다.

한편 족보의 최초는 조선조 명종(明宗) 17년의 문화유씨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밖에 이 책에서는 우리 성씨별 관향수(貫鄉數)도 기록하고 있다.

## 40 國土建設年鑑(1961) 국토건설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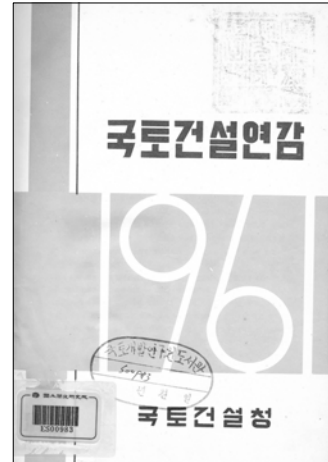
1962년 / 국토건설청 / 332면 / 04.40-07 국885국 1962

1962년 4월에 당시 국토건설청(경제기획원의 청)이 발간한 연감이다. 통계숫자는 1961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는 국토건설에 관해서는 최초의 연감인데 「내무행정치적사」의 토목부문과 연결을 지으면 해방 후부터의 통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국토건설청은 몇 달 후 건설부로 개편되는데 이때 국토건설청의 기구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많다. 국토계획국의 설치는 물론 수자원국의 설치도 일본보다 앞선 조치였다. 지방 국토건설국도 종래 서울, 부산, 이리(지금의 익산)의 3개 국 외에 시대적 요청에 따라 태백산지역 국토건설국이 설치된 것도 펍 이채롭다.

이 연감에서는 5·16 혁명 이전, 즉 4·19 혁명 직후 당시 민주당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국토개발사업이 5·16 후 혁명정부에 의해 어떻게 승계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당시 400억 환(圓)의 예산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호언하면서 작성한 국토개발사업의 계획 자체는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2월 말까지였고 시행은 3월 1일이었다. 그런데 5월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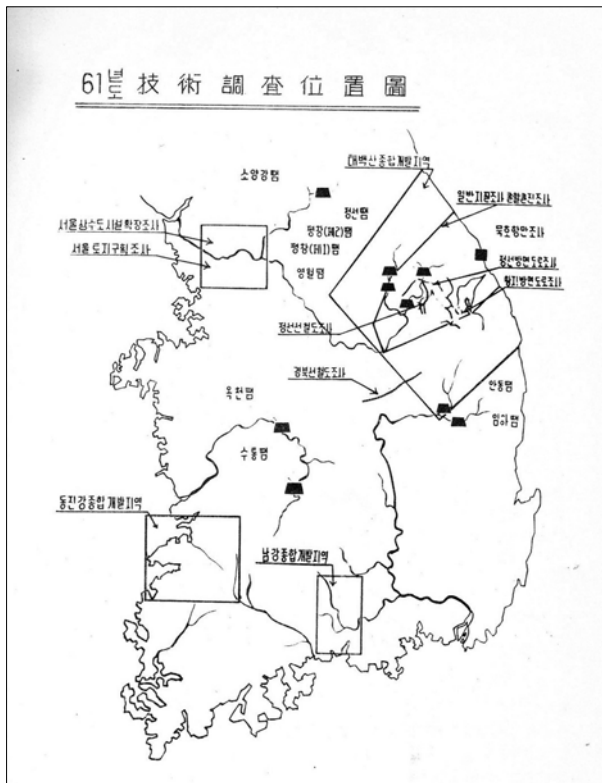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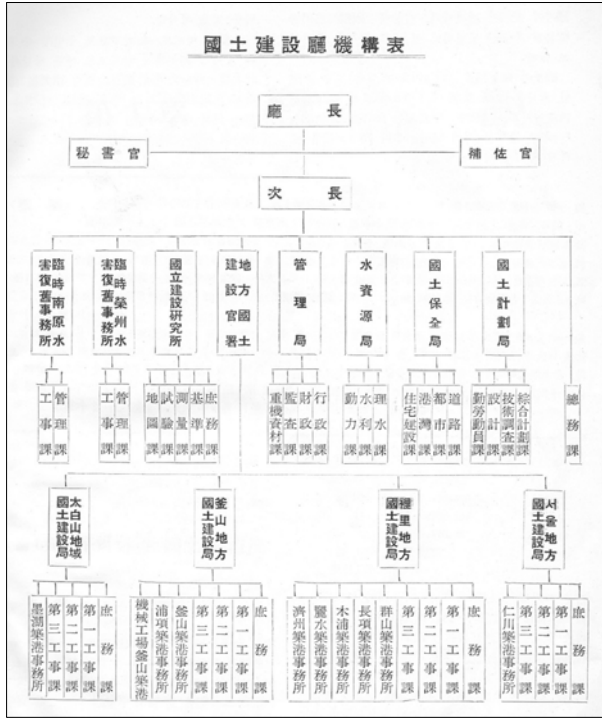
또한 연감에는 1959년~1961년 간의 주요 10개 도시 일용근로자(목공, 미장이, 석공 등 10개 종목)의 노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1961년 말 현재 건설업체 수는 토목 126





개 업체, 건축 154개 업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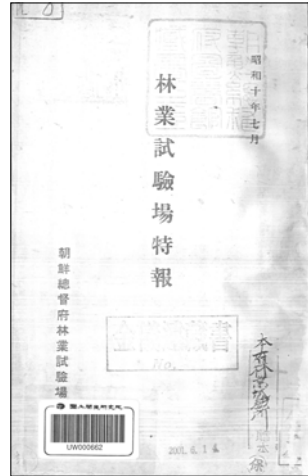
이 연감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과실수의 반(反)당 본수(本數)를 사과 20본, 배 30본, 복숭아 40본, 감 33본, 포도 50본과 같은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주택건설통계는 1951년~1960년까지의 건설통계가 실려 있는데 연평균 2만 5천 세대의 주택을 건설했다.



## 41 朝鮮治水治山史考 조선치수치산사고

1935년 / 德光宣之(도쿠미즈 노부유키) / 100면 / 10.30-07 덕14조 1935

이 책은 1935년에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발행했다. 책의 내용 즉 주제가 「朝鮮治水治山史考」이고 원래 책의 표지는 「임업시험장 특보」로 되어 있다. 편저자는 조선총독부 촉탁인 德光宣之(도쿠미즈)이고 책의 부피는 101면이다. 내용인즉 고대(古代)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치산치수에 관한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다.



집록도서는 「三國史記(삼국사기)」를 비롯하여 「高麗史(고려사)」,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 「礪溪叢錄(반계수록)」, 「經世遺表(경세유표)」, 「牧民心書(목민심서)」, 「經國大典(경국대전)」, 「大典續錄(대전속록)」,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受教輯錄(수교집록)」, 「新補受教輯錄(신보수교집록)」, 「續大典(속대전)」, 「大典通編(대전통편)」,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慶尙道邑誌(경상도읍지)」, 「芝峰類說(지봉유설)」, 「耳溪集(이계집)」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책의 내용은 홍수 예방에 관한 일, 사방사업 화전민과 기타 일반 임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발췌한 것이다. 발췌 수록된 내용은 총 180 항목에 가깝다. 일례를 들면, 조선조 초기의 특기할 만한 것은 속대전에서 볼 수 있는, 즉 일반 임야에 있어서의 개간은 기타경작의 경우 산허리(山腰) 이하로 제한하고 산허리 이상 지역의 개발은 이를 절대 금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조 후기(1778년)에는 ‘堤堰節目(제언절목)’을 만들어 한밭에 대한 대응책을 정하기도 했다. 즉 전국적인 한밭이 오면 왕은 목욕재계하고 밥반찬 가짓수를 줄여라, 그래도 비가 아니오면 왕은 스스로 제관이 되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라,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은 내실을 피하라고 하였다. 또한 이럴 때 일반 백성이 낚시를 한다거나 투망질을 할 경우 곤장 80에 북방국경지대로 추방한다. 또한 백성들이 제방에 호박을 심거나 소를 메어 뒀을 때도 곤장 80에 북방지방으로의 추방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 이 ‘제언절목’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으로 절대왕권하에서 왕의 사생활에 속하는 내실을 피하라는 등의 규정을 보면 당시 한밭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정조(正祖) 6년(1782년)의 8도 제언(堤堰) 총수도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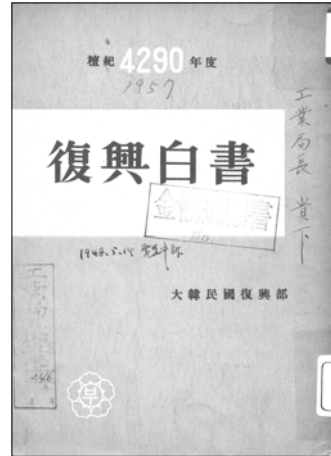
정조 6년의 8도 제언

| 道別  | 제언(堤堰) 총수 |
|-----|-----------|
| 경기도 | 270       |
| 충청도 | 503       |
| 전라도 | 913       |
| 경상도 | 1,522     |
| 황해도 | 26        |
| 평안도 | 55        |
| 강원도 | 65        |
| 함경도 | 24        |
| 계   | 3,378     |

## 42 復興白書 부흥백서

1958년 / 대한민국 부흥부 / 307면 / 10.10-15 대91부 1958

1957년판 부흥백서인데 1958년 5월에 간행되었다. 1958년 8·15,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10주년을 기념하여 195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걸어온 발자취를 분석한 귀중한 자료다. 특히 해방 이후의 원조사업 관계와 6·25 전쟁 복구분야는 이 백서 이외 이렇다 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방면에 관하여서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부흥부(復興部)에서 ‘부흥’이란 경제부흥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에는 지금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흥부는 지금의 경제기획원의 전신으로, 당시 부흥부 직제에는 국토개발 기능이 들어 있었다. 전체 307면의 책인데 제1부 경제부흥과 제2부 우방들의 경제원조로 대별하고 있다.

이 백서에서는 6·25 전쟁 피해를 일반 공업시설 11.7%, 주택 16.9%로 기록하는 한편, 총 피해액은 미화 30억 달러 상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1956년까지 전쟁복구기를 겪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처참한 전쟁으로부터 재기 소생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와 전쟁에서 파생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수습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56년의 생산이 6·25 발발 전 해인 194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로써 경제발전의 터전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45년~1957년 사이의 외국원조 실태를 보면 GARIOA 4억 3,392만 1천 달러 이고, ECA 2억 2,021만 7천 달러, CRIK 4억 5,737만 5천 달러, UNKRA 1억 995만 8천 달러, ICA 8억 8,813만 6천 달러, PL480은 7,848만 3천 달러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1945년 493만 4천 달러, 1946년 4,949만 6천 달러, 1947년 1억 9,989만 9천 달러, 1948년 1억 7,959만 2천 달러, 1949년 1억 1,639만 9천 달러, 1950년 5,422만 1천 달러, 1951년 1억 2,948만 6천 달러, 1952년 1억 5,961만 2천 달러, 1953년 1억 9,345만 9천 달러, 1954년 1억 4,725만 2천 달러, 1955년 2억 4,393만 1천 달러, 1956년 3억 3,581만 4천 달러, 1957년 3억 7,399만 5천 달러 등 도합 21억 8,809만 달러인데, 22억 달러란 당시로서는 거금임에 틀림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기술자의 해외 파견인원을 보면 1955년 255명, 1956년 217명, 1957년 292명 등 도합 764명을 해외연수를 보냈다. 또한 1948년 5월 14일을 기하여 남쪽으로 보내던 전기 송전 중단으로 발전소 건설에 심혈을 쏟기도 했다. 어쨌든 이 책은 정부수립 후 최초의 백서라는 데 큰 뜻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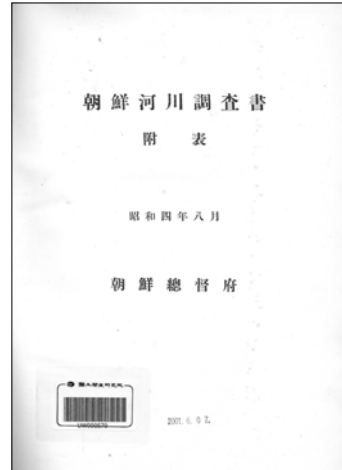
## 43 朝鮮河川調査書 조선하천조사서

1929년 / 조선총독부 / 2,145면 / 05.20-13 조 1929

이 조사는 조선총독부가 1915년~1928년까지 14년 간에 걸쳐 우리나라 14개 하천에 대해 실시한 사업으로 113만 1,061엔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본문만 982면이고 부표(附表)가 1,163면이며 부도(附圖)만도 243매에 달한다. 부도에는 도표와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4년 간 이 조사를 주관한 국장과 부장이 7명, 과장 6명, 고등관(사무관) 14명, 주사 이하 60명에 달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사를 주관한 사람은 기사(技士) 梶山淺次郎(가지야마 아사지로)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치수문제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홍수에 관한 공식이라 할 수 있는 ‘가지야마 공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가지야마 공식은 세계적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가지야마는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 모 대학에 가지야마 공식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심사 중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다.

이 조사서는 조선총독부에서 1929년 8월에 출간한 것인데 필자는 1965년 7월 8일 고향인 대구의 고서점에서 구입했다. 일제가 조사한 14개 하천은 대령강(大寧江), 청천강(淸川江), 대동강(大同江), 재령강(載寧江), 예성강(禮成江), 임진강(臨津江), 한강(漢江), 금강(錦江), 영산강(榮山江), 섬진강(蟾津江), 낙동강(洛東江), 용흥강(龍興江), 성



천강(成川江) 및 만경강(萬頃江)이다.

조사내용은 ① 유역면적, ② 유로연장, ③ 유로상태(지질, 평지면적, 삼림 등), ④ 하천상황(구배, 횡단면, 유량, 조석(朝夕), 하구), ⑤ 항운사항(항해구역, 항해척수[航海隻數]), ⑥ 관개상황(보, 제방, 관개면적, 한수해[旱水害]), ⑦ 저수지(저수량, 유역면적), ⑧ 수력지점 및 하천 이용 상황, ⑨ 양수표(量水標) 및 우량제 설치 위치, ⑩ 치수 계획(하천개수구역), ⑪ 수리계획지점, ⑫ 하천경제조사, ⑬ 하천측량 등 13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이 조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우리나라의 고기록(古記錄), 이를테면 『經國大典(경국대전)』,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海東釋史(해동석사)』, 『조선 고대 관측기록 조사보고서』, 『朝鮮水經(조선수경)』 및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 등을 참조하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해서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일제가 이런 조사를 해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하천에 관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 그것은 우리가 해방 60년을 맞은 지금까지 하천대장이나 도로대장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44 北學議 북학의

1947년 / 박제가(朴齊家) / 79면 / 14.20-12 박73북 1947

이 책은 실학자인 박제가의 저작인데 1947년 10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출간했다. 당시의 도학파(道學派)들이 명나라를 숭배하는 대의명분론자들이라면 실학파는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자들이다. 전자가 현실을 피하고 관념론으로 시종할 때 후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를 개량하자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실학파는 남인 출신의 양반인데 적어도 영정조(英正祖)대에는 도학파의 누구도 실학파를 당해내지 못하였다. 이 당시 실학파의 거두로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儻), 홍대용(洪大容) 및 홍양호(洪良浩), 신경준(申景濬) 등 제제다사(濟濟多士)하였기 때문이다.

『北學議(북학의)』는 내용에 있어 교통론을 기초로 한 일종의 상업경제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0편에 달하는 교통에 관한 논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박제가는 말하기를 “상업이 발전하려면 교통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통이 발달하려면 용차(用車)와 용선(用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그는 “우리나라는 동서가 천리이고 남북은 그 3배다. 그 가운데 수도가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모여드는 물질의 운반거리는 500리에 불과하고 세로로는 1,000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바다에서 가까운 곳은 각기 배로



통행하고, 육지에서 통상하는 자는 짐작컨대 서울까지는 멀어도 5~6일 정(程)에 불과한 것이고 가까우면 2~3일 정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쪽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면 날짜는 곱이 걸릴 것이다. 만일 걸음 잘 걷는 사람을 각 처에 배치한다면 사방의 모든 물가의 높고 낮은 것은 며칠 안에 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메산골에서는 산사(山査)를 담가서 그 신맛을 메주 대용으로 쓰는 자가 있으며, 또 새우젓이나 조개젓을 보고는 이상한 물건이라 한다. 그 가난함이 이와 같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수레(車)가 없는 까닭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박제가는 일본의 德川(도쿠가와)가 “… 물건 싣기를 제한 없이 해서 소나 말이 많이 상한다. 이것은 어진 사람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까지 소개하고 있다.

박제가는 4회에 걸쳐 중국의 심양(瀋陽)과 북경 등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도로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 책에 수록하고 있다.

45 文岩集：漆室空談 문암집: 칠실공담

연도불명 / 정지성(丁志成) / 52면 / 12,10-24 정37문

‘漆室空談(칠실공담)’은 정지성(丁志成)의 문집, 즉 『文岩集(문암집)』에서 유래한다. 정지성(1718~1801)은 경북 영주사람으로 고향에서 벼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독특한 개성의 실학으로 일생을 마친 숨은 실학자였다. 그의 유저인 『文岩集(3권 1책, 목판본)』은 비록 작은 책자이기는 하나 우리 실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역사의 재조명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선구적 업적이 학계에 소개된 일이 거의 없다. 정지성의 사회개혁 사상도 그의 문집에 담겨 있는 ‘漆室空談’에 잘 응축되어 있다. 칠실공담은 단순한 관념론적 개혁사상이 아니고 조선왕조 후기사회(18세기 말)의 갖가지 사회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두 차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안들이다.

체제는 주인과 나그네의 문답식으로 매우 참신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지성의 개혁사상은 사회 전반에 걸친 20여 가지에 달한다. 과거제도의 개선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항들이 있으나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고향 영주가 속해 있는 낙동강 상류지방의 국토보전론이라 할 수 있다.

주인이 크게 탄식하기를 “... 백성들로 하여금 생존할 방도가 없어 예의를 차릴 겨를조차 없게 하는 것은 곧 시내에 흘러내리는 모래 때문이다... 우리 영남지방은 이 폐단이 더욱 심하다. 태백산, 소백산, 조령, 죽령이 남쪽을 둘러싸고... 강변에는 모래가 날로 쌓여 금년에 한 척이 높아지고, 명년에 또 한 자가 높아지면 10년이 못 가서 토지가 모두 백사장이 될 터인데... 이것이 영남의 제일 큰 환난이 아니겠는가?”

객(客)이 묻기를 “영남의 전토에 토사가 쌓이는 것은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다. 만약 이를 예방할 방도를 세운다면 어떻게 구상하겠는가?”

주인이 답하기를 “나는 먼저 수원(水源)을 살펴보고...” 하면서 해결책을 진술한다.

위와 같이 본문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자연(물줄기와 산줄기 등), 즉 지리를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의 대책이 언급되고 있다. 정지성 선생은 이렇듯 오늘날의 관점에서 말하면 국토보존론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지만 주자학이 지배하던 당대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자료는 필자가 잘 아는 대구의 장서가인 이인재(李仁哉) 선생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선생은 소장한 고서 4만여 권을 영남대학에 인계했다.



## 46 大韓地誌 대한지지

1906년 / 玄采(현재) / 132면, 106면 / 08.10-01 현81대 1906

대한지지는 1906년(광무 3년)에 1권을 1913년(광무 10년)에 2권을 발간했는데, 구 한국정부의 학부(學部)에서 편찬 간행했다.

1권은 132면으로 총론과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및 경북이 수록되어 있다. 2권은 106면인데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및 함북도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 발문은 백암(白庵), 현재(玄采)와 강진희(姜璉熙) 선생이 썼다. 각 도마다 고을(郡)의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41개 군(郡)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一등 군(郡)은 尙州郡(상주군), 慶州郡(경주군)이고,

二등 군(郡)은 大丘郡(대구군), 星州郡(성주군), 義城郡(의성군), 永川郡(영천군) 및 安東郡(안동군)이고,

三등 군(郡)은 醴泉郡(예천군), 金泉郡(김천군), 善山郡(선산군) 및 淸道郡(청도군)이고,

四등 군(郡)은 靑松郡(청송군), 仁同郡(인동군), 寧海郡(영해군), 順興郡(순흥군), 漆谷郡(칠곡군), 豊基郡(풍기군), 盈德郡(영덕군), 龍宮郡(용궁군), 河陽郡(하양군), 榮州郡(영주군), 奉化郡(봉화군), 淸河郡(청하군), 長鬐郡

(장기군), 軍威郡(군위군), 義興郡(의흥군), 新寧郡(신영군), 迎日郡(영일군), 禮安郡(예안군), 開寧郡(개령군), 聞慶郡(문경군), 知禮郡(지례군), 咸昌郡(함창군), 英陽郡(영양군), 興海郡(흥해군), 慶山郡(경산군), 茲仁郡(자인군), 比安郡(비안군), 玄風郡(현풍군) 및 高靈郡(고령군)이다.

제일 앞에는 우리나라 전국지도가 있고 각 도마다 지도를 첨가하고 있다. 그런데 1906년이면 이미 모든 분야에 일본의 콧김이 영향을 미칠 때라 그러한지 책머리 첫 줄에 동해를 일본해라 한 것을 보니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단군개국설을 신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당시 1등군, 2등군 하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인구, 물산(物産) 및 인물 등이 그 잣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일설에는 인구나 물산(경제)보다도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고을이 등수가 높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경북편의 지도를 보면 울릉도는 그려져 있다. 울릉도 주위에 6개의 섬이 그려져 있으나 독도란 표기는 없다.

경상남도편을 보면 수부(首府)는 진주이고 1등군은 진주군 단 하나이며, 2등군이 김해군과 밀양군의 두 군데밖에 없고 동래군이 3등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고성 남쪽에 통제대영이 있는데 이는 선조(宣祖) 임금님이 오셔서 설치한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三道) 수군을 통괄케 하던 곳이란 기록도 보인다.



## 47 朝鮮の洪水 조선의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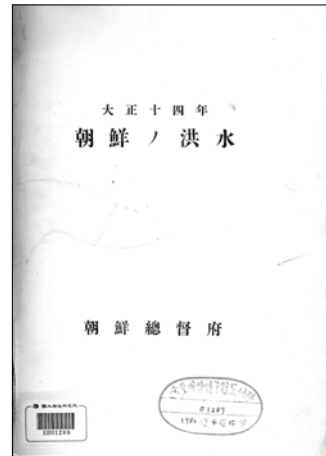
1925년 / 조선총독부 / 158면 / 11.30-05 조

이 책은 1925년, 즉 을축년(乙丑年) 대홍수에 관한 기록이다. 1926년 3월에 조선총독부에서 출간했는데 본문 158면에 107개에 달하는 도면과 49가지의 각종 도표 및 많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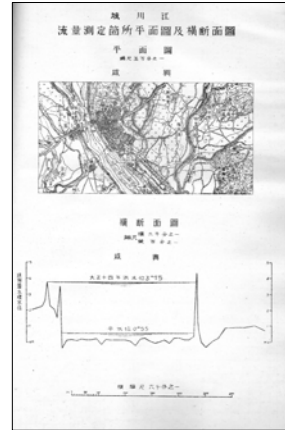
을축년 장마는 아마 20세기 최대의 홍수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홍수 하면 ‘을축년 장마’를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다. 을축년 대홍수는 1925년 7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비구름이 전후 4회에 걸쳐 남북을 오르내린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7월 11일과 12일에 낙동강유역에 큰 비를 쏟아냈고, 두 번째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한강유역에 큰비를 내려 대홍수를 이룩했다. 세 번째로 8월 12일과 13일에 북쪽의 청천강과 대령강 및 성천강 유역에 큰 홍수를 야기시켰고, 다시 네 번째는 9월 7일에 낙동강과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을 범람시켰다.

그러니까 54일 간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을 홍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 당시 한강 인도교 수위는 7월 17일 최고 12.26m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647명이었고 부상자 등을 합하면 인명 피해는 200만 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하천별 피해를 보면 한강수계가 1위, 낙동강이 2위다. 도별로는 경기도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고, 다음이 경상남도 순이다. 피해액은 1억 300만 엔이었다. 이때까지 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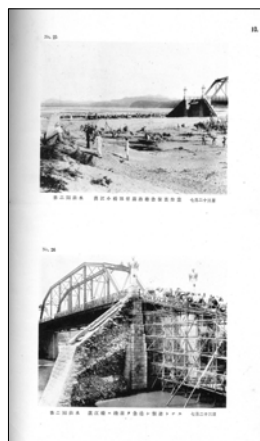


에는 제대로 된 제방도 없었기 때문에 강물이 용산에 있는 철도관사를 휩쓸고, 서울역 광장까지 완전 침수했다. 당시 남대문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의 혜지를 칭송하기도 했다고 한다. 홍수 수위는 1972년 8월 19일 11.24m도 있었고, 1990년 9월 11일 11.27m도 기록되어 있으나 1925년의 수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9세기에도 1865년과 1879년에 큰 홍수가 있기는 했으나 1925년, 즉 을축년 대홍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홍수에 관한 공식으로 '가지야마 공식'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했지만 당시 총독 부 축탁이었던 가지야마가 공식을 정립하는 데 있어 이 을축년 대홍수가 큰 자료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48 旅庵全書 여암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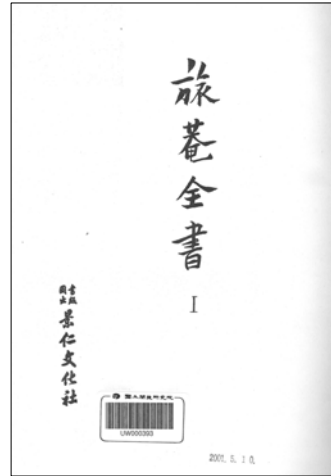
1979년 /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 / 512면 / 12,10-05 신 1979

여암(旅庵)은 18세기의 실학자인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아호다. 신경준은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42세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다. 이때부터 관계에 진출하여 서산군수(瑞山郡守), 장연현감(長淵縣監), 북청부윤(北靑府尹), 강계부사(江界府使) 및 순천부사(順天府使) 등을 역임하였으나 사소한 실수로 처벌을 받는가 하면 파직과 유배를 겪는 등 그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다.

그가 실학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성리학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지리·역사 같은 이용 방면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 『旅庵全書(여암전서)』는 신경준의 모든 저술을 통틀어 1979년에 경인문화사가 출간한 것인데 한자본(漢字本) 그대로다.

1권에는 유명한 『疆界考(강계고)』와 『山水考(산수고)』가 있다. 『疆界考』는 역사학·지리학적 저술이다. 우리나라 고대국가들의 수도 및 국경과 고지명(古地名)의 연혁을 기왕의 고전에서 추출하여 기술하고 자기 견해를 붙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사지리학은 한백겸(韓百謙, 1550~1613)의 『東國地理志(동국지리지)』가 효시이나 여암의 『疆界考』는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그의 역사에 관한 견해는 『送使之日本序(송사지일본서)』에 신라가 일본의 내륙지방을 정복한 유일한 나라임을 논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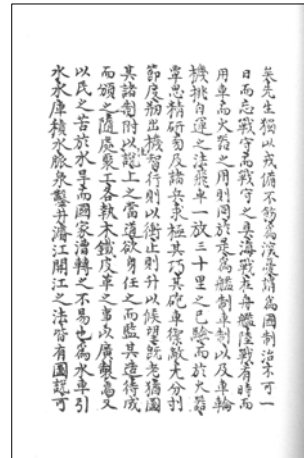


『山水考』는 군·현별로 산과 강의 줄기를 논하고 있다.

2권에는 신경준의 『道路考(도로고)』가 있다. 신경준의 도로관(道路觀)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그는 “길과 집은 중요성이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생산, 즉 유통과 생활(주택)을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유교사회, 즉 군자불기(君子不器) 사상으로 상공업을 천대하는 사회, 기(技)와 예술을 경시하는 사회, 그러면서 명분과 배타 공리주의에 치우쳐 예절만을 문제삼으며 허례허식에 빠진 사회에서 도로의 기능과 중요성을 구체적인 예시와 더불어 강조하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치도(治道)를 왕정의 근본으로 삼으라 했고 미래를 내다보고는 “사람이 길 위에 있음이 많아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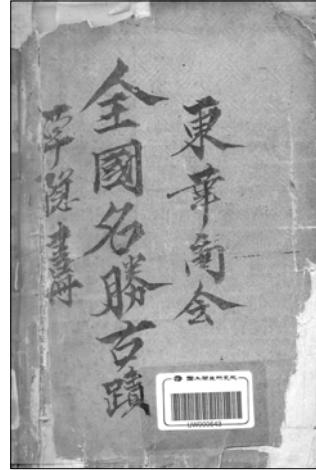
필자는 『道路考』를 재임 중에 번역 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9 全鮮名勝古蹟(全) 전선명승고적(전)

1929년 / 김유동(金迪東) / 516면 / 14.10-08 전 1929

김 유동(金迪東)이 1929년에 저술한 516면의 방대한 저작으로, 책머리는 어윤직(魚允迪)과 신석우(申錫雨)의 휘호로



장식되어 있다. 서문은 윤희구(尹喜求), 홍명희(洪命憲) 두 사람이 썼다. 아마 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저자와는 친구관계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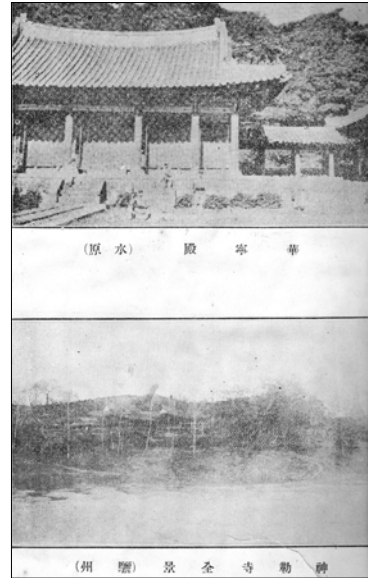
김창섭(金昌燮) 화백이 표지 의장을 했다는데 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책머리에 명승고적의 사진 88매가 수록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내용은 13도의 군별로 명승지와 고적지를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역사적 유물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문화면의 지지(地誌)라 할 수 있다. 한자가 너무 많은 것이 탈이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능가할 만한 출판물을 보지 못했다.

군별로 분량이 가장 많은 군은 경상북도의 경주군이다. 신라의 고도라 유적이 많은 탓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16면에 달하고 있다. 대충 분류해 보면 산이 34개, 절(寺)이 20개를 넘는다. 또한 서원(書院)도 10개소를 넘는다.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서인(西人)의 거두인 송시열(宋時烈)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고향인 경북 선산을 보면 의우총(義牛塚)과 의구총(義狗塚)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도리사

(桃李寺)는 아도화사(阿度和事) 스님이 신라에서 가장 먼저 창건한 절이란 것도 기록되어 있다. 선산의 금오서원(金烏書院)에는 고려 삼은(三隱)의 한 분인 길재(吉再) 선생과 김종직 및 장형광, 박영 등이 모셔져 있다.

경주 다음으로 기록이 많은 곳은 평양이나 분량으로는 10면에 불과하다. 을밀대니 모란봉이니 부벽루 등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기자사당(箕子祠堂)이나 기자묘(箕子墓) 또는 단군사당이나 동명왕사당을 비롯해 많은 명승고적이 있으나 지금 그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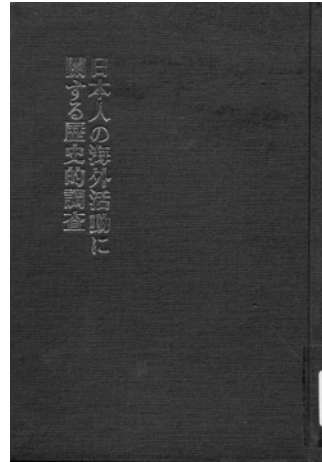
또 무열사(武烈祠)에는 중국의 李如松(이여송)을 모시고 있기도 하다. 백제의 고도인 부여에는 아직도 평제대(平濟臺)가 있다.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기념탑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을 섬기는 하나의 증좌(證左)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50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1985년 / 대장성(大藏省) / 총 35권 / 14,20-01 대71일 1985



이 기록은 19세기 후반부터 2차대전 패전까지의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 기록이다. 1945년 8월에 패전한 일본은 본국(일본)으로 귀환한 각 총독부 공무원들을 집합시켜, 그들이 지참한 기록과 주체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식민통치에 대한 일체의 사실을 기록케 한 것이다.

이 작업의 주체는 당시 일본 대장성(大藏省, 재무부) 관리국이었다. 대상은 대만, 조선, 만주(동북 3성), 요동을 비롯하여 2차대전 때 일본군이 점령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과 남방의 인도네시아 등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이다.

총 3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11권까지가 조선에 관한 기록이다. 이들은 극비에 200질 한정판을 출간했는데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두 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량 소각해 버렸다. 남은 두 질 중 한 질은 재무부 관리국에 비치하고, 다른 한 질은 동경대학 도서관에 비치했다.

이 사실을 안 필자가 1970년대 후반에 당시 田中(다나카) 수상의 참모였던 국토청 모 국장에게 부탁했더니, 이 문서는 복사가 불가하며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당시 동경대학 박사과정에 있던 박○○에게 군자금을 주어 관리직에게 부탁하지 말고 말단 사서

담당자를 구워삶으라고 했고, 약 한 달 후에 박○○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 왔다. “목적 달성했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는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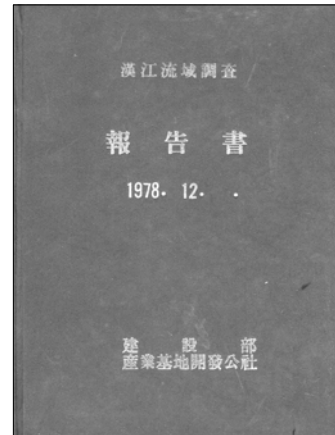
그때만 해도 일본비자 한 번 얻기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에 “DHL로 보내라, 발송인 주소와 성명은 가짜로 하고” 했더니 만약 이 일이 들통 나면 자기는 강제출국 당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DHL로 자료는 도착했다. 이번에는 DHL에 파견되어 있는 CIA직원이 문제였다. 일본 문자는 모르겠는데 한자로 “朝鮮(조선)”이라고 되어 있으니 북한에서 온 불온문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 자료는 필자가 『韓國國土開發史研究(한국국토개발사연구)』를 쓸 때 정확도에는 다소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대단히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후 1985년에 서울에 있는 고려서림에서 해적판으로 35권을 12권으로 출판한 일이 있다.

## 51 漢江流域調查報告書 한강유역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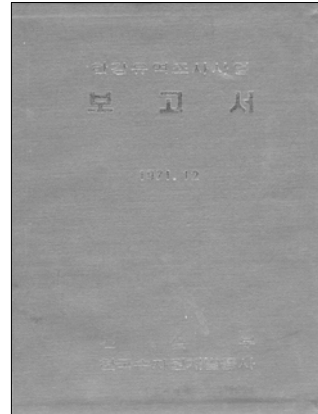
1978 / 건설부 / 455면 / G 05.20-13 권

**한** 강유역조사단은 1965년 1월 8일 USOM/K의 제의에 따라 건설부 동의하에 1965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인 기술자 2명이 내한하여 예비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라 AID 자금 175만 달러와 내자 2억 9,300만 원으로 1965년 10월 22일 대한민국과 미국 국제개발처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후 1966년 3월 15일 한국인 75명과 미국인 10명의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이 조사단은 1967년 11월 16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통합될 때까지 존속되었고 통합 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한강유역 합동조사단이 설치되기 이전의 한강유역에 대한 조사연혁은 다음과 같다.



- 6·25 이전 : 한강유역의 부분적 조사 시행 중 전쟁으로 중단
- 6·25 이후 : Smith Finchman & Gryties사에 의해 한강 포장 수력 조사
- 1960년 : Pabeco사 충주수력발전소 설계
- 1961년 이후 : 프랑스 Sofralec사 팔당 설계, 일본공영(工營) 소양강댐 설계, 미 Black & Veatch Co. 서울 상수도 조사 건설부 경인특정지역 조사
- 5·16 이후 : 물자원 개발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사업인 한강 및 낙동강유역에 대한 합동조사단 설치

이 합동조사단은 우리 수자원 개발에 있어 신기원을 수립했다. 그것은 첫째로 수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조사와 계획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둘째로 선진 기법 도입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만약 이 당시 한강과 낙동강유역조사단의 설치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하천행정이나 수자원개발수법은 일제의 구각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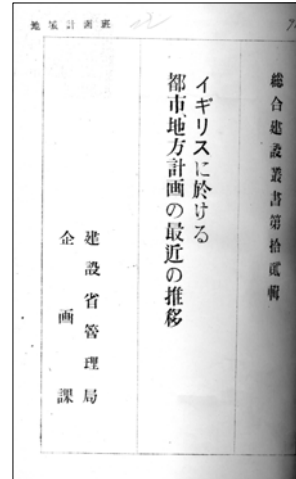
낙동강유역조사단은 UNDP자금 279만 3,500달러와 내자 2억 246만 1천 원으로 1966년 10월에 발족하여 1974년 12월까지 존속했는데 사무실은 대구에 두었다. 이 두 조사단은 각각 『Reconnaissance Report Water Resources Study Han River Basin (Vol. 1-3), 1971』과 『UNDP/FAO LAND and Water Resources Planning in The Nak dong River Basin (Vol. 1-8), 1971』을 출간했다.

한강유역 합동조사단은 건설부 출신인 댐 전문가 김여택(金麗澤)이 담당했었다. 1968년 3월과 같은 해 7월에는 금강유역조사단과 영산강유역조사단이 설치되었으나 그 규모는 한강과 낙동강 조사단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사업은 일제에 의한 조선하천 조사사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 52 英・獨・日の國土計劃 영·독·일의 국토계획

1961-1963년 / 일본 건설성 외 / 02,10-08 건58영 1961-1963

이 책은 ① 영국의 도시·지방계획에 관한 최근 추이(179면), ② 독일의 국토계획(34면), ③ 전후 일본의 국토종합 개발계획, ④ 일본의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원안(60면)과 ⑤ 이것에 대한 설명서(211면), ⑥ 구미(歐美)지역 개발제도 해설서(35면)를 합본한 것이다.



‘영국의 도시·지방계획에 관한 최근 추이’는 1951년 일본 건설성 관리국 기획과에서 일어로 번역 발행한 것이다. 원명은 『Town & County Planning(1943-1951)』인데 179면이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뿐 아니라 행정도 판이하게 다르지만 이 계획 자체는 우리가 추진하는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료는 필자가 일본 건설성에서 얻어온 자료란 것을 첨언한다.

‘독일의 국토계획’은 1961년 일본의 도시센터에서 발행한 책이다. 34면의 해설과 20매의 계획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국토계획은 이른바 공간질서계획(Raumordnung)이란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국토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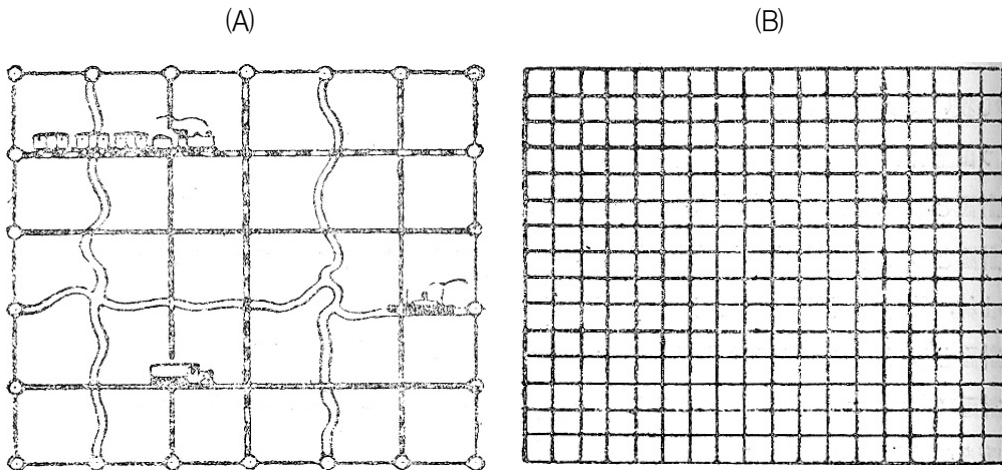
히틀러가 창안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1934년 5월 30일에 이른바 국토질서 5대 원칙을 천명한다. ① 대도시와 공업 포화지역을 소개할 것, ②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유입되는 노동력을 막을 것, ③ 농촌에 새로운 농민 정주지를 건설할 것, ④ 대도시 공업은 다른 입지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이전할 것, ⑤ 가능한 한 많은 지방경제자립권을 형성할



것 등이다.

⑤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다. 만약 전쟁에서 공업지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지역경제를 육성하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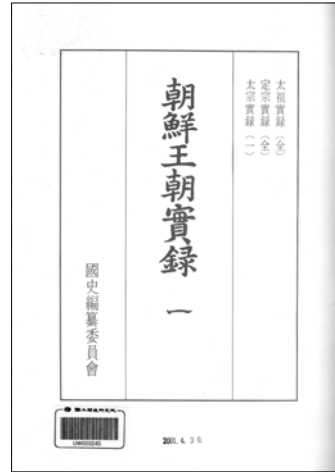
‘독일의 국토계획’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운수계획이다. 독일은 운수의 기본이 운하이고, 운하가 없는 곳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독일뿐 아니라 서유럽은 29m 이상의 폭포도 없는 평탄한 지역이니 운하 주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A)와 같이 집중 배제를 위한 운하, 철도, 도로의 3권분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교통의 특징은 (B)처럼 어디서 어디를 가든 자유롭게 짜여 있다는 점이다.



## 53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

1971년 / 국사편찬위원회 / 702면 / 13.10-11 국51조 1972

흔히 말하는 「李朝實錄(이조실록)」이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은 세계 3대 실록의 하나로 꼽힌다. 중국의 명이나 청나라에도 실록이 있지만 각기 250년~300년 정도에 불과하다. 고려실록이 있다고는 하나 실전(失傳)된 상태다.



「朝鮮王朝實錄」은 1971년 12월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축쇄판으로 찍어낸 것이다. 이 실록은 당초 1,500여 권에 색인을 덧붙여 49권으로 압축 인쇄한 것이다. 정사(正史)는 아니지만 「朝鮮王朝實錄」은 역사편찬의 가장 유력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실록이 왕실의 비사(秘史)로서가 아니고 학술연구의 자료로 공개된 것은 1910년 이후의 일이다.

실록 공개의 제2단계로는 1930년~1932년 사이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사진 축쇄판 30부를 만들어 당시 일본의 국공립대학 도서관에 배포한 일이 있다. 제3단계는 1946년 실록의 보급판 출판을 시작하였는데 경성제국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인본을 2분의 1 크기인 국판(菊版)으로 축소해서 태종실록 26권까지 완료했을 때 6·25 전쟁이 터져 중단되었다.

전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으며 「朝鮮王朝實錄」 연구의 제1인자로 알려진 未松保和(스에마쓰)는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 학습원(學習院) 원장으로 재직시 동양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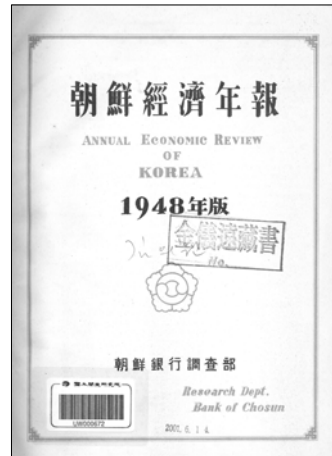
이름으로 『朝鮮王朝實錄』을 수백 질 인쇄하여,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구매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는 얘기를 『靑丘史草(조선의 역사)』란 이름의 책에서 밝힌 바 있다. 그후 스에마쓰 교수는 자기 친구가 모택동을 만나러 간다가에 얘기를 했더니 모택동이 200질을 팔아 주어 출판비를 갚았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다.

필자가 1970년대 초 작고한 전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千寬宇)에게 『李朝實錄』을 읽고 싶는데 어떡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읽지 말라고만 한다. 일제하에 우리나라 사가(史家) 두 분이 실록을 읽다가 두 분 다 병을 얻어 죽었다는 것이다. 낡은 책을 들추다가 곰팡이가 호흡기를 병들게 했다는 것이다. 3천 자 정도의 한문수업을 마친 1972년 초, 때마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49권의 『朝鮮王朝實錄』이 출판되었는데, 보니 구독점(句讀点)이 찍혀 있어 해독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7년쯤 걸려 필요한 대목을 간추려 『韓國國土開發史研究』 집필에 큰 보탬이 되었었다.

54 朝鮮經濟年報(1948) 조선경제연보

1948년 / 조선은행 조사부 / 880면 / 10.10-17 조53조 1948

이 책은 1948년 7월에 당시 조선은행(한국은행 전신) 조사부에서 발행한 880면의 방대한 자료다. 해방 직후라 종이의 질은 나쁘지만 그런대로 볼 만한 내용이 많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선 처음 나온 경제연보인 만큼 해방 전 또는 해방 당시의 여러 가지 통계가 수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특히, 후일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장기영(張基榮)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金正濂) 및 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송정범(宋正範) 등이 당시 실무자로 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내용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해방에서 1948년 정부수립까지의 이른바 미군정(美軍政) 기간의 경제 실태를 수록하고 있다. 제2부는 경제계의 중요 메모와 관계 법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3부는 각 부문의 경제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통계가 있다. 첫째로 1910년~1946년까지의 우리나라 광종별(鑛種別) 생산량과 가격 일람표이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1910년~1945년까지의 연도별 광산물 총액 및 대일수출액(對日輸出額) 조사표다. 또한 1909년~1945년까지의 금 생산량과 조선은행을 경유한 일본에의 수출량 통계도 있다.

이밖에 해방 후의 이른바 토지개혁문제를 무게 있게 취급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내용인즉, 반봉건적 토지소유 성립과정의 특질 운운하면서 다분히 좌경적인 논리가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방 직후의 토건계(건설업계) 동향을 보면 해방 당해년의 미군공사가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1947년 현재 우리나라(남한)의 도로연장은 1만 5,265km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연감에는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1947년 5월까지의 해외여행자 수는 총 109명, 이 가운데 미국으로 간 사람은 59명이고 그 중 유학으로 간 사람은 17명에 불과하다. 한편 1946년도 정부예산은 118억 원이었고, 1947년도는 177억 원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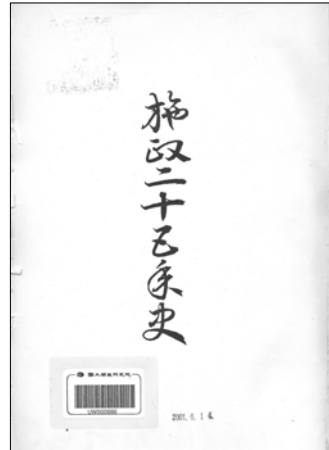
1946년 1월부터 1948년 1월, 즉 2년 간의 월별 북한동포의 남하 통계도 재미있다. 이밖에 이 연감은 일간신문사의 사설제목과 논설제목이 실려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55 施政二十五年史 시정 25년사

1934년 / 조선총독부 / 986면 / 14.10-09 조53시 1935

施政三十年史 시정 30년사

1960년 / 조선총독부 / 1,097면 / 14.10-09 조53시 1960



**조** 선총독부에서 1934년에 출간한 책이다. 1910년~1934년까지 25년 간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다. 본문이 986면인데 여기에 1904년~1934년까지의 시정일지(施政日誌), 127면의 도표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1,168면의 방대한 책자다. 도표는 분야별 통계를 도표로 표시한 것이고, 사진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민속 관련 사진이 많다.

이밖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일지가 55면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합병 이전인 1904년~1934년까지 30년 간의 일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 1904년 10월 17일 - 육군대장 長谷川好道(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조선군 사령관으로 경성에 도착하여 대관정(大觀亭)을 관사로 사용했다.
- 1905년 5월 28일 - 1905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경부선 철도 준공식은 경성에서 거행.
- 1907년 8월 1일 - 7월 31일 한국 황제폐하는 군대 해산의 명령을 발하고 8월 1일

훈련원에서 해산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군인 중 폭동을 일으킨 자가 있었다. 폭도들은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그후 지방 각지에서 해산병 중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끊이질 않았다.

- 1907년 8월 16일 - 일본 황태자(후의 大正천황)가 천황의 명에 따라 한국 견학을 위해 육군대장 桂太郎(가쓰라 타로), 해군대장 東郷平八郎(도고 헤이하치로) 및 岩倉具視(이와쿠라 토모미) 공작, 花房(하나부사) 남작을 동반하고 8월 10일 동경을 출발, 13일 吳軍港(구래군항)에서 4척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인천항에 도착, 영접 나온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황태자 이은(李垠) 전하의 영접을 받고 악수를 교환했다.
- 1908년 8월 26일 - 한일양국은 법률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법(東洋拓植株式會社法)’을 공포하고 자본금 1천만 엔으로 같은 해 12월 28일에 회사를 설립하였다(이 회사는 명동에 있던 구 내무부 청사가 본사이며 일제하 우리나라 착취의大本산이었다).
- 1909년 9월 4일 - 간도에 관한 청·일간의 조인으로 도문강이 청나라와 한국의 국경임을 확인하였다.

『施政三十年史(시정 30년사)』는 1935년~1939년까지의 기록인데 전편 404면은 『施政二十五年史(시정 25년사)』의 요약이고, 후편 527면이 5년 간의 기록이다. 여기도 66면의 연표(年表)와 100여 장의 사진이 이채롭다.

## 56 京城府史<sup>경성부사</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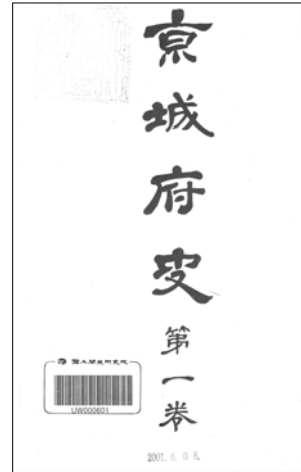
1934년 / 경성부 / 각 791면, 1,121면, 1,017면 / 14.10-11 경 1941

『京城府史(경성부사)』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사, 즉 서울의 역사란 뜻이다.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은 태고 시대부터 일본의 통감정치 개시 이전 해인 1904년까지의 기록으로 791면이다. 제1권은 1934년에 당시의 경성부(서울시)가 발행한 것이다. 출판 당시는 대단히 호화롭게 제본을 했는데 당시 조선총독과 박영효의 휘호와 많은 사진이 들어 있다.

1927년에 부사(府史=市史) 편찬을 기획하고 그해 7월에 당시 경성제국대학 교수인 小田省吾(오타 쇼고)와 中樞院(중추원), 촉탁인 尹喜求(尹喜求)를 고문으로 모시고 안규응(安奎應)과 일본인 岡田(오카다)를 촉탁으로 임명하고 고용원 2명을 배치하여 작업을 개시했다. 편집위원으로는 한국인 芮宗錫(芮宗錫)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작업에 이병도(李丙燾) 박사가 참여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작업을 하는 데 오타(小田) 경성제국대학 교수는 많은 자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京城府史』는 단순히 서울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무대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작업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고(古) 기록은 모두 섭렵하다시피 하여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이란 명칭의 변천사





를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北漢山 백제시대의 호칭
- ② 北漢城 백제시대의 호칭
- ③ 北漢山郡 고구려시대의 호칭
- ④ 南平壤 고구려시대의 호칭
- ⑤ 新州 신라 24대 진흥왕 14년
- ⑥ 北漢山州 진흥왕 18년 신주(新州)를 폐하고
- ⑦ 南川州 진흥왕 29년 북한산주를 폐하고
- ⑧ 漢陽郡 신라 35대 경덕왕 14년
- ⑨ 楊洲 고려 초기의 명칭
- ⑩ 南京 고려 15대 숙종 6년
- ⑪ 漢陽府 고려 25대 충렬왕 34년
- ⑫ 漢城府 이조 태조 3년
- ⑬ 京城府 1910년 10월 1일 일본제국

제2권은 1905년~1914년까지 10년 간의 기록인데 1,121면의 방대한 분량이다. 제3권은 1914년~1940년, 즉 태평양전쟁 발발 1년 전까지의 26년 간의 기록이다. 3권의 분량도 1,017면에 달한다. 이 책이 기본적으로는 일제 식민사관에 따른 기술이겠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통해 이면(裏面)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는 크다.

## 57 日本土木史 일본토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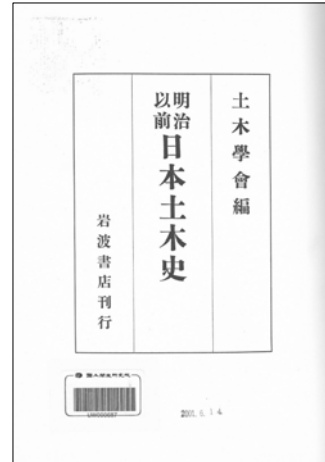
1권 1936년, 2권 1965년, 3권 1973년 / 토목학회 / 총 3권 5,500면 / 04,40-06 토35일

『日本土木史(일본토목사)』는 전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명치 이전 토목사, 즉 1911년 이전의 토목사인데 이 책은 1936년 6월에 초판이 나왔다. 이 작업을 위해 일본 토목학회에서는 1932년에 명치 이전 일본 토목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일본에는 『明治工業史(명치공업사)』 중에 ‘토목편(土木篇)’이란 기록이 있었을 따름인데 이 작업을 위해 구 영주(領主)와 지방의 권세가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다. 그러나 참고문헌을 보면 일본에는 토목에 관한 많은 방계기록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권은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 제1편 - 하천, 운하, 사방
- 제2편 - 개간, 간척, 매립, 관개, 배수
- 제3편 - 항만, 항로, 항로표지
- 제4편 - 도로, 교량, 관소(關所, 검문소)
- 제5편 - 도시 조영
- 제6편 - 성곽



제7편 - 수도

제8편 - 측량

제9편 - 토목 행정

제10편 - 시공법

이 책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수백 년 전의 하천 공사나 개간사업 등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수공법이 많은데 이들 공법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대단히 많다.

제2권은 1912~1940년까지의 기록이다. 이것은 1965년에 출간되었는데 특히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한 토목사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조선의 하천사업, 항만수축, 조선의 간척, 조선의 도시계획과 지방계획, 조선의 도로 및 조선의 철도 등이 그것이다.

제3권은 1941년~1965년까지의 기록인데 1973년에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토목사업이 기록되어 있다.

『日本土木史』는 총 3권 5,500면의 방대한 자료인데 필자가 구입에 쓴 비용이 130만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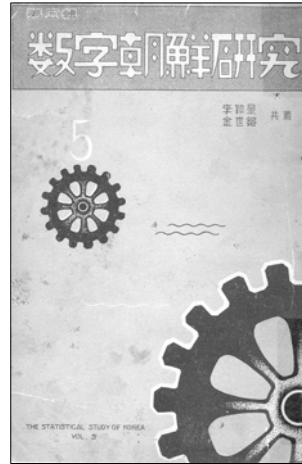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초빙했다. 그들은 토목기술뿐만 아니라 토목행정과 토목교육제도도 그들 나라를 본떠 일본의 제반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명치 초기에는 유학 갔던 학생들이 돌아와 일본의 토목기술 발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58 數字朝鮮研究 수자조선연구

1933년~1935년 / 이여성(李如星)·김세용(金世鎔) / 14,10-09 이64수

이 책은 1933년~1935년 사이에 1~5집까지를 펴내었고 이여성(李如星)과 김세용(金世鎔) 두 사람의 공동저서다. 김세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여성은 「弱小民族運動(약소민족운동)의 전망」, 「아일랜드의 민족운동」 등의 책을 내었는데 특히 「약소민족운동의 전망」은 인도, 베트남, 이집트, 필리핀, 유태 및 흑인 등 세계 중요 약소민족의 현지를 순방하고 쓴 책이다.



「數字朝鮮研究(수자조선연구)」는 제5집까지 출간되었는데, 말하자면 식민통치하의 가려지고, 어둡고, 가난하고, 못 사는 우리네 사정을 숫자로 밝히려는 데 본 뜻이 있는 것 같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조선은 정치적 특수지역인 만큼 통계에도 이중성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일제의 엄한 검열 탓인지 “차간(此間) 13行(행) 略(략)”이라던가 “이하 5행 생략”이란 것이 많이 보인다. 또한 이 책을 엮어내는 데는 친우 고재욱(高在旭)의 많은 원조가 있었다 한다.

1931년 9월 현재 조선의 궁민(窮民) 현황을 보면 도별로는 충청남도가 주민의 65%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전라북도는 36%로 2위이며, 충북과 전남은 30%로서 3위요, 경북, 경기, 함남은 각 26%, 평남은 20%, 평북과 강원은 18%, 경남 15%, 황해도 14%의 순이다. 이것을 다시 분석하면 조선의 총 궁민수는 543만 9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겨우 연명해 가는 궁민의 수가 412만 명이다. 이 가운데 남의 긴급구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104만 8천여 명이고 결인(乞人)이 13만 6천 명에 달하고 있다. 결인은 1926년에 1만 여 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5년 후인 1931년에 16만 3,753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전 인구의 0.8%를 점하였다 한다.

1930년 10월 1일 국세조사에 의하면 문맹률이 76%로 되어 있으나 저자는 약 80%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제4집에는 해외 유학생 통계가 있는데, 1931년 현재 해외 유학생 총수는 4,500 명이고, 이 중 일본 유학생이 3,639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위가 미국 유학생으로 11%에 해당하는 493명이고, 중국 유학생은 8%에 해당하는 368명에 불과하다. 일본 유학생의 전공을 보면 법학이 1위, 문학이 2위, 경제학이 3위다.

제5집 말미에서는 우리나라 도시발전의 한계를 열거하고 있는데, 철도보급 이전에는 타당한 것 같았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들어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 59 台灣地區綜合開發計劃概要 대만지구종합개발계획개요

1979년 /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 28면 / 02.10-07 형 1979

**대**만은 일본이 청일전쟁의 결과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은 땅이다. 당초 대만을 FORMASA라고 했는데 이는 스페인 탐험대가 지나가면서 하도 경치가 좋아 한 말, 즉 스페인말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이다.



대만은 우리보다 15년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대만총독부의 법적 지위는 우리나라와 달랐다. 즉 총독은 우리나라가 육군대장으로 보(補)하는 대신 대만은 해군제독으로 임명했다. 조선총독은 내각총리대신 소속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천황 직속인 측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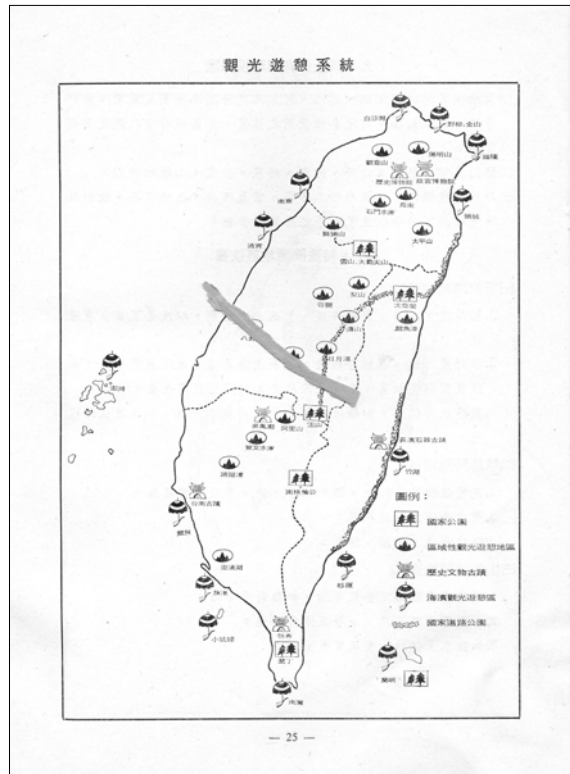
조선총독은 제령권(制令權),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대만총독은 법령 제정권이 없었다. 또한 조선총독은 예산편성권이 있었는데 대만은 그렇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만은 우리와는 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었으나 해방은 우리와 같이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광복 후 몇 년 안 되어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蔣介石(장개석) 정권이 대만으로 옮겨감으로써 대륙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장개석이 이끌고 간 대륙파와는 민족도, 문화도 다른 처지였으나 얼마 전 선주민 측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또다른 일종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면적은 약 3만 5천km<sup>2</sup>로서 우리나라(남북한)의 6분의 1 수준이고 남한의 3분

의 1에 해당한다. 인구는 대단히 조밀하여 1977년 현재 1,700만 명 규모이나 계획목표연도인 1996년에는 2,235만 6천 명으로 잡고 있다. 한편 도시인구는 1977년의 66.3%에서 1996년의 목표연도에는 83%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은 기간 중 318만 4천 호를 건설할 계획인데 정부가 23.6%를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76.4%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업구조는 1977년 현재 농업 12.1%, 공업 45.7%, 서비스 및 교통운수업이 42.2%인데, 1996년에는 농업을 3.9%로 낮추고 공업은 55.3%로 확대하는 반면 서비스 및 교통운수업은 40.8%로 줄인다는 것이다.

권역(圈域)은 북부구역과 중부구역, 남부구역 및 동부구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대만국토계획에서 특이한 것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전 국토에 해안선에서 4km 구간을 개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60 이스라엘 國土基本計劃 이스라엘 국토기본계획

1968년 / 건설부 국토계획과 / 197면 / 02.10-08 권53이 1968

「이」 스라엘 國土基本計劃(이스라엘 국토기본계획)」은 1964년 이스라엘 내무부 계획국에서 발간한 「The Israel physical plan」을 기본으로 하고 1967년 이스라엘 내무부 계획국에서 발간한 「Physical Master Plan of Jerusalem (ASHDOD Region)」과 1966년에 내무부 계획국에서 발간한 「Physical Master Plan of the Northern Negeve」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지질구조와 변화무쌍한 기후로 유명하다. 또한 다른 특징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 끊임없는 이민자 유입과 광범위한 농촌개척사업, 사막의 개발이다. 더욱 이들 개발사업은 민간자본보다 정부자금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토의 약 90%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스라엘은 협소한 국토에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농토가 빈약할 뿐 아니라 특히 물 부족이 큰 문제였다. 이스라엘은 사회주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 계획가들이 부딪히는 시련이 대단히 컸다. 이스라엘은 동쪽 지중해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도상으로는 북위 33° 15~29° 30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약 2만km<sup>2</sup>로서 우리 남한의 5분의 1 정도이며, 북으로는 레바논 국경에서 남으로는 홍해(紅海)까지 410km에 이르는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이하다.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의 5개월 간인데 강수량은 사막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계속적으로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대단히 적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강은 요르단강이다. 그 길이는 140마일이나, 이스라엘 영역에 속하는 것은 73마일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에서의 물 공급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천(泉)이나 강물(江水), 둘째는 지하수, 셋째로 홍수(洪水)다. 천이나 강물은 연간 9억 2,100만<sup>m</sup>를, 지하수는 6억 3,800만<sup>m</sup>를, 그리고 홍수가 8,500만<sup>m</sup>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물과 관개용수의 재활용 용수가 연간 1억 2,600만<sup>m</sup>나 되었다.

이스라엘의 수자원개발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른다. ① 소비용수의 극대량의 집결, ② 저수지의 건설, ③ 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으로의 물의 이동이 그것이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2차대전 후 사막을 녹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 중의 하나(다른 하나는 한국)라고 UN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61 京城都市計劃書概要 경성도시계획서개요

1930년 /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 259면 / 08.10-01 조53경 1930

京城府都市計劃要覽 경성부도시계획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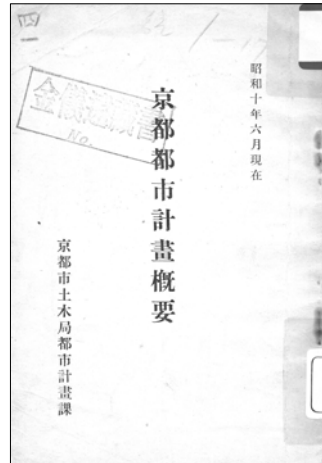
1938년 / 경성부 / 119면 / 02.10-20 경53경 1938

京城風致地區指定資料調查書 경성풍치지구지정자료조사서

1938년 / 경성부 / 65면 / 02.30-22 경53경 1938

大京城座談會速記錄 대경성좌담회속기록

1938년 / 경성부 시계획연구회 / 41면 / 02.10-20 경53대 1938



1930년에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에서 발간한 「京城都市計劃概要(경성도시계획

개요)」는 259면으로 1936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법정계획에 앞서 시구개정(市區改正)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시계획이다. 계획기간은 1929년~1959년까지의 30년 계획이었다. 내용은 도시계획구역과 지역, 지구제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계획과 상하수도과 공원 등 위생시설을 담고 있다.

1938년에 발행한 「京城府都市計劃要覽(경성부도시계획요람)」은 1936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 적용 후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1:25,000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 내용은 44면에 불과한데 도시계획자료가 118면이나 첨가되어 도합 162면인 책이다.

경성부(서울시)는 경성부 도시계획조사위원회와 토지구획정리 상담회 및 토지구획정리, 토지평가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였고 이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했다.

『京城風致地區指定資料調査書(경성풍치지구지정자료조사서)』는 1938년에 경성부가 발행했는데 부피는 64면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獨立古木(독립고목)’이라 해서 210여 본의 고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수령 600년 짜리도 수두룩하다. 특히 조선총독부 지정 나무가 5본 있는데, 이는 전부 백송(白松)이다. 210여 본의 수목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1:25,000지도에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임야공원, 묘지, 채석장 등이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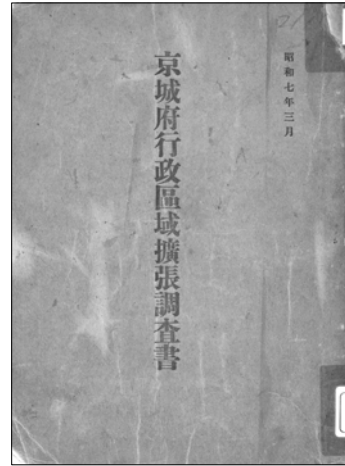
1938년 10월에 경성부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도시문제회의는 일본을 비롯한 만주 등지에서 1천 여 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것을 계기로 경성도시계획연구회(京城都市計劃研究會)는 경성부윤(시장)을 비롯한 경성제국대학, 鈴木武雄(스즈키 다케오) 교수, 총독부 내무국장, 경성 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지사, 大阪(오사카)와 大連(대련) 및 만주에서 온 행정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경성의 미래를 논하였는데, 『大京城座談會速記錄(대경성좌담회속기록)』은 주로 대륙침략정책상 서울의 위치와 위상을 집중적으로 토론한 기록이다. 대륙정책의 중심이 경성이라 전제하고 경인운하(京仁運河)계획까지 들먹이고 있다.

62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查書 경성부 행정구역확장 조사서

1932년 / 경성부 / 168면 / 14.10-11 경 1932

京城府土木事業概要 경성부 토목사업개요

1938년 / 경성부 / 94면 / 14.10-11 경1938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查書(경성부 행정구역 확장 조사서)」는 1932년에 출간한 168면의 보고서다. 편입대상은 한지면(漢芝面), 송인면(崇仁

面), 북면(北面), 용강면(龍江面) 및 연희면(延禧面)의 16개 리(里)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우리만치 먼 옛날의 처사처럼 들린다. 이를테면 편입될 곳이 지금의 신당동, 이태원동, 보광동, 동빙고동, 서빙고동 등이며 송인면의 경우는 지금의 신설동이고, 북면은 지금의 흑석동, 본동, 노량진동이며, 용강면은 신공덕동, 공덕동, 아현동이 포함되어 있고, 연희면의 경우는 북아현동이 편입대상이었다.

행정구역 편입을 위한 기초작업이 수십 가지 종류의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아동들의 통학자 수와 토지의 조세등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수로는 1만 4,631호(1931년 말 현재)에 인구는 6만 9,845명과 552만여 평이 경성부로 편입되게 된다.

「京城府土木事業概要(경성부 토목사업개요)」는 1938년에 경성부가 발행한 94면의 일종의 통계집이다. 내용은 1910년~1937년까지 27년 간 실시한 토목사업의 내역이다. 한일합병 이후 1937년까지 연도별 토목사업비(예산)와, 가령 도로의 경우 노선별 공사

비가 전부 기록되어 있다. 또한 권말에는 1 : 15,000 지도에 서울의 하수도 개수상황이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수지도도 별기되어 있다. 이 책에는 고산자(古山子) 선생이 그렸다는 ‘수선전도(首善全圖)’가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로의 종류별 표준단면도가 첨부되어있다. 이 책에서 특징적이고 재미있는 것은 당시의 도선장(渡船場) 나룻배 요금 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                   |       |
|-------------------|-------|
| • 대인 (만 15세 이상)   | 3전(錢) |
| • 소인 (만 9세~15세까지) | 2전    |
| • 인력거             | 10전   |
| • 빈 인력거           | 7전    |
| • 소달구지            | 13전   |
| • 빈 소달구지          | 10전   |
| • 새끼소달구지          | 7전    |
| • 짐 실은 우마차        | 30전   |
| • 자전거             | 5전    |
| • 자동차             | 50전   |
| • 4인교             | 30전   |
| • 오토바이            | 10전   |
| • 트럭              | 60전   |

63 大邱府史<sup>대구부사</sup>

1943년 / 대구부 / 785면 / 14.10-22 대15대 1943

仁川府史<sup>인천부사</sup>

1932년 / 인천부 / 1553면 / 14.10-23 인 1933

全州府史<sup>전주부사</sup>

1943년 / 전주부 / 1025면 / 14.10-35 전 1943

木浦府史<sup>목포부사</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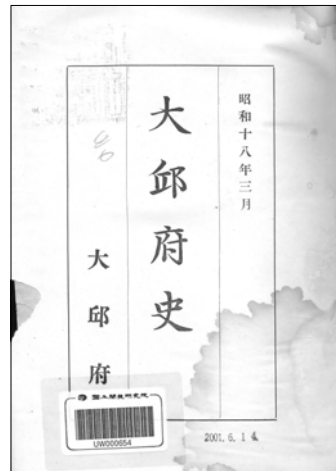
1930년 / 목포부 / 1,082면 / 14.10-36 목 1930

群山府史<sup>군산부사</sup>

1986년 / 군산부 / 318면 / 14.10-35 군51군 1986

釜山府史原稿<sup>부산부사원고</sup>

1984년 / 부산부 / 면수복잡 / 14.10-21 부51부 1984



이 들 부사(府史)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사(市史)다. 「大邱府史(대구부사)」는 1943년에 발간한 것인데 그 구성은 연혁편, 부정(府政)편과 특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은 785면의 방대한 분량이다. 대구시는 신라 때부터 알려진 큰 도시인데 「日本書記(일본서기)」에 기록된 것이 1,700년 전이라 한다. 당시의 대구시장은 1935년부터 조선총독부 편수관인 稻葉(이나바)에게 자문을 받는 등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사 편찬에 있어서는 당시의 경성제국대학의 未松保和(스에마쓰)

교수와 藤田 策(후지다) 교수를 주임으로 해서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제3편에서는 대구의 지석(支石) 및 고분과 대구의 지명에 관한 고찰이 첨가되어 있다.

『仁川府史(인천부사)』는 1932년 12월에 출간했는데 그 분량은 1,553면에 달한다. 인천은 우리나라 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도 많고, 자료도 많다.



『全州府史(전주부사)』는 1,400여 년 전 후백제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조선조(朝鮮朝) 발상의 영지로서 널리 세상에 알려져 있다. 편집내용이 향토지(郷土誌)로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삼국시대에서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재해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木浦府史(목포부사)』는 1930년에 발행된 것이다. 해방 후 어떤 출판사에서 복사, 출판한 것인데 총 분량은 1,082면에 달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말미에 ‘여담일속(餘談一束)’이라 하여 목포지방에 떠돌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개항 전 구한말에 당시 무안군수가 일본인에게 삼학도를 100엔에 불하했다가 도로 물리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群山府史(군산부사)』는 1935년에 출간했던 것인데 1986년 부산소재 민족문화사에서 복간한 것이다. 분량은 318면이다.

『釜山府史原稿(부산부사원고)』는 100질 한정판으로 일제강점기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출간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분량은 원고만 6권(3,600여 면)이나 된다.

상기한 이들 부사는 해방 후 각 도시 시사편찬의 기초가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平壤府史(평양부사)』와 『咸興府史(함흥부사)』 등을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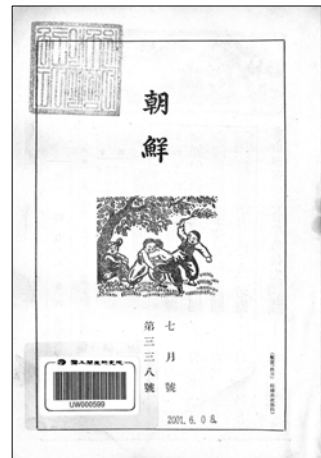
64 月刊「朝鮮」總目次 월간「조선」총목차

1943년 / 조선총독부 / 12.10-04 조53잡 1943

**월** 간「朝鮮」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다. 1911년 6월호부터 1915년 2월호까지는「朝鮮總督府 月報(조선총독부 월보)」라 했고, 1915년 3월호부터 1920년 6월호까지는「朝鮮彙報(조선회보)」라 했다. 1920년 7월호부터「朝鮮」이란 이름으로 193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朝鮮」은 조선총독부 기관지로서 25년 간 지속되었다. 필자는 국토개발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식민지하의 우리나라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던 중 조선총독부 기관지인「朝鮮」이란 잡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25년 간 간행된 300권의 책을 일일이 뒤져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총 목차를 탐문하던 중 동경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자료는 1982년에 동경에 있는 친구 김해곤(金海坤) 사장에게 부탁해서 복사해 온 것이다.

일본인들도 총 목차의 필요를 느꼈음인지 총목차는 한일합병 다음해인 1911년부터 1935년까지 27년 간의 글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는 ① 통치에 관한 글, ② 행정, ③ 체신, ④ 경찰, ⑤ 사법, ⑥ 교통, ⑦ 재정, ⑧ 경제, ⑨ 금융, ⑩ 농업, ⑪ 임업, ⑫ 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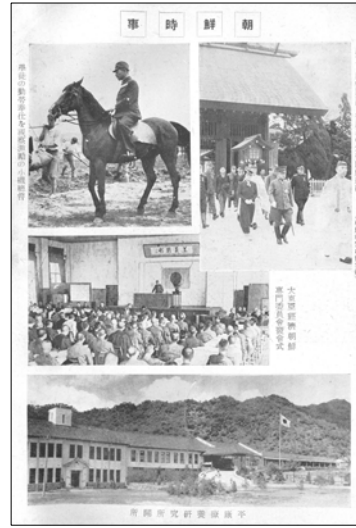


업, ⑬ 광업, ⑭ 상공업, ⑮ 교육, ⑯ 역사, ⑰ 지리, ⑱ 종교, ⑲ 기행문, ⑳ 동식물, ㉑ 잡기 등이다.

한편 1913년부터 1937년까지는 월별로 목차를 수록하고 있다. 글의 내용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가령 이완용(李完用)이 쓴 ‘토지조사를 마치고’라는 글도 있고, 1923년 10월호에는 ‘압록강교량, 조선호텔, 경성역사 건축에 관하여’라는 글도 있다. 1926년 4월호에는 ‘경성제국대학의 규모, 조직과 특색’이란 논문도 있다. 1923년 7월호에는 ‘百(백)자를 이름 또는 號(호)로 사용한 이조의 인물’이란 이색적인 논문도 실려 있다.

그런가 하면 1931년 6월호에는 ‘조선에 있어서의 지진의 기록’이란 논문도 있다. 1917년 9월호에는 ‘이조 500년 간에 있어서의 모범적인 돌다리’라는 글도 실려 있다. 1916년 12월호에는 ‘조선 최고(最古)의 지리서에 관하여’란 논문도 있고, 1921년 4월호에는 ‘조선의 지도에 관하여’라는 글도 보인다. 또한 1926년 11월호에는 ‘조선의 옛날 地學’이란 논문도 있다. 1923년 11월호에는 ‘조선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이란 關野(세키노) 박사의 글도 실려 있다.

어쨌든 이 목차는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당장에 본문을 찾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 65 日韓の古地名研究 일한의 고지명 연구

1985년 / 金澤庄三郎(가나자와 쇼사부로) / 508면 / 12.10-11 금882일 1985

이 책의 저자인 金澤庄三郎(가나자와 쇼사부로) 박사는 1872년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제3고등학교를 거쳐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했다. 동양어학(東洋語學)의 비교연구에 뜻을 두고 대학 재학 중에 북해도로 건너가 아이누어를 연구했다. 그 성과는 『아이누어 회화사전』이란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1896년 대학을 졸업한 후 문부성 제1회 동양 유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고, 3년 간 조선어 연구에 전념했다. 그후 문부성 국어조사회 위원으로서 유구(琉球)에 파견되어 남도(南道)의 언어를 연구하기도 했다. 이어 1913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러시아령(嶺) 시베리아와 만주, 몽고 각지를 순방하면서 러시아어, 만주어와 몽고어를 연구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어와 인도어를 연구하여 이른바 ‘동양어학’의 기초를 다졌다.

金澤(가나자와) 박사는 그동안 동경제국대학을 비롯하여 동경외국어학교, 국학원대학, 구마자와대학(駒澤大學) 및 쓰루미여자단기대학(鶴見女子短期大學) 등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며, 1967년 95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의 2부에는 ‘일한동조론(日韓同祖論)’이 있다. 이것은 가나자와가 1929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당시 저자를 유명하게 한 논문이다. 가나자와의 동조론은 민족사적 입장에서 연구가 아니고 언어를 통한 같은 뿌리란 점에 특징이 있다. 옛날의 조선은 문명



국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일본 고대문명의 많은 부분이 조선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언어의 측면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고대지명 가운데 조선말 계통의 지명을 고대 조선말과 내외 사서(史書)를 인용하면서 해명하려 했다.

‘동조론(同祖論)’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일제강점시 일본은 육당 최남선 선생을 만주에 있는 건국대학 교수로 임명하고 ‘일한동조론’을 증명하라는 과제를 준 적이 있다. 우리와 일본은 같은 뿌리가 아닌데 이것을 증명하라니… 이에 선생은 기가 막혀 연구를 거절하고 교수직을 그만둔 일이 있다.

제3부는 1949년에 작성한 논문인데 ‘지명의 연구’라 하여 한일 지명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의 여러 나라 언어에 관한 연구를 집성한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은 한일 고지명 연구에 있어서는 금과옥조와 같은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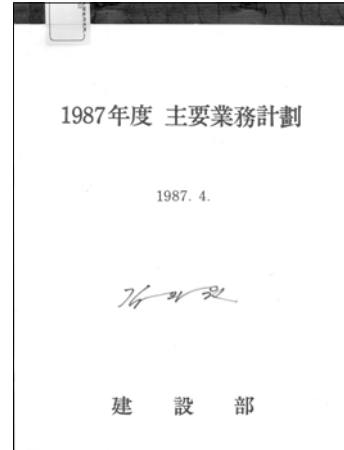
## 66 業務現況(1981, 1982) 업무현황

1981년, 1982년 / 건설부 / 01.10-03 건53업

## 主要業務計劃(1981, 1983, 1985, 1986, 1987)

주요업무계획

1981~1987년 / 건설부 / 01.10-03 건53주



「**業**務現況(업무현황) (1982)」은 1983년의 국회예산심의자료로서 10월 말 현재 건설부

업무현황으로 작성된 것이다. 내용은 총 80면으로 ‘일반현황’, ‘1982 주요사업 추진실적’, ‘1983 계획’, ‘법률안 개요’, ‘198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83 예산안 개요’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안)」 제정 이유와 중요 골자가 기록되어 있다. 첫째 권역의 지정은 ① 이전촉진권역, ② 제한정비권역, ③ 개발유도권역, ④ 자연보전권역, ⑤ 개발유보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밖에 법(안)은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전지에 대한 지원과 인구영향 평가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主要業務計劃(주요업무계획) (1983~1987)」은 당시 대통령 연두순시 때 보고한 업무계획이다. 이 계획서에는 ‘198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8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기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첫머리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고, 이어 11가지 특기사항이 있는데, 그 중 공무원들의 자가운전에 대한 실시계획이 있다. 1982년부터 공무원 자가운전을 실시했는데 1983년에는 7명이 목표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때 컴퓨터 보유 현황을 보면 건설부 30대, 산하 국영기업체 및 국토연구원과 해외건설협회를 합하여 72대 등 도합 102대였는데, 가동률이 얼마였는지는 기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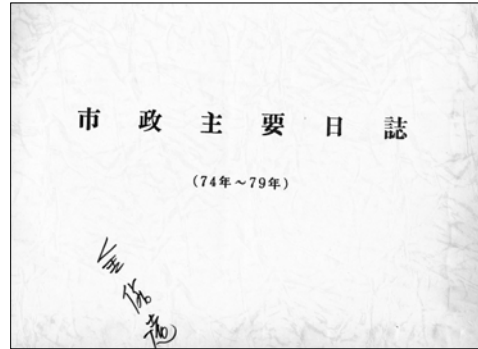
『主要業務計劃(주요업무계획) (1985)』 역시 첫머리에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총 105건 중 85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것이 20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5년도 계획서의 특징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을 겪은 영향인지 에너지 절약 계획이 보인다.

1986년도 업무계획 역시 일반현황에 이어 대통령지시 실천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지시사항 123건 중 조치완료된 것이 107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6건으로 되어 있다. 이 계획서에도 제5공화국의 중요치적, 1980년~1985년까지의 6년 간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主要業務計劃(주요업무계획) (1987)』에는 1980년~1986년까지 지난 6년 간에 바뀐 국토상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1987년까지였으니까 재임시의 치적을 정리하는 데 온갖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 67 市政主要日誌 (1974~1979) 시정주요일지

1974~1979 / 서울특별시 / 117면 / 01.10-04 서67시



이 자료는 1974~1979년까지 6년 간 서울시의 행사 중심 기록이다. 기록을 분류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외교사절(대사)들의 신임인사차 방문과 이임(離任)인사차 방문이 많다는 점이다. 다음은, 매년 있는 행사로서 매년 연초에 있는 대통령의 연두순시 기록이다. 이 기록 가운데 1977년 2월 10일 기록에는 오전 10시 30분~13시 30분까지 대통령이 3시간 머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점심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기록에는 없지만, 대통령은 이날의 연두순시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발언을 했다. 즉 '임시행정수도건설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1976년 건설부장관과 필자를 불러 놓고 임시행정수도건설 구상을 밝히면서 빨리 후보지를 골라 보고하라 지시를 한 후, 건설부에서 두 번에 걸쳐 중간보고를 한 다음이었다. 또한 이 기록에는 외국의 시장, 국회의원 등의 방문도 수없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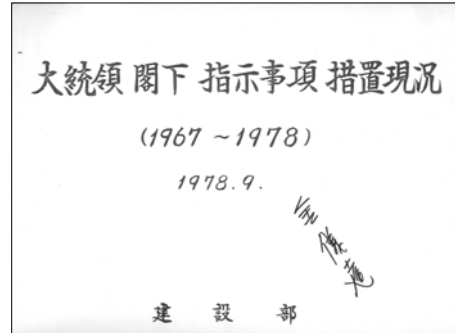
당시 박대통령은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중앙부처 연두순시를 했고, 2월 하순부터 3월 중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연두순시를 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기계적으로 실시했다. 외국인사들의 내방도 상당한 인원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는 각종 공사의 기공식과 준공식이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6년 간의 기록 가운데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특이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74년 6월 10일 낙성대 준공식 거행
- 1974년 7월 4일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 시운전
- 1974년 7월 16일 도시가스 공급 점화식(반포동)
-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29주년 행사(국립극장), 지하철 1호선 개통,  
(육여사 서거)
- 1974년 9월 11일 시영버스 폐지(매각)
- 1974년 11월 22일 미국대통령 환영
- 1975년 11월 20일 양화교 건설공사 준공
- 1975년 12월 23일 대통령각하 하사금 전달
- 1976년 3월 31일 성수대교 가설 계획
- 1976년 4월 24일 팔당 100만 톤 수원지 기공(건설부 소관임)
- 1977년 3월 19일 남산 3호 터널 관통(1,270m)
- 1978년 3월 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기공('78-'85)
- 1978년 4월 1일 한강 대청소 실시(17만 명)
- 1978년 4월 14일 세종문화회관 개관
- 1978년 10월 30일 서울대공원 기공식
- 1979년 6월 20일 직행 좌석버스 운행(200대)
- 1979년 6월 27일 양화 폭포시설 준공
- 1979년 6월 30일 미대통령 방한 환영식

## 68 大統領閣下指示事項措置現況 (1967~1978)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조치현황

1978년 / 건설부 / 287면 / 01.20-04 건53대 1978



이 유인물은 1967년~1978년까지 12년  
간 건설부에 대한 박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조치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총 287면의 방대한 분량인데 총괄표를 보면 12년간 총 지시사항은 467건이다. 연평균 39건인데 1973년 같은 해에는 무려 66건에 달하였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면 연두순시 때 지시사항이 61건이고, 서면지시가 89건이며, 구두지시가 317건에 이른다. 구두지시는 반드시 건설부나 건설부 관계관에게 한 것이 아니고 타 부처나 다른 곳에서 생각날 때 한 것이 많다. 지시사항 가운데 흥미로운 것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 제주도 고지대(성판악, 어승생) 용수개발은 완성주의로 할 것
- 낙동강유역조사단 외국인주택 건설하라

1968년

- 국립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 고속도로공사에 공병장교를 활용하라



1969년

- 국토계획을 위한 강력한 기구를 빨리 발족하라
- 대전 및 춘천 공업단지를 연내에 완공하라
- 청주공업단지는 1970년에 완공하라
-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1970년에 완공하라
- 원주공업단지도 1970년에 완공하라

1970년

-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각 도(道)에 시달하라
- 토지이용계획(전국)을 법제화하라
- 접도구역(接道區域) 관리를 철저히 하라
- 공유수면매립면허 미착공분은 취소하라
-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 제주도 우회도로공사를 연내 완공하라

1971년

- 그린벨트 지정을 촉진하라
  - 국토개발을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토록 하라
- ※ 이때 건설부는 국토개발연구원(國土開發研究院)을 설립하겠다고 보고함

1972년

- 서울에 이어 대구와 광주에도 그린벨트 설치하라

1973년

- 춘천, 청주, 대전, 제주, 전주, 울산, 마산, 진주에도 그린벨트 지정하라
- 창원기계공업단지 건설을 촉진하라

- 이리에 수출자유지역을 건설하라

1974년

-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 군수의 교육을 실시하라
-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의 변소관리를 철저히 하라

1975년

- 농경지 보전을 위한 전국 도시계획을 다시 짜라
-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히 하라

1976년

- 낙동강 하구둑(河口堰) 건설을 검토하라
- 안동댐하류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못사는 농민에게 분양하라



본의 개화(開化)에 크게 이바지한 5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했고, 이는 그의 대저인 『일본』이란 책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편 朝鮮(조선)

제1장 일본 해안에 표류한 조선인으로부터 들은 조선 사정

제2장 조선인, 대마도의 일본 사무라이 및 관원, 부산의 일본 상관에서 들은 정보

제3장 어휘(語彙)

제4장 달조(韃靼) 해안에 표류하여 북경을 거쳐 조선 경유 귀국한 일본인 어부의 조선견문기

제5장 조선의 제도, 관리 및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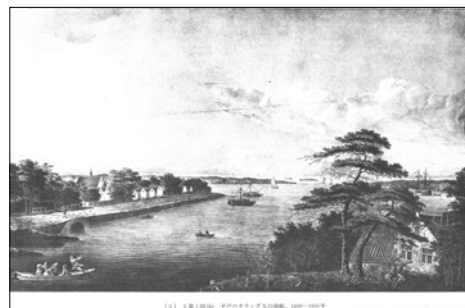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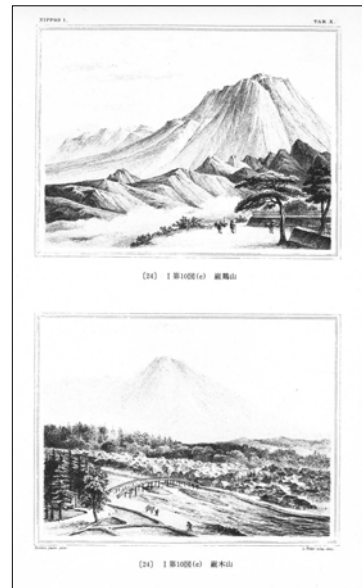
제7장 일본문헌에 의한 조일, 중일관계

제1절 조선 반도사 총설

제2절 일본측 사료에 의한 일본과 조선  
및 중국과의 관계

제8장 千字文(천자문)

시-볼트는 권말(券末)에 천자문(千字文)을 수록하고 있다. 천자문은 AD 285년 백제의 왕인(王仁) 박사가 일본에 전달했다. 시-볼트는 天(テン.アメ.하늘텐), 地(ゲン.クロク.가물현) 하는 식으로 일본문자로는 음(音)과 훈(訓)의 두 가지로 표기하고 우리글로는 한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천자문을 일본어, 조선어, 중국어와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 70 戦後國土政策の檢證 戦후 국토정책의 검증

1994년 / NIRA / 총 2권, 각 권 263면, 423면 / 02.10-08 총91전 1996

이 책은 1994년 일본의 NIRA(종합연구개발기구), 즉 일본의 국토연구원격인 곳에서 발행한 보고서다. 책 이름은 「NIRA연구보고서」로 되어 있으나 부제에 밝힌 바와 같이 「戦後國土政策の檢證」에서 알 수 있듯 2차대전 후 50년 간의 국토정책을 정책담당자로부터의 증언을 중심으로 상, 하 두 권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경제기획청의 小林良文(고바야시 요시부미)의 발의로 동경대학의 小早川(고하야가와) 교수와 일본도시센터의 檜模(히마끼), 국토청 관계관들의 합세로 ‘地域開發制度研究會(지역개발제도연구회)’란 이름으로 1989년부터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책 하권 권말에는 1940년~1994년까지의 일본의 국토정책사 연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지역개발제도연구회’란 조직을 갖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쟁 전 내무성에 있었던 국토국(國土局)의 ‘내정사연구회(內政史研究會)’가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회에는 1963~1977년까지 14년 간에 걸쳐 60명에 가까운 지방국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기록이 있었다. 이 기록은 전쟁 전 일본의 내무관료들의 생태를 아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 上권

서장(序章) 전후 국토정책의 검증과 의의

1장 1절 신전총(新全總) 책정의 배경과 전후 SOC 정비 경위

2절 전후 지역개발 행정의 흐름과 신전총

3절 신전총 책정의 작업경과와 이론구축

종합정리

■ 下권

2장 1절 일전총(一全總)의 성립과정과 지역개발론

2절 전후 국토정책을 둘러싼 시대적 요청

3절 정치가 다나카의 국토정책 사상의 전개

논점정리

3장 1절 일본열도 개조론을 정리한 다나카 내각의 발자취

2절 국토정책과 수도권 정비의 변천

3절 전후 국토정책의 변천과 그 과제

4절 일본의 국토정책의 변천과 열도개조론

논점정리

4장 최종 총괄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하다. 사실 우리는 5·16 혁명 후 종래의 국토종합개발계획법도 사실은 일본 것의 복사였고, 국토계획 자체도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실무자들의 토로는 크게 참고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 책과 유사한 것으로는 1994년 일본경제신문사에서 下河邊(시모카와베)의 인터뷰를 남기기 위한 출판물이 있다. 시모카와베는 1980년 필자의 요청으로 국토청 차관 때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토연구원에서 특강한 일도 있다.

## 71 靑丘史草 청구사초

1965년, 1966년 / 末松保和(스에마쓰) / 910면 / 13.10-11 말55청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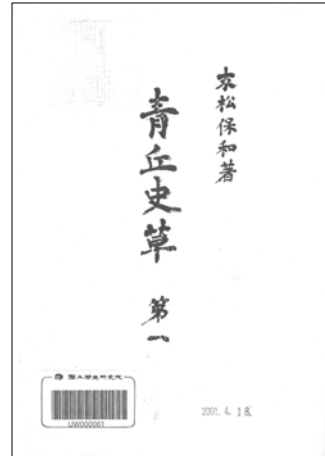
‘청구사초’란 ‘조선의 역사’란 뜻이다. 전 경성 제국대학에 있던 末松保和(스에마쓰 야스가스) 교수의 저술인데 제1권은 1965년에, 제2권은 1966년 일본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을 ‘진서’로 고른 것은 스에마쓰 교수가 『朝鮮王朝實錄(李朝實錄)』 연구의 제1인자

란 점과 제2권에 前間恭作(마에마 교사쿠)에 대한 평전이 17면이나 실려 있기 때문이다.

前間(마에마)는 우리나라에 유학 온 2년 후인 1894년에 일본영사관 서기를 임명받고 인천근무를 명 받는다. 서울 근무를 거쳐 1910년에 호주 시드니 근무를 마치고, 이듬해 다시 한양근무를 명 받아 돌아온 후 조선총독부 통역관으로 근무했다. 1911년에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한말(韓末)에서부터 전후 18년 간의 조선생활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학자로서의 노력도 눈부셨다.

한말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인의 우리나라 고전 기록 빼돌리기 선봉이 바로 이 마에마였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에마는 한말에 423종류 1,700여 권의 책을 수집하여 당시 동경제국대학에 기증했으나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이 불타버려 회진되고 말았다. 좀 구차한 추측이기는 하지만 당시 마에마가 수집한 책 가운데 고산자(古山子) 김정호에 관한 기록이 혹시 들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스에마쓰 교수가 『朝鮮王朝實錄』 연구의 제1인자란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천



관우(千寬宇) 선생에 따르면 『朝鮮王朝實錄』에 관한 한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막론하고 스에마쓰 교수를 따라잡을 권위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朝鮮王朝實錄』을 세계 최대 실록이라고 말한 다음 실록 기록의 사관(史官), 즉 춘추사관제도의 기발성을 찬미하고 있다. 사관의 엄정 중립과 권력(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우월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

## INDEX 찾아보기

---

① 서명으로 찾아보기

② 저자명(발간기관)으로 찾아보기

### **일러두기**

- 색인의 순서는 한글의 자모순이며, 한자나 일어의 경우에는 독음의 자모순으로 정렬하였다.
- 동일한 기관에서 발간하였으나 발간부서가 다른 경우는 별도의 색인으로 처리하였다.
- 원 자료의 제목과 그 음(또는 뜻)이 다른 경우(예: 昭和三十年の朝鮮 / 1955년의 조선) 원 제목의 독음 자모순으로 정렬하였다.
- 일본인명의 경우 본문 서지사항에는 ‘한자(독음)’으로 표기하였으나 색인에는 ‘독음(한자)’로 표기하였으며, 독음의 자모순으로 정렬하였다.

## ① 서명으로 찾아보기

|   |     |
|---|-----|
| 京城都市計劃書概要 / 경성도시계획서개요                     | 130 |
| 京城府都市計劃要覽 / 경성부도시계획요람                     | 130 |
| 京城府史 / 경성부사                               | 120 |
| 京城府土木事業概要 / 경성부 토목사업개요                    | 132 |
|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查書 / 경성부 행정구역확장 조사서             | 132 |
| 京城風致地區指定資料調查書 / 경성풍치지구지정자료조사서             | 130 |
| 經濟開發三個年計劃 / 경제개발3개년계획                     | 31  |
| 國土建設年鑑(1961) / 국토건설연감                     | 88  |
| 國土計劃論 / 국토계획론                             | 21  |
| 國土計劃の基本概念に關する解説 / 국토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해설       | 19  |
| 國土綜合開發の歷史 / 국토종합개발의 역사                    | 35  |
| 群山府史 / 군산부사                               | 134 |
| 今は昔の今なりや / 지금은 옛날의 지금이다                   | 57  |
| 내무행정치적사(토목행정편)                            | 69  |
| 大京城座談會速記錄 / 대경성좌담회속기록                     | 130 |
| 大邱府史 / 대구부사                               | 134 |
| 大統領閣下指示事項措置現況(1967~1978) /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조치현황 | 144 |
| 大韓地誌 / 대한지지                               | 100 |
| 都市計劃白書 / 도시계획백서                           | 37  |
| 木浦府史 / 목포부사                               | 134 |
| 文岩集: 漆室空談 / 문암집: 칠실공담                     | 98  |
| 釜山府史原稿 / 부산부사원고                           | 134 |

## 서명으로 찾아보기

|  |     |
|--|-----|
| 復興白書 / 부흥백서 .....                                  | 92  |
| 北學議 / 북학의 .....                                    | 96  |
| 서울 都市計劃의 過去와 將來 / 서울 도시계획의 과거와 장래 .....            | 39  |
| 昭和三十年の朝鮮 / 1955년의 조선 .....                         | 80  |
| 數字朝鮮研究 / 수자조선연구 .....                              | 124 |
| 水の葉 / 물에 관한 Hand Book .....                        | 11  |
| シーボルト 『日本』 / 시-볼트의 일본 .....                        | 147 |
| 施政三十年史 / 시정 30년사 .....                             | 118 |
| 施政二十五年史 / 시정 25년사 .....                            | 118 |
| 市政主要日誌(1974~1979) / 시정주요일지 .....                   | 142 |
| 安城都市計劃決定案 / 안성도시계획결정안 .....                        | 77  |
| 業務現況(1981, 1982) / 업무현황 .....                      | 140 |
| 旅庵全書 / 여암전서 .....                                  | 104 |
| 英·獨·日の國土計劃 / 영·독·일의 국토계획 .....                     | 112 |
| 永同都市計劃決定案 / 영동도시계획결정안 .....                        | 77  |
| 營造法式 / 영조법식 .....                                  | 63  |
| 外邦測量沿革史 / 외방측량연혁사(전3권) .....                       | 45  |
| 蔚山工業센터—建設을 爲한 技術評價報告書 /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위한 기술평가보고서 · 67 |     |
| 原州都市計劃決定案 / 원주도시계획결정안 .....                        | 77  |
| 月刊『朝鮮』總目次 / 월간『조선』총목차 .....                        | 136 |
| 이스라엘 國土基本計劃 / 이스라엘 국토기본계획 .....                    | 128 |
| 人口調查結果報告 / 인구조사결과보고 .....                          | 65  |

## 서명으로 찾아보기

|   |     |
|---|-----|
| 仁川府史 / 인천부사 .....                               | 134 |
| 日本水土考・水土解辯・増補 華夷通商考 / 일본수토고・수토해변・증보 화이통상고 ..... | 43  |
|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  | 108 |
| 日本土木史 / 일본토목사 .....                             | 122 |
| 日韓の古地名研究 / 일한의 고지명 연구 .....                     | 138 |
| 全鮮名勝古蹟(全) / 전선명승고적(전) .....                     | 106 |
| 全州府史 / 전주부사 .....                               | 134 |
| 戰後國土政策の檢證 / 전후 국토정책의 검증 .....                   | 149 |
| 朝鮮市街地計劃關係法規集 / 조선 시가지계획 관계법규집 .....             | 33  |
| 朝鮮經濟年報(1948) / 조선경제연보 .....                     | 116 |
|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 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 .....               | 17  |
| 朝鮮年鑑(1948) / 조선연감 .....                         | 82  |
| 朝鮮水力調査書 / 조선수력조사서 .....                         | 71  |
| 朝鮮王朝實錄 / 조선왕조실록 .....                           | 114 |
| 朝鮮遊覽歌 / 조선유람가 .....                             | 61  |
| 朝鮮一七個都市 都市計劃 決定書 / 조선 17개 도시 도시계획 결정서 .....     | 75  |
| 朝鮮地誌資料 / 조선지리지자료 .....                          | 13  |
| 朝鮮地誌 / 조선지리지 .....                              | 84  |
|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錄 / 조선총독부 종정의 기록 .....                 | 29  |
| 朝鮮治水治山史考 / 조선치수치산사고 .....                       | 90  |
| 朝鮮土木事業誌 / 조선토목사업지 .....                         | 9   |
| 朝鮮土木行政法 / 조선토목행정법 .....                         | 27  |

## 서명으로 찾아보기

|   |     |
|---|-----|
| 朝鮮土地改良事業史 / 조선토지개량사업사 .....                         | 73  |
|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                     | 23  |
| 朝鮮河川調査書 / 조선하천조사서 .....                             | 94  |
| 朝鮮の國土開發事業 / 조선의 국토개발사업 .....                        | 15  |
| 朝鮮の山水 / 조선의 산수 .....                                | 55  |
| 朝鮮の人口現象 / 조선의 인구현상 .....                            | 65  |
| 朝鮮の聚落 / 조선의 취락 .....                                | 86  |
| 朝鮮の風水 / 조선의 풍수 .....                                | 49  |
| 朝鮮の洪水 / 조선의 홍수 .....                                | 102 |
| 鳥致院都市計劃決定案 / 조치원도시계획결정안 .....                       | 77  |
| 主要業務計劃(1981, 1983, 1985, 1986, 1987) / 주요업무계획 ..... | 140 |
| 中國の科學と文明(土木史) / 중국의 과학과 문명(토목사) .....               | 41  |
| 支那の國土計劃 / 중국의 국토계획 .....                            | 59  |
| 天安都市計劃決定案 / 천안도시계획결정안 .....                         | 77  |
| 靑丘史草 / 청구사초 .....                                   | 151 |
| 淸州都市計劃決定案 / 청주도시계획결정안 .....                         | 77  |
| 太平洋戰下の朝鮮及ひ台灣 / 태평양전하의 조선 및 대만 .....                 | 51  |
| 太平洋戰下の朝鮮 / 태평양전하의 조선 .....                          | 53  |
| 台灣地區綜合開發計劃概要 / 대만지구종합개발계획개요 .....                   | 126 |
| 漢江流域調査報告書 / 한강유역조사보고서 .....                         | 110 |
| 韓國誌 / 한국지 .....                                     | 25  |
| 韓半島 / 한반도 .....                                     | 47  |

## ② 저자명(발간기관)으로 찾아보기

|                  |                       |
|------------------|-----------------------|
| NIRA             | 149                   |
|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 | 138                   |
| 가지야마 아사지로(梶山淺次郎) | 11                    |
| 가토오 히데토시(加藤秀俊)   | 57                    |
| 건설부 국토계획과        | 128                   |
| 건설부              | 110 · 140 · 144       |
| 경성부              | 120 · 130 · 132 · 132 |
| 곤도쇼이치(近藤釗一)      | 51 · 53               |
| 공학사(工學舍)         | 33                    |
| 국사편찬위원회          | 114                   |
| 국토건설청            | 88                    |
| 군산부              | 134                   |
| 김세용(金世鎔)         | 124                   |
| 김유동(金道東)         | 106                   |
| 김의원              | 37 · 39               |
| 내무부              | 69                    |
| 노부오 준페이(信夫淳平)    | 47                    |
| 니시가와 조겐(西川如見)    | 43                    |
| 대장성(大藏省)         | 108                   |
| 대한민국 부흥부         | 92                    |
| 도쿠미츠 노부유키(德光宣之)  | 90                    |
| 모리가와(森川清人)       | 80                    |

## 저자명(발간기관)으로 찾아보기

|                                       |     |
|---------------------------------------|-----|
| 목포부 .....                             | 134 |
|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智順) .....                 | 49  |
| 박제가(朴齊家) .....                        | 96  |
| 발행처불명 .....                           | 77  |
| 부산부 .....                             | 134 |
|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                     | 31  |
| 북지나방면 사령부 참모본부(北支那方面 司令部 參謀本部) .....  | 45  |
| 사카모토 가이치(坂本嘉一) .....                  | 27  |
| 상무성 산림국(商務省 山林局) .....                | 25  |
| 서울특별시 .....                           | 142 |
| 손문(孫文) .....                          | 59  |
| 스가이시로(西水孜郎) .....                     | 35  |
| 스에마쓰(末松保和) .....                      | 151 |
| 시-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 | 147 |
| 신경준(申景濬) .....                        | 104 |
| 야마나미 키오(山名酒喜男) .....                  | 29  |
| 야마타 아리아케(山田有明) .....                  | 80  |
| 오오이 후쿠다로(奥井復太郎) .....                 | 21  |
| 우방협회(友邦協會) .....                      | 15  |
| 울산개발계획본부 기술용역단 .....                  | 67  |
| 이명중(李明仲) .....                        | 63  |
| 이여성(李如星) .....                        | 124 |



## 저자명(발간기관)으로 찾아보기

|                              |   |
|------------------------------|---|
| 인천부 .....                    | 134                                     |
| 일본 건설성 외 .....               | 112                                     |
| 정지성(丁志晟) .....               | 98                                      |
|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          | 65 · 86                                 |
| 조선은행 조사부 .....               | 116                                     |
| 조선총독부 기획부 .....              | 19                                      |
|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          | 130                                     |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          | 13 · 23                                 |
| 조선총독부 체신국 .....              | 71                                      |
| 조선총독부 .....                  | 102 · 118 · 136 · 17 · 65 · 75 · 9 · 94 |
| 조선통신사 .....                  | 82                                      |
| 조셉 니덤(Joseph Needaham) ..... | 41                                      |
| 최남선 .....                    | 55 · 61                                 |
| 토목학회 .....                   | 122                                     |
| 하나부사 야스가스(花房義質) .....        | 84                                      |
|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            | 126                                     |
| 현재(玄采) .....                 | 100                                     |
| 후루쇼 이쓰오(古庄逸夫) .....          | 73                                      |